금주의 법구-〈법구경〉
마음은 항상 용감하게
생각은 항상 신중하게
행동은 항상 깨끗하게 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9월 2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19호 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재해보다 무서운 '무관심'… 사찰은 二重苦

지진·태풍 피해 경상지역 사찰들 어려움 호소

"지진이나 태풍보다 사람들의 무관심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이맘때 오는 수학여행 학생들과 관광객들은 물론 성지순례 오는 불자들의 발길도 딱 끊겼습니다. 사찰이 지역민심을 달래고자 위로행사를 마련했는데 이마저도 참석자들이 적네요."

분황사 정동열 사무장은 "2년 전 세월호 때나, 1년 전 메르스 때도 수학여행이 많이 취소됐지만 지금이 더 심각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경주와 울산지역 사찰들의 피해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성지순례나 자원봉사 캠페인과 같은 범불교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재해지역 고찰 '발길 뚝'

경주시에 따르면 9월 지진 이후 방문객이 57만명으로 예년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했다. 자원봉사를 제외하면 이 지역을 찾는 이들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경주 기림사 부주지 운암 스님은 "참배객이 예년 100명이었다면 지금은 10명 수준이다. 약 10분의 1 수준밖에 안된다. 지진과 함께 태풍에, 이젠 무관심까지 이어져 지역 일대의 근심이 깊다"고 토로했다.

경주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도 "관광객은 주간 수입으로 보면 50% 가량 감소했고 11월 중으로 문화재청에서 복구를 시작한다. 아마도 여진이 끝날때 쯤이면 정상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도 "지진에 이어 수해로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해 사찰 피해를 복구할 인력이 부족하다. 자체인력으로 조금씩하고 있다"며 "템플스테이도 올스톱 상태인데 11월 초 열 예정인 제14회 선무도대회 운영도 걱정"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지역민심 달래기 나선 사찰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찰들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불국사는 10월 7일 영산대재, 분황사가 8일 예술대재를 재난소멸 기원재 성격으로 진행했다.

분황사 정동열 사무장은 "매년 7만명 가까이 오던 수학여행객이 없다시피 해 관람료 수입만도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살림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수해를 입은 통도사도 오히려 지역민들을 보살피는데 나서고 있다.

양산 통도사 교무국장 진응 스님은 "통도사도 일승교 유실 및 피해가 깊지만 양산 지역 피해가 더 심각하다. 지역사회는 그야말로 생존 문제"라며 "수해모금을 사찰에서 진행하고 있다. 1차적으로 언양지역 화재사고에 사회국장 스님이 가서 위로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주지 혜안)도 수해 발생 직후 울산 중구와 북구에 각각 1500만원의 수해복구 성금을 전한데 이어 10월 19일 울주군에도 수해 의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울산지원은 매일 주먹밥 등을 수해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보시하고 있다.

참배객 50% 감소 · 민심 '흉흉'
경주 골굴사 템플스테이 중단
정부 · 종단 관심은 문화재에만
소규모 사찰들 발만 동동 굴러

문화재에만 그친 불교계 관심

조계종의 경우 문화부 직원 등 조사단을 파견해 지난주 지진과 수해 사찰 피해 1차 조사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문화재청과 지자체에 사찰 피해상황을 전달한 상황이다.

지역 사찰들은 이런 현실서 문화재 복구 외에도 자원봉사와 성금 모연 등 범불교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소규모 사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울산 정토사의 경우 축대가 무너져 1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고, 양산 내원사도 진입로가 유실돼 복구가 시급하지만 지자체는 관심조차 없는 상황이다.

경주 기림사 부주지 운암 스님은 "수해 피해로 인근 길이 유실돼 보수공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정부서 지원 받은 건 포크레인 하루 대여가 고작"이라며 "종단서도 달리 연락 받은 것은 없다.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경주 분황사 주지 성효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성지순례를 이 지역으로 오는 등 지역불교활성화에 물꼬를 터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노덕현 · 하성미 기자



"환희의 극락세계가 이곳일세"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현조)의 2016특별전 '꿈꾸는 즐거움, 극락' 전이 10월 18일 개막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국보 제282호인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해 보물 14점과 다수의 불교문화재들이 12월 18일까지 전시된다.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주요내빈들이 전시된 성보를 살펴보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진각종 제12대 총인 회정 정사 추대

11월 1일부터 5년간 임기
30대 통리원장 회성 정사
내년 예산 190억 3천만원



회정 제12대 총인



회성 제 30대 통리원장

진각종 제 12대 총인에 회정 정사(현 통리원장)가 추대됐다.

인의회 의원(5명)과 통리원장, 종의회 의장, 현정원장, 교육원장 등으로 구성된 총인추대위원회는 10월 19일 총인원서 회의를 열고 전원 만장일치로 회정 정사를 총인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11월 1일부터 5년간이다.

총인은 진각종의 법통과 교법의 신성을 상징하고 심인법통(心印法統)을 승수하는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갖는다. 진각종은 총인 추대 추대법회를 11월 중 봉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각종 제 12대 총인으로 추대된 회정 정사는 제 27대 통리원장을 역임했으며, 제 8 · 9 · 11대 종의회 의원, 통리원 총무부장, 회당장학회 이사장 등 종단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탑주심인당 주교와 제 29대 통리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진각종 종의회(의장 덕일 정사)는 10월 20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4층 종의회 회의실서 제401회 정기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통리원장 임기만료에 따른 제30대 통리원장 선거를 실시해 회성 정사(대구 시경심인당 주교)를 신임 통리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11월 1일부터 4년이다.

이번 통리원장 선거는 '통리원장은 인의회의 복수추천으로 종의회서 선출해 총인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의회서 복수추천을 받아 종의회서 선출했다. 인의회는 이날 오전 30대 통리원장 후보에 회성 정사와 덕정 정사(현 총무부장)를 복수 추천했다.

신임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당선 직후 인사말을 통해 "진각종이 70년을 맞아 3세대를 맞게 됐다. 종단 100년을 대비하는 임기가 시작된다"며 "선대 스승님들께서는 원력으로 종단을 이끄셨다면, 3세대 스승님들은 수행과 교리로 종단을 더욱 체계화시켜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회성 정사는 1991년 신락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불정심인당 주교, 능인심인당 주교를 지냈으며, 현재는 시경심인당 주교를 비롯해, 제 35대 현정원장과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 제14대 종의회 의원 등을 맡고 있다. 신임 통리원장 회성 정사 취임식도 11월 중 봉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종의회는 2017년 통리원, 교육원 등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심의해 통리원 144억4천100만 원, 교육원 7억7천700만 원 등 지난해 보다 9억여 원이 증가한 190억3천800만 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이어 진각복지재단 이사로 임기 만료되는 효운 정사 후임에 효운 정사와 선일 정사를 복수 추천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도심사찰서 만나는 현대불교미술 향연

봉은사, 10월 28~31일 서울템플아트페어 개최

거대도심 속 전통 · 불교문화를 오롯이 간직해나가는 서울 강남 봉은사. 각종 문화축제 등으로 시민과 호흡하는 봉은사가 이번엔 현대미술 작가들과 힘을 모아 새로운 문화전시를 연다.

봉은사(주지 원명)는 10월 28~31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봉은사 · 불광사 · 조계사에서 '서울템플 아트페어(Seoul Temple Art Fair)'를 개최한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이 전시회는 현대 · 전통 · 불교미술작가 20여 명이 참여해 '달을 듣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형상을 소개한다.

'공(Sunyata)'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신용일 작가, 발굴이라는 특별한 조형방법으로 부처님과 보살 ·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도구를 조각하는 이영섭 작가, 역사 속 영웅들의 유추된 형상으로 낯섦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창조의 힘을 표현한 라오미 작가 등이 불교적 작품을 선보인다.

봉은사 측은 "시대의 사조 속에서 문사들의 학문이 교류하는 문화의 줄기를 형성했던 사찰의 공간성은 참여 작가들의 다채로운 조형방식과 신구를 관통하는 새로운 담론을 이어가게 한다"며 "경쟁사회에 노출된 수많은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속 깊이 위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전행사로는 28일 오후 5시 봉은사 선불당서 탭퍼 조커가 '행복한 탭댄스'를 공연한다. 또 복태와 한군의 힐링음악을 즐기는 '툇마루 콘서트'와 봉은사 다회의 '작가들과의 차 한 잔' 등도 열린다. 아울러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의 법문도 곁들여진다.

한편 이번 전시는 20여 참여작가들의 협동조합 '아트플랫폼 주인공(主人公)' 설립 이후 첫 프로젝트다. 주인공은 불교미술포럼 '주인공다방'을 통해 전통 · 불교미술의 중흥을 도모하며, 작가들이 주인이 되는 공유갤러리 설립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업체 와디즈(www.wadiz.kr)와 대중 참여를 모집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 령

명)편집국 취재부 기자 **이 승 희**
2016년 10월 26일 부
이상 1명

불보살님의 자비와 가피를 함축하고 있는
진언(다라니) 사경!

사륙배판/112쪽 내외/각 5,000원 〈각권 판매〉



❶과거세부터 지어온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❷업장을 소멸하는 진언
❸태교와 어린이를 위한 진언
❹학업성취를 위한 진언
❺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언
❻소원성취를 위한 진언
❼취업과 승진을 위한 진언
❽화목한 가정을 위한 진언
❾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는 진언
❿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⓫건강과 장수를 위한 진언
⓬재물을 부르는 진언
⓭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조계종 교육원, '상용의례집' 개정판 발간

2016년 공포된 표준 우리말 의식 총망라



조계종의 표준 우리말 의례집이 새롭게 개정됐다.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현응)은 "지난 2013년 발간한 승가교육 교재인 〈불교상용의례집 · 오른쪽 사진〉 전면 수정해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0월 1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개정판에는 종단서 표준 우리말로 공포한 '반야심경', '칠정례'(2012년), '천수경'(2013년)에 이어 올해 2016년 7월 12일자로 공포된 '행선축원' '신중예경' '아침종송' '저녁종송' '삼귀의' '사홍서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개정판은 종단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과 염불교육지도위원장 화암 스님이 직접 감수를 새로이 했다.

또한 교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왼쪽 면을 '한문본'으로 오른쪽 면을 '한글본'으로 편집했으며, 기본 염불의식인 예경 · 불공 · 천도 · 생활의례를 수록했다.

교육원은 "새롭게 개정된 〈불교상용의례집〉은 승가대학 교재뿐만 아니라 스님과 신도 모두의 일상 기도를 위한 종단 표준 의례집"이라며 "스님들의 의례와 불자들의 신행에 든든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오는 10월 27일 통도사와 금산사에서 열리는 '우리말 염불의례 연수교육'에서는 〈불교상용의례집〉 개정판이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02)730-6390 **신성민 기자**

94년 멸빈자 사면, 다시 종회서 논의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는 10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전반기 활동결과를 정리했다.

종헌종법특위는 5년 만에 총 24건의 종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상반기 중앙종회의 최대 관심사인 1994년 멸빈자 사면과 관련된 '종단화합조치 특별법' 제정은 끝내 성안되지 못했다.

중앙종회 사무처 보고에 따르면 사부대중위원회(사부대중위)는 지난 6월 이전까지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했지만, 결과보고가 지연되면서 지난 10월 14일에 결과보고가 제출됐다. 이날 특위는 11월 정기회에서 전반기 특위가 해산하는 만큼 후반기 종헌종법특위에 입법제안 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종회에서는 각종 인사건이 올라올 예정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비상근 이사에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이 추천될 것으로 알려졌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18일 임기 만료된 동국대학교 감사에 덕문 스님(전 동화사 주지, 현 감사)과 태원 스님(중앙종회의원)을 복수추천됐다.

이와 함께 정기회에서는 중앙종회 하반기 종회의장 선출이 진행된다. 하마평에는 중앙승가대학 총장 원행 스님이 오르고 있다. **김주일 기자**

前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원적

10월 15일 오전 6시 동탄 용화사서… 17일 다비식 엄수


용화사서 진행된 정호 스님 다비식.

용주사 前 주지 정호 스님이 10월 15일 오전 6시 동탄 용화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스님의 다비식은 17일 엄수됐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정호 스님은 1973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전강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5년 보은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법보선원 등 제방 선원에서 30안거를 성만한 수좌 출신이다.

지난 2006년 용주사 주지로 임명돼 용주사를 효행 원찰로 자리매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0년 용주사 주지로 재임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16일 조문했다. **신성민 기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통해 품격 높인다

문화재청, 내년부터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추진

내년부터 전국 25개 사찰의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 문화 사업들이 시작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품격 산사문화 관광상품 프로그램인 '2017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25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첫 선을 보일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한국의 전통산사에서 계승되고 있는 인문학적 정신유산에 대한 대중화 · 세계화 일환으로 이뤄진다. 특히 정부는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을 최근 주목받고 있는 MICE 사업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MICE 사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아우르는 서비스 사업을 의미한다.

또한 조계종이 추진하는 전통산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산사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 세계유산에 성공적으로 등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통도사 · 법주사 등 25곳 선정돼
인문적 정신문화 세계화 일환
MICE 활용 · 세계유산 등재 기반

하는 것도 이번 사업의 기획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지난 8~9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모된 43건의 사업 중 △콘텐츠 우수성 △사업추진 체계운영 △발전성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12개 시 · 도 2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속리산 법주사의 史視樂樂-역사를 돌아보는 한걸음 △오대산 월정사의 오대자락, 천 년의 인고를 품다 △지리산 실상사의 실상사, 마을과 함께한 천년의 향기를 느끼다 △도솔산 선운사의 보은염 이운행사 '1500년을 이어온 은혜 갚은 소금이야기' △조계산 송광사 · 선암사의 조계산 천년산문을 열다 등으로 국내 곳곳의 산사가 지닌 저마다의 특색과 고유의 이야기를 담은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문화재청이 새롭게 마련한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를 융복합하여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문화재를 기반으로 한 지역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2008년부터 생생문화재 사업을 통해 지역 향토문화재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왔다"며 "내년부터는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까지 분리 · 운영함으로서 문화적 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10월 19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2017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상 지자체, 사찰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GBC 건립 반대 전국사찰 동참 확산"

10월 17일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서 결의문 채택

서울시장 참회 및 절차 중단 촉구
강행시 주민소환운동 범불교 전개
신도시 포교 등 종단 현황도 보고


교구본사주지회의는 10월 17일 서울 강남 봉은사서 사상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봉은사 인근 현대차 GBC건립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초고속 인허가 절차를 서울시에 밟고 있는 현대차의 GBC건설을 막기 위한 불교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초고층인 GBC건설 시 일조량 감소로 인근 봉은사 문화재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문화재 환경평가를 거치지 않는 등 건립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자승)는 10월 17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개최했다. 봉은사에서 교구본사주지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개최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싱크홀, 소음, 진동 등 사찰과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과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이는 졸속이자 재벌특혜로 종단은 수행과 전통문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현대차 GBC건설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허가 절차 중단 및 참회 △강행시 주민소환운동의 범불교적 전개 △역사문화수행환경 보존활동을 위한 활동 동참 등을 결의했다.

특히 주지 스님들은 "불자와 국민들에게 헌법파괴, 전통문화 파괴 실상을 낱낱이 알려나갈 것이며 강행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범불교적 운동으로 전개하겠다"며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전통문화 창달과 계승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는 2017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보고, 신도시 사찰 건립 추진 보고, 성보국외환수 추진 현황 보고, 10 · 27법난 기념관 건립 현황 보고 등도 함께 진행됐다.

신도시 사찰 건립에는 세종신도시와 위례신도시 사찰 건립계획이 공개됐다. 세종신도시 사찰은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전월산 지역에 약 4840평 규모의 부지가 마련된 상태다. 계약금은 132억여원으로 현재 3회 분할 납부됐다.

이 곳에는 사찰과 함께 한국불교문화홍보체험관도 건립된다. 홍보체험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공사가 진행된다. 총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7년 설계 및 시공착수, 2018년 시공, 2019년 완공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 한국불교문화홍보체험관 건립 추진위 구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위례신도시 사찰은 현재 하남시 감이동 호국사자사 위치인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들어서며 약 3025평 규모다. 계약금은 249억여원으로 현재 10회 분할 중 4회 납부된 상태다. 위례신도시 사찰에는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성보문화재연구원)가 건립된다. 위례신도시 사찰에 들어설 성보문화재연구원은 현재 건축사무소에서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중이다. 총 8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17년 상반기 착공식을 목표로 11월까지 사찰 기본계획, 12월까지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계획이 수립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법등 · 정광 · 정신 스님 직지사 주지 입후보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선거에 법등 · 정광 · 정신 스님 등 3명이 입후보했다. 직지사 교구선관위는 10월 18일 주지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조계종 前 호계원장 법등 스님과 직지사 前 부주지 정광 스님, 현 부주지 정신 스님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직지사 주지 선거는 법등 스님의 단독 입후보로 추대 형식으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됐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직지사 운영위원회(위원장 법등)가 9월 24일 법등 스님을 차기 주지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직지사는 주지 선출 시 운영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왔다.

법등 스님은 1961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으며 서울 조계사 주지, 구미 도리사 주지, 제9~13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광 스님은 1974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으며 상락사와 북장사 주지, 직지사 부주지 등을 역임했다.

정신 스님은 1982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으며, 직지사 총무국장, 부주지, 교구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10월 28일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앞두고 조계종 중앙선관위는 10월 25일 3명의 후보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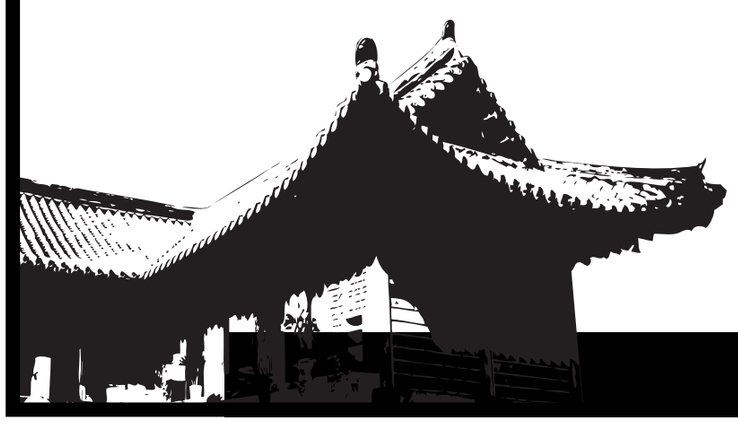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간화선은 대중과 함께 할 때 큰 의미”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간화선대법회서 강조

10월 15일 대구 동화사서 개최
첫 법사로 나서…1500대중 운집
인성교육 5계 새롭게 공개해
7명 선사들 차례로 대중 화두 제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사진 왼쪽)은 제2회 간화선대법회서 간화선 대중화를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는 1500여 대중이 운집했다.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야단법석이 대구 동화사에서 10월 15일부터 7일간 펼쳐졌다. 첫날 법사로 나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간화선 대중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스님은 1500여 대중이 운집한 자리에서 윤리교육 5계를 제시하고 간화선사들의 대중 회향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이날 해외순방에서 본 서구사회의 참선열풍을 소개하며 대중들에게 간화선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많은 해외 순방에서 보니 간화선 참선법이 많은 시민에게 호응을 얻어 특히 지식층이 참선 명상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 한국 간화선이 발전하리라 본다”며 “수좌 스님들이 선방에서 착실히 공부하여 세세생생 한국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해주셔야 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인성교육 5계를 제시했다. 스님이 제시한 5계는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부모와 조상님께 효도합시다 △친구와 이웃을 사귐에 있어 신의를 바탕으로 합시다 △맡은 바 일에 성심과 정성을 다합시다 △뭇 생명을 사랑합시다 등이다.

5계를 제시한 스님은 “일등 지혜의 눈을 갖추고 한편으로는 인간미 넘치는 이런 실천행을 통해 우리 사회, 세상을 밝게 하자”며 “옛 선사들에게서도 자신의 수행보다 대중을 지도함을 더 높게 평가한 것은 이런 연유다. 이런 이가 있으면 산승이 주장자를 두 손으로 전하겠다”고 말했다.

간화선 대법회에서는 선사들의 법문이 이어졌다. 간화선 대법회 둘째 날인 16일 무여 스님(축서사 선원장)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행과 정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일상 그대로 공부와 생활이 일치해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은 일상을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며 “생활선이 되게 하는 것이 화두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16일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은 셋째 날 법회에서 “인삼은 6년만에 캐고 산삼은 보는 즉시 캔다면 수행도 듣는 즉시 실천하라”면서 깨달음과 함께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18일에는 함주 스님(법주사 총지선원 선덕)이 10여 년 만에 대중 앞에 나서 “수행정진에는 고행이 따르게 마련이다. 편히 앉아서 깨닫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깨치기 어렵다”며 “태산은 흙 한 줌 한 줌이 모여서 됐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적고 하찮아도 옳고 바르면 모이고 모여서 큰 산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동화사 금당선원 유나 지환 스님은 “부처로 살겠다는 치열한 발심으로 간절하고 꾸준히 화두를 구하고 찾으면 삶이 변화할 것”이라고 설했다.

20일에는 현기 스님(지리산 상무주암 수좌)이, 21일 대원 스님(학림사 오등선원 조실)이 차례로 법사로 나서 수행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적 수행법인 간화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화선대법회 법회 시작에 앞서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대표 의정 스님은 “직접 법문을 내려주심은 큰 영광”이라며 “간화선대법회는 종단의 발전과 한국불교 발전의 초석을 놓는 불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님은 또 “우리나라는 지구촌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남북한 극한 대립 상황에 지진과 사회갈등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선사들의 실참법문이 간화선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이번 행사에 참석한 정효 박성중 거사는 “한국불교 수행은 간화선이라는 희망이 있다. 선방에 계신 선사들을 보다 쉽게 만나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법회가 보다 많이 생겨 스님들이 불자대중을 보다 활발하게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남겼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생명존중 만방에 펼칠 ‘세계생명헌장’ 논의

생명포럼, 2016 월정사 국제컨퍼런스서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가 주최하고 생명포럼이 주관한 2016 월정사 국제컨퍼런스 ‘생명다양성을 넘어 생명존엄성으로’가 10월 14일 알펜시아리조트서 열렸다. 이날 자리서 생명포럼은 윤용택 제주대 교수와 정민걸 공주대 교수가 작성한 ‘세계생명헌장’ 초안을 발표했다.

세계생명헌장 초안은 “모든 생명체는 모두 한 뿌리서 나와 서로 연결된 하나의 몸으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존엄한 존재”라고 전제했다.

또한 “현세대의 집착된 쾌락을 위해 생명체와 생태계를 파괴하며 미래세대가 희생되도록 하는 것은 죄악이다. 쾌락과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하며 기후변화, 미세먼지, 물 부족, 숲 파괴, 해양오염 등 위험 수준에 근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명존중 원칙 10가지’가 제시됐다. 10개 원칙은 △지구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갈 유일한 거주처다 △인류의 지식과 지혜는 모든 생명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쓰여야 한다. △모든 인간은 전쟁이 가장 큰 죄악임을 인식하고 평화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등을 포함한 내용이다.

이어 세계생명헌장 초안에 대한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도 진행됐다.

윤용택 교수는 “특정 종교, 특정 집단의 생명헌장이 아닌 세계 헌장이 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회시스템 변화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현대문화 및 제도 변화의 필요성도 제시해야 한다. 실질적 헌장이 되기 위해 앞으로 많은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생명헌장은 추후 수정 · 보완 작업을 거쳐 2017년 상반기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1000일동안 이어질 화엄의 구법여행

범어사, ‘53선지식 천일화엄대법회’ 개최

의상대사가 화엄 십찰 가운데 하나로 창건한 금정총림 범어사가 천일동안 화엄 법석을 마련한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53선지식 천일화엄대법회’를 11월 29일 오전 10시 보제루에서 대강백 무비 스님의 법석으로 시작한다.

‘53선지식 천일화엄대법회’는 범어사가 화엄사상으로 창건된 의미를 전하고 부산에 화엄의 뜻을 널리 펼치기 위해 기획됐다. 앞으로 범어사는 매월 초하루마다 선지식을 초대해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펼치는 구법여행을 진행한다.

이번 천일화엄대법회에 앞서 범어사는 11월 1~3일 매일 오전 10시 보제루에서 ‘53선지식 천일 화엄대법회 특강’도 연다.

이 시간은 〈화엄경〉의 전체 개요 내용을 이 시대 대강백의 깊이 있는 설명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다.

특강 기간에는 불국사 덕민 스님(불국사 승가대학장), 범어사 무비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통도사 지안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이 강사로 나선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범어사는 화엄 십찰 중 하나로 선찰대본산 금정총림이라는 역할에 맞는 법석이라 생각된다. 불도 부산의 화엄종찰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법석이라 그 의미가 크다”며 “매월 화엄 법석에서 법희선열의 참된 행복을 만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051)508-3636 하성미 기자

“잘못된 정부 결정, 책임은 가장 약한 자들이…”

사회노동위 등 3대종교, 조선업 하청노동자 고용안정 기원법회

진퇴양난에 빠진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을 위해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3대종교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모여들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10월 1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량해고 위기를 맞은 조선소 하청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엔 사회노동위원장 혜용 스님과 사회노동위원 도철 · 법상 · 고금 스님을 비롯해 이웃종교인, 현장노동가 40여명이 참석했다.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염원하며 열린 이 행사는 천주교 · 개신교 · 불교 순으로 각 종교 기도의식 및 발언이 진행됐다.

혜용 스님은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생기는데, 반대로 고통과 억압은 아래부터 발생한다”며 “이처럼 불합리한 삶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고자 성직자들이 나섰다. 더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 하루빨리 하청 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을 갖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앞서 정수용 신부는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책임을 가장 약한 자들이 짊어지고 있다. 책임지겠단 고용주 한 명 없으며,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단 얘기조차 없다”며 “우리는 수많은 자들의 지혜를 모아, 약한 자들이 연대하고 정부는 그들을 보호하는 데 충실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자리엔 송태완 거제통영고성 금속노조설립위원장을 비롯한 현장노동가들도 함께했다. 송 위원장은 “‘조선업 위기’란 명목으로 정규직들에겐 희망퇴직 권유 형태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소리소문 없이 일자리서 쫓겨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주십사 우리는 거리로 나섰다”고 성토했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3대 종교는 10월 1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서 대량해고 위기를 맞은 조선소 하청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기도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의 대중화·세계화를 위해서는 다방면의 불교 인재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학문과 인격을 수양하는 조계종 유일의 종합대학입니다.
종립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후원해 주실 귀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휴지 한 장도 아껴 쓸 만큼 근검절약하며 모았습니다.
동국대가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 사회와 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인 스님(입적) : 평생 청빈한 삶을 살며 모은 전재산 5억원을 암투병 중 동국대에 기부하고 1주일 후 입적

“재산은 나 살만큼만 두고 동국대에 많이 내놓고 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거 아닙니까.
좋은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도 좋고 부처님도 좋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故 이명기 보살 : 평생 방직공장에서 일하며 마련한 전재산인 전농동 아파트를 2002년 동국대에 기부

•**후원 문의:**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02-2260-8992~4)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일 주 문



군승 日불교 성지순례

정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스님은 10월 10~14일 영관 군승법사 16명을 대상으로 일본불교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무심사 제3회 산사음악회

무심 대구 낙동강 무심사 주지 스님은 10월 30일 경내에서 '무심사 제3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제5회 법일문화재

묘명 산청 대원사 주지 스님은 10월 15~16일 경내에서 지역민 초청 '제5회 만허당 법일문화재'를 개최했다.



'이뭣꼬' 서울공연

선상신 BBS불교방송사장은 11월 1~3일 서울 양재동 더 케이 아트홀서 깨달음의 연극 '이뭣꼬!'를 공연한다.



이주민 독감예방 캠페인

황채운 날마다좋은날 반갑다연우야 봉사단장은 10월 12~15일 서울 적십자병원서 '다문화 및 이주민 독감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불교+인문' 대안 공동체 조성"

복합문화운동단체 미르문화원 개원한 명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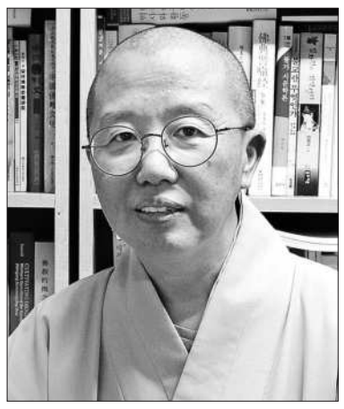
"미르문화원은 불교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살피는 복합문화운동단체입니다. 불교와 인문, 환경, 수행을 결합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펼칠 생각입니다."

10월 9일 서울 마포에 문을 연 미르문화원에 대해 명법 스님은 이 같이 설명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미르문화원의 창립 이전부터 뜻을 함께 한 명법 스님은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미르문화원은 스님을 중심으로 대표인 이승숙 씨 등이 서울대 재학시절에 수행과 기부를 위한 생활공동체를 구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명법 스님을 비롯한 도반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단체를 창립해 이끌어왔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문화 단체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제 함께 모여 뜻을 펼칠 인연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르문화원을 개원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미르문화원은 은유와마음연구소, 무빙템플, 삶ㅇ, 땅과 얼의 4개 단체가 가입된 연합 조직의 형식을 띤다.



은유硏·무빙템플 등 연합 결성
불교 바탕한 다양한 사업 전개
자비행 실천위한 봉사 활동도

각자 단체마다 갖는 특색도 명확하다. 명법 스님이 대표로 있는 은유와마음연구소는 불교와 명상, 인문학의 학제간 연구와 교육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회원단체로서 명상과 은유치료를 개발·보급하고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빙템플도 명법 스님과 함께 새로운 불교 공동체를 지향하는 단체이다. 열린 공간에서 사부대중이 만나 수행하고 공부하며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다.

땅과 얼(대표 윤승서)은 한국 전통 활법 및 태극권, 요가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 문화 활성화를 추진하며, 삶ㅇ(대표 이승숙)은 수행과 명상 교육 등을 통해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다.

우선적으로 미르문화원은 소속 단체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자유롭게 진행하는 장으로 활용된다. 당장 명법 스님의 은유와마음연구소는 11월 6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미르문화원에서 '불교와 현대철학 세미나'를 진행한다. 명법 스님을 좌장으로 조현수 능인대학원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베르그송의 생명 철학'을 설명하고 들뢰즈의 책 '마조히즘'과 '차이와 반복'을 강독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학교'도 준비 중이다.

"4개 단체가 연합하고 있지만 목적은 명확합니다. 바로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르문화원 자체가 '연합 대안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저는 불교와 인문학, 수행, 봉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미르문화원 개원은 그 시작입니다." **신성민 기자**

한마음선원, 청년 가을운동회

안양 삼성초교서… 본원·지원 300명 동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10월 16일 안양 삼성초등학교에서 '한마음선원 전국청년연합 가을 운동회'를 개최했다. 본원 및 각 지원 청년회 300여 명이 참가한 운동회는 구기종목을 비롯한 다양한 경기가 펼쳐졌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젊은이다운 패기를 갖고 대장부처럼 경기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운동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지명 스님 조동종 대법사 추대

10월 16일, 양주 보리사서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은 10월 16일 양주 장흥면 보리사서 총무원장 덕우 스님을 비롯해 부종정, 승정원장, 종회의장, 감찰원장 등 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동종 제3~5세 종정 덕찬당 지명 대선사의 대법사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포교대상 '종정상' 無… 14명 수상

조계종 포교원, 공로상 6명·원력상 8명 선정

제28회 포교대상이 대상인 종정상 수상자 없이 공로상(총무원장상)과 원력상(포교원장상) 수상자 14명을 선정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0월 19일 제28회 포교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는 공로상에 지공 스님(황룡사 주지)·공영호 법사(육군3군사령부)·함현준 법사(육군사관학교)·정갑윤 의원(새누리당)·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신영훈(한옥건축가) 등 6명을 선정했다.

원력상은 응관 스님(심원사 주지)·윤창화(민족사 대표)·어윤식(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김미숙(보건복지부)·이승표(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우인보(동국대 학교부속 영석고교)·실상사 작은학교·이두석(국제포교사) 등 개인 7명과 단체 1곳이 받는다. 대상은 후보자가 없어 선정하지 못했다. 이는 1998년 제10회 포교대상 이후 처음이다.

제28회 포교대상 시상식은 11월 3일 오후 3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봉행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소식 불교계 축구동호회 FC붓다를 비롯한 교계 8개팀은 10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동국대 운동장서 '제5회 불자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천진불 모여 운동하니 '와글와글'

조계종 직할교구, 천진불 어울림한마당

조계종 직할교구는 10월 16일 동국대 대운동장서 '반갑다 친구야 와글와글 운동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소재 사찰 어린이법회 아이들과 학부모, 지도법사 등 1000여 명이 운집한 운동회는 친목 도모와 어린이법회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송을 하고, 몸 풀기 체조를 마친 아이들은 △대형 젠가 만들기 △신발다트 △풍선테이프 떼기 △종이컵 쌓기 등 다양한 게임을 즐겼다. 아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운동하는 시간에 부모들은 서로 평소 나누지 못한 얘기를 풀어놓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오후에는 사찰별 장기자랑과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등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경기가 이어졌다. 아울러 법명 스님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은 운동회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 박수갈채를 받았다.

화계사 이지현 양은 "평소 사찰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큰 운동장에서 놀 수 있어 즐겁다"며 "할 수 있는 게임이 많아 좋다. 내년에도 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호섭 기자**

언론문화상 TBC '무문관' 대상

조계종 총무원 주최, 시상식 11월 2일

제24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TBC가 제작한 2부작 '무문관'이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10월 17일 제24회 불교언론문화상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상작은 △대상-TBC 2부작 '무문관' △방송부문 최우수상-KBS '하늘에서 본 암자', 우수상-MBC 스페셜 '세상을 토닥토닥'과 부산BBS '우리들의 찬불가' △신문부문 최우수상-법보신문 연중기획 '불자답게 삽시다', 우수상-불교신문 '봉은사 한전부지 매각사건' △뉴미디어부문 우수상-BBS '붓다핸섭 시즌1 쇼미 더 붓다-랩하는 스님들' △특별상-버디필름 영화 'Bring Home-아버지의 땅'과 '월간 불광 500호' 등이 선정됐다. 불교언론인상은 정일태 언론사불자연합회장(KBS보도본부 해설위원)이 영예를 안았다.

대상작인 TBC '무문관'은 3년 동안 무문관 수행촬영을 통해 스님들의 결연한 수행과 사찰의 사계절 영상을 담아냈다. 화두를 깨치기 위한 스님들의 무문관 정진과 함께 종교인으로서의 고뇌 등을 잘 전한 수작으로 평가됐다.

방송부문 최우수상 KBS '하늘에서 본 암자'는 남해 보리암서부터 설악산 봉정암까지 남북으로 뻗은 1625㎞ 길이의 백두대간을 따라 하늘서 내려다 본 암자들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담아냈다는 평가다. 신문부문 최우수상 법보신문 '불자답게 삽시다'는 불자로서 갖춰야할 소양 37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면서 생활에서 느끼는 불자들의 고민을 잘 반영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불교복지 인재 양성 '박차'

조계종복지재단·동국대 불교대학원 MOU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동국대 불교대학(원)은 10월 19일 동국대 법학원 1층 불교대학장실서 '사회복지인재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불교사회복지교육 협력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사회복지 현장실습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토대로 협력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10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보림꽃예술중앙회장 지연 스님의 '여정(旅程)' 일부. 왼쪽부터 '출가' '향화' '탑 그늘 아래' 다. 스님의 작품은 화려함보다 절제미를 살려 관객의 사유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

45년 꽃길 정진 '花禪不二'로 승화

〈화선불이〉

[현장] 제6회 보림꽃예술중앙회 꽃꽂이 전시회

검은 소 한 마리가 바위 사이로 뛰어 들어간다. 머리와 앞다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다. 그 소를 잡기 위해 더벅머리 동자가 양손에 끈을 쥐고 쫓아간다. 동자 옆에는 마디초가 우뚝 솟아 있고, 노박넝굴이 한 아름이다. 발밑으로 라벤더와 소국이 풍성하다. 단순한 심우도(尋牛圖)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 나뭇결에 그려진 심우도를 식물과 조화시켜 하나의 새로운 작품으로 재해석한 꽃꽂이다. 바로 보림꽃예술중앙회장 지연 스님의 동진출가 모습이다.

보림꽃예술중앙회(이하 보림회)의 제6회 전시회 '마음 머물다-화花 · 화畵 · 화話'가 10월 18~19일 서울 현대백화점 미아점 사파이어홀서 장장 7년 만에 열렸다. 보림회 창립 25주년과 회장 지연 스님의 꽃길 4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회원들과 (사)한국꽃꽂이협회 초대작가 등 불교 · 일반 꽃꽂이 작품 90여 점을 한자리에 선보였다.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지연 스님의 고희(古稀)에 맞춰 출가부터 수행정진해 현재에 이르는 일대기를 8부작으로 표현한 '여정(旅程)'이다. 앞서 소개한 작품이 바로 10세에 속세를 떠나는 '출가'다. 여정은 가사장삼과 호접란, 망개가 어우러진 '향화(25세)'를 거쳐, 기원사를 창건하는 '도(道) 그리고 화예(花藝)(35세)'로 이어진다. 이후 발우에 꼿꼿하게 선 스틸그라스로 수행의 공양을 표현한 '깨달음의 공양(40세)', 오색 국수가닥과 수양버들, 클레마티스로 꽃길이 만개함을 전하는 '화엄법계(51세)', 불교꽃꽂이 저변 확대 노력을 담은 '만행화(61세)', 긴 세월 끝에 이른 출가 60년, 꽃길 45년의 '진리의 향연(오늘날)'까지. 여백과 절제미로 선(禪)적인 감각을 이끌어내는 지연 스님의 표현력이 도드라진다.

특히 마지막 작품인 '탑 그늘 아래'는 압권이다. 소우주를 상징하는 속이 빈 나무둥치에 작은 소나무 한그루와 석탑이 좌우 조화를 이룬다. 그 사이로 고고하게 솟아오른 안시리움 하나. 바로 지연 스님이다. 스님은 이 작품을 통해 우주만물 속에서 불교를 만나 꽃공양으로 원 없이 회향하고자 하는 서원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전시회에는 제자들이 수개월 간 준비한 선화(禪花) 작품과 불교의식 장엄화, 기초부터 창작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작품 등이 관람객을 맞았다. 지연 스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한 점도 없을 정도로 애정 어린 작품들이다.

전시회장에 방문한 (재)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은 "45년이란 세월 동안 아무 것도 없던 불교꽃꽂이를 이처럼 키워낸 지연 스님의 원력이 대단하게 느껴진다"며 "꽃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맑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밭을 일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극찬했다.

전시회는 작품 전시 외에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꽃꽂이 체험을 곁들여 행사의 질을 높였다. 기원사 합창단과 남성4중창 '육화림 솔리스트 앙상블', 황명주 피아니스트, 현악4중주 '플러스앙상블' 등 수준 높은 음악공연이 펼쳐졌으며, 명원문화재단의 궁중 전통다례 시연과 꽃다발 만들기가 진행됐다.

대전에서 온 방장록(61) 씨는 "평소 꽃꽂이 활동을 즐겨하는데 불교꽃꽂이는 처음 접했다. 일반 꽃꽂이와는 조금 달리 불교적인 느낌이 나서 새롭다. 눈길을 끄는 작품이 많다"고 소감을 밝혔다.

작가이자 관람객으로 참여한 박순희(55) 씨는 "신심이 기본 바탕이 될 때 가능한 작품들인 것 같다. 인위적이지 않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작가들의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록 전시기간은 1박2일이지만 꽃공양을 통한 포교가 사람들의 심성을 곱게 하고, 바쁜 삶의 쉼표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꽃 이용한 문화포교 한층 성장하길"

보림꽃예술중앙회장 지연 스님



"올해로 꽃에 입문한지 45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불교계의 꽃을 이용한 문화포교가 많이 성장한 만큼 후학들이 불교적 가치를 잘 담아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불교꽃꽂이 1세대이자 보림꽃예술중앙회장 지연 스님〈사진〉은 후학들에게 '꽃 문화포교'를 당부했다. 고희를 맞은 지도자의 간절함이 담긴 바람이다. 스님은 1957년 종남산 미타사서 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평생을 불교꽃꽂이에 바쳤다. 오랜 세월 동안 불교꽃꽂이 선봉에서 걸어온 지연 스님은 이제 한발 물러나 제자들을 도우며 여유를 찾을 계획이다.

"꽃꽂이 강의를 40여 년간 놓지 않고 해왔어요. 지금도 매주 수요일에 강의를 하는데 올해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물론 꽃꽂이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연구생들과 후학에게 더욱 많은 도움이 될 불교꽃꽂이를 연구할 겁니다."

지연 스님은 연구활동과 더불어 불교꽃꽂이 저서 발간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불교꽃꽂이가 재가자들에 비해 출가자 관심이 저조한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예전에 비구니 강원을 돌아다니며 꽃꽂이 강의를 한참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관련 강의가 대부분 사라졌어요. 그만큼 출가자들의 관심이 떨어졌다는 것이겠죠. 육법공양의 하나인 꽃공양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불제자 모두 관심 갖길 기대합니다."

윤호섭 기자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오른쪽)이 보림회장 지연 스님 안내에 따라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전시장을 가득 메운 불교꽃꽂이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들.



보림회원들의 작품. 오른쪽 수월관음도와 어우러진 꽃꽂이가 눈길을 끈다.

/
불교 정화
/
10·27 법난
/
개혁종단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현장에서

/
IMF 구제금융 사태
/
위안부 할머니 문제
/
세계 빈곤

한국사와 세계사의 현장에서

조계종 출판사

(주)조계종출판사 문의
02-720-6107~9 www.jogyebook.com

송월주 사진집

太空

태공 송월주 대종사 사진집 간행위원회 엮음
국배판 변형 | 344쪽(양장, 컬러) | 가격 35,000원



송월주 회고록

토끼뿔 거북털

송월주 대종사 지음
4×6배판 변형 | 724쪽(양장) | 값 30,000원

"이 책은 송월주 스님이 출가 이후 절차탁마하며 보낸 시간에 대한 기록이자 수십 년 시민사회운동에 발 딛고 사회봉사를 실천하며 느낀 소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유했던 여러 인물 등에 대한 이야기이다.
워낙 광범위한 활동을 펼쳐 왔던 스님이기에 책 속에 실린 이야기는 때론 조계종의 근현대사이며 또 때론 질곡과 영광을 함께했던 한국사이기도 하다."

- 회고록은 한국 현대 불교의 역사와 불교계 사회복지 역사와 다름없다. * 조선일보
- 월주 스님의 개인사는 조계종단의 개혁사와 맥을 같이한다. * 중앙일보
- "이판이 아니면 사판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사판을 하지 않으면 이판도 의미 없다." * 동아일보
- 월주 스님의 보리심은 국경을 넘었다. * 한겨레
- 월주 스님은 자신의 수행과 자비행을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고 표현한다. * 한국일보
- 불교가 세상을 등진 채 산중에만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는 게 스님의 지론이다. * 연합뉴스

100일 수행하면 '참나' 만날까?

마가 스님, 온·오프라인 100일 수행 독려
정기 수행모임·페이스북페이지 등 운영

하루수행·긍정단어 독송으로
자신 모습 꾸준히 돌아보며
초발심 유지하는 게 수행 핵심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이 걷기명상 참가자들과 포행 후 숲과 명상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제공=자비명상

신간 〈나를 바꾸는 100일〉을 통해 재가불자들의 꾸준한 수행안내에 나선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행을 독려한다.

마가 스님은 최근 〈나를 바꾸는 100일〉을 출간하면서 자비명상 홈페이지(www.jurira.net)에 '나를 바꾸는 100일 수행나눔' 게시판을 개설했다. 이 게시판은 책을 보며 수행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100일 수행과정서 겪는 경험담, 질문 등을 부담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다. 아직까지는 수행자들의 글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수행이 본격화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활성화될 것으로 스님은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마가 스님은 페이스북페이지 '나를 바꾸는 100일 수행모임(www.facebook.com/100newstart)'도 신설했다. 회원가입을 필요로 하는 자비명상 홈페이지보다 한층 접근이 쉬워 누구나 수행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스님은 이 같은 온라인매체를 통해 수행을 지도하는 한편 수행자들의 공감 커뮤니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마가 스님은 "100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책을 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수행을 마무리할 때까지 돕는 것이 저자이자 승려의 의무"라며 "수행자들이 중도포기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가 스님은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 수행모임도 준비 중이다. 11월부터 매달 셋째 주 일요일에 안성 굴암사서 수행담을 나누는 자리를 연다. 법회형식을 벗어나 100일 수행과 관련된 질의, 수행지도 등 함께 탁마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그렇다면 100일 수행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마가 스님은 '마음가짐'을 꼽았다. 스스로 수행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다. 스님은 "'계는 행복에 이르는 사다리'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일이 많다. 불교가 쇠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오계를 100일만큼은 꼭 지키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그 이후 수행을 시작해야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를 바꾸는 100일 수행'은 정념수행·자비명상·108배·긍정단어 독송·보시 등 하루수행법과 부정관·자비관·수식관·염불·간경 등 나에게 맞는 수행법 찾기로 시작한다. 그런 뒤 미소·웃음·용서·칭찬 등 매일 1개의 긍정단어와 짤막한 이야기를 읽고, 오늘 잘한 일·후회되는 일·고마운 사람·내일 할 일 등을 적어 하루를 돌아본다. 아울러 그날 실시한 자신의 수행법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만족도를 적어 스스로를 평가한다.

100일이라는 기간에 수행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일주일 단위로 잠시 쉬어가는 코너를 마련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 코너는 사진이나 경전문구,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일화 등을 소개하고, 간단한 생활명상과제를 제시해 초발심을 다지도록 돕는다.

마가 스님은 "수행하지 않는 재가불자들이 수행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맑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적극 실천에 나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호스피스 消盡(소진), '팀워크·매뉴얼 구축' 해법

불교호스피스협, '호스피스팀원의 소진예방' 세미나 개최


박진노 보바스기념병원장 최영심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한수연 남서울대 교수

내년 8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호스피스 인력 충원 및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불교계는 현재 운용 중인 호스피스팀의 직무여건을 개선하고, 소진감을 예방하기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협회장 능행, 이하 불교호스피스협)는 10월 14일 제7회 호스피스 세미나 '호스피스팀원의 소진예방'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호스피스 활동가로서의 고충 및 대응책 등을 털어놨다.

먼저 박진노 보바스기념병원장은 호스피스의 소진은 이직·퇴직으로 연결돼 호스피스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소진인자'를 지닌 호스피스들을 위해 '팀별교육'이 효율적임을 주장했다.

박 원장은 "소진인자를 지닌 호스피스들은 소진저항력이 낮아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을 위해 팀별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법으로 △소속감 높이기 △긍정적 피드백 주고받기 △동료끼리 상담해주기 등을 제시했다.

이어 최영심 충남대병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는 호스피스간호사·일반간호사·의사에 적용되는 매뉴얼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환자의 증상조절 치료서 업무표준이나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제각각 진료, 전문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호스피스 전문간호사가 일반 의사 및 간호사와 갈등을 초래한단 지적이다.

최 간호사는 "호스피스 간호사는 치유가 되지 않는 말기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과정서 과중한 업무량, 정서적 고통과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업무 및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지원 등 호스피스간호사들에 대한 소진예방법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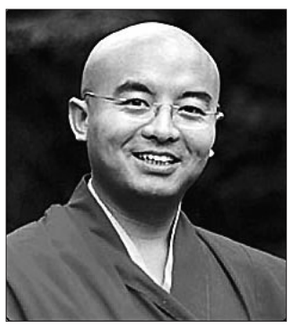
이와 관련 한수연 남서울대 교수는 "협회차원서 호스피스 사회복지사 교육 및 훈련과정을 특화 실시해야한다"면서 "특히 현재는 호스피스 사회복지사의 직무표준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역할과다 및 역할모호서 비롯되는 소진감 및 과중 업무를 막기 위해 긴급지원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 행사에 앞서 불교호스피스협은 '제5회 The 아름다운 사람 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송지환(울산지부)·김두래(부산지부) 씨가 수상했다. 아울러 영적돌봄가 다경 스님은 모범적인 활동으로 포교원장상을 수상했다.

박아름·이승희 기자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 11월 방한

4~5일·11일, 서울·부산서 수련회와 대중강연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불리며 티베트불교의 젊은 지도자로 추앙받는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사진〉가 11월 방한한다. 2011년 첫 방한 이후 4년간 히말라야로 수행길에 오른 그가 이번엔 어떤 메시지를 대중에 던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텔가코리아(Tergarkorea)는 11월 4~5일 서울 수서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서 밍규르 린포체를 초청해 'Joy of Living 1단계' 수련회를 개최한 뒤 8일 같은 장소서 '불안의 시대를 기쁨으로 채우기'라는 주제로 대중강연을 연다. 아울러 11일 부산 홍법사서 '4년간의 방랑수행'을 주제로 한 강연도 개최한다.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는 1975년 네팔서 태어났다. 3살 때 티베트 고승인 욘게이 밍규르 도르제의 7대 환생이자 20세기 영적 지도자 카브제 캉규르 린포체의 동시 환생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어린 시절 명상을 통해 공황장애를 극복했다고 알려졌다.

2000년 미국 위스콘신대학 와이즈먼 뇌신경연구소가 실시한 '명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참여, 명상의 효과를 증명하면서 과학자들로부터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별칭을 얻은 바 있다.

참가신청은 텔가코리아 네이버 카페(cafe.naver.com/tergarkorea)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TergarKorea)에서 하면 된다. (02)3413-5201

윤호섭 기자

"지혜로운 마음으로 공무 수행"

공불련, 동화사서 제17차 합동수계법회


공무원불자연합회 합동 수계법회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계를 설하고 있다.

전국 각지서 모인 공무원불자들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계를 받아 지혜롭게 공무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는 10월 15일 대구 동화사서 '창립 16주년 기념법회 및 제17차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국태민안과 남북통일'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계사로 나서 공무원불자들이 지켜야할 계목을 설했다.

진제 스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이 물질에 예속돼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아 남북·세대·지역·직업 등으로 분열되고 있다"면서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를 되새겨야 한다. 공불련이 전국단위 포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통일과 사회구성원의 단합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공불련 역사상 처음으로 조계종 종정의 수계를 받은 자리로, 500여 명의 공무원불자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이에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최경환·정종섭 국회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영상을 통해 공불련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후 공불련은 통일대불전 앞 특설무대서 힐링멘토 혜민 스님 초청 '마음치유콘서트'를 실시했다. 오후 9시에는 각 기관불자회 대표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를 열고, 공불련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호섭 기자

'마음챙김 자기연민' 명상 배워보자

국제선센터, 11월 9일부터 매주 수요일 명상교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서 어지러운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한 명상교실이 열린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11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수요 마음 쉼 명상교실'을 운영한다. 이 명상교실은 마음챙김 자기연민 MSC(Mindful Self-Compaassion) 기법을 이용한 명상법으로 초심자도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강의한다.

마음챙김 자기연민은 하버드대 임상심리전문가 크리스토퍼 거머(Christopher K.Germer) 박사와 텍사스대 심리학과 교수 크리스틴 네프(Kristin Neff) 박사가 공동 개발한 명상법이다. 일상에서의 고통과 괴로움을 건강하게 다루는 연습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가꾸는 데 중점을 둔다.

명상교실에서는 이외에도 불교의 사무량심을 바탕으로 내적 삶을 들여다보고, 힘든 순간을 친절과 돌봄, 이해로 반응하는 핵심 원리와 실습을 배운다.

지도는 '울화통캠프'로 잘 알려진 국제선센터 국제차장 보관 스님(MSC지도자과정 이수)이 하며,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비는 20만원(선착순 20명). (02)2650-2213

윤호섭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4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10월 31일까지
◆ 강의일시 :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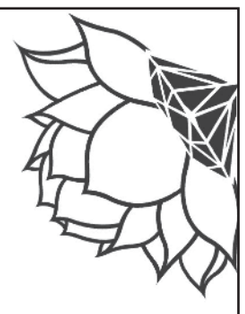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청견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다르마킹칼리지 (절수행교육)

◎ 완벽한 :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알아차림, 감사염송법 텅빈 고요 삼매체험
◎ 순간 찰라 번뇌 망상, 잡생각 싹 끊는 비전
◎ 순간 찰라 마음이 크고 넓고 높게 큰마음 되는 비전
◎ 저절로 자동단전복식호흡의 비전
◎ 우주 태양+지구 땅의 기운 초고속 충전 비전
◎ 순수의식 참마음 참나 불성 초견성 비전

※ 상기 교육 마스터한 수행자에겐
◎ 스트레스와 부정적 맘으로 자율신경 무너져 심장 쿵쿵 뛰고 숨은 거칠고 공격홀몬 쏟아져 온몸 지배하는 병불행지옥 순간을 극복하는 지혜의 비전(10초~20초)
◎ 신명나는 인류최고의 가장 쉽고 온전한 빠른 요지부동 와선명상삼매를 체험케 함

절교육일정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 ~ 3시30분 (1일 3명 예약)
(깨달은 절수행이란? 책 읽고 홈페이지 참고하고 동참 요망)
절교육대상 : 상위 1% 수험생, 고시생, 명문대생, 한의사, 연구원, 벤처 CEO, IT연구원 예술인, 특별 우선 교육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신지2리 1101-1)
문 의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깨달은공동체 법왕정사 한불수행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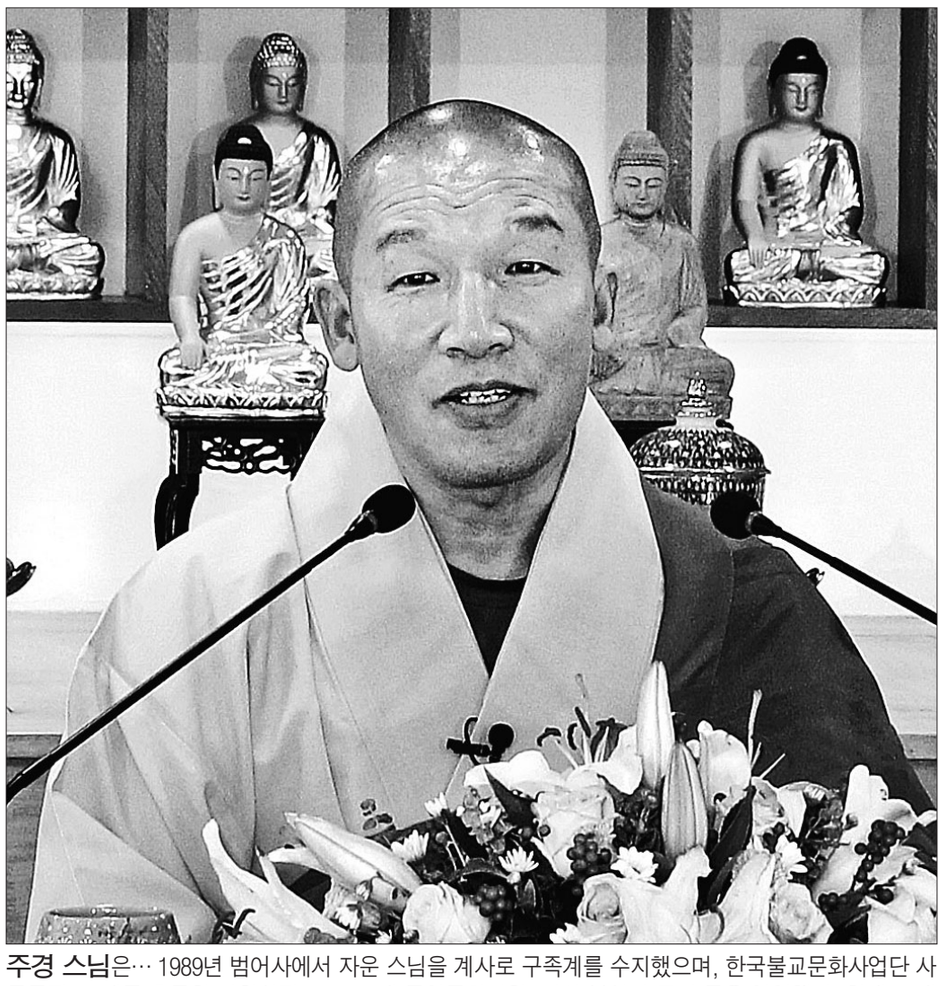
종교 과연 필요할까?… "바르게 사는게 중요"

참불선원 인문학강좌…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불교신문사 사장 주경 스님

불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에는 절대자 개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종교 간 갈등이 발생하고, 대규모의 전쟁을 벌이기도 한다. '죄악을 절대자가 용서한다'는 가르침으로 자살테러를 일삼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비종교인들은 '종교의 무용(無用)'을 꼬집는다. 과연 종교는 필요할까? 불교신문사장 주경 스님은 10월 17일 서울 참불선원 인문학강좌서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주제로 강의했다.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인 삼법인에 따르면 열반 전까진 일체가 고통이다. 그렇기에 불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종교가 없는 세상이다. 누구나 세상을 바르게 보고, 올바로 살아간다면 종교의 존재는 중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정리=이승희 기자



주경 스님은… 1989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14 · 15대 중앙종회의원, 서산 부석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16대 중앙종회의원과 불교신문사 사장을 맡고 있다.

종교는 '두려움'을 먹고 산다?

근래 우리사회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는 게 다 인문학입니다. 영어로는 'humanities'라고 하는데 인간애, 사람다움을 뜻하는 'humanity'의 복수형인 점이 재밌습니다.

종교학도 인문학의 한 영역입니다. 과거에 단순히 개별 종교를 연구했다면 현재는 비교종교학을 통해 모든 종교를 이성적, 물리적, 분석적으로 연구합니다. 오늘은 불교라는 종교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종교가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요 나쁜 세상일까요. 극단적으로 들리겠지만 저는 종교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전쟁, 테러 등은 종교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동 자살 특공대도 종교를 기반으로 합니다. 유럽의 전쟁들은 전부 종교 혹은 종교와 비슷하게 강력한 국가적 · 사회적 · 개인적 신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개별 종교에선 생산적, 화합적, 창조적인 활동이 많지만 종교끼리 부딪혔을 땐 파괴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종교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나 한편으론 종교가 없다면 사람들의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과연 어디서 얻을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종교, 특히 불교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부처님이 출가해 수행했던 근본적 이유도 결국은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양에선 현실적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 서양 종교에선 고통보단 '두려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의 뜻에 어긋나게 살았을 때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받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들이 폭탄을 짊어지게 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숱한 죄악을 저질러도 절대자에게 용서받으면 다 괜찮다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신과 주종 관계를 맺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3가지 외도'의 문제점

이에 대해 부처님께선 3가지 외도 비판을 하십니다. 외도란 잘못된 가르침을 일컫습니다.

첫 번째가 존우화작인설(尊祐化作因說)입니다. 절대자에 의해 세상이 창조 · 운영된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 인도에선 범천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드라가 이를 경영한다는 사실을 널리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주어진 범위 내의 창조일 뿐이라고 한정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 것은 아니듯 말입니다. 범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창조할 수 있는 세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천신조차도 사람으로 분류해 천인(天人)이라고 부릅니다. 사람과 동격의 인격체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인문학의 범위에 범천이나 인드라 같은 신들이 포함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숙작인설(宿作因說) 입니다. 날 때부터 부모와의 인연, 수명까지 인생의 모든 일이 결정돼 있단 게 숙명론인데, 그렇다면 그냥 사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지만 노력하기에 따라 질 좋은 콩이 많이 열릴 수도 있고, 말라비틀어진 쭉정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숙명론을 거부하는 말이며, 노력여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단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단 뜻입니다. 물론 일이 잘 안 풀리면 팔자를 탓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노력의 범주를 벗어난 일에 있어 팔자라며 받아들이곤 하지만 그곳 또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2,500년 전 인도의 카스트 계급 간 차별이 만연할 때 부처님은 "사람은 혈통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 고귀함과 천박함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천한 혈통으로 태어났어도 고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로 숙명론을 부정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인무연설(無因無緣說)입니다.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이 세상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란 가르침을 일컫습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이 세상에 나쁜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선 "악한 일을 행하더라도 전생에 쌓은 선업이 다하지 않는 한에서 좋은 공덕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한 공덕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게 와 행복한 삶을 살게 합니다. 부처님은 '어미 양-새끼 양' 비유를 드셨습니다. 수천마리 어미 양 사이에 새끼 양을 풀어놔도 아무나가 아닌 꼭 제 어미젖을 무는 새끼 양처럼 미물도 제자리를 찾는데, 하물며 인연법이란 어김이 없다는 겁니다.

> "절대자 능력에 매달리면 주종관계로 주체성 잃어 자신에 대한 확신 갖고 삶 속 고통 해결 나서야"

외도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도덕성과 책임감 결여에 있습니다. 존우화작인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위에서 절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도덕률을 파괴하고 상식적이고 건전한 의식을 유지할 수 없게 합니다. 또 숙작인설은 팔자만 탓하게 하고, 무인무연설은 악업을 부정해 세상에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선 인과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 과정, 결과가 있고 그 주인은 바로 자신이 된다는 생각을 설파하셨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론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의 나와 5년 전의 나는 다릅니다. 다른데 왜 같은 이름을 쓰고 같은 집에 살까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머릿속 생각이나 육신의 물질적 구조도 달라지지만 변함없이 나라고 인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만났다면 확신 가져라

우리 스스로에게 누구냐고 물어볼까요? 사실 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평생을 살면서도 누군지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대선사께서 내가 누군지 자각하기보다 내가 이 사회서 어떤 역할, 책임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하셨습니다. 신이나 팔자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오롯이 스스로 만들어나가고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불교의 인과설입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께선 오직 나만이 존귀하고 또 존귀하단 '천상천하유아독존'을 말하시며 내가 책임자고 주인공이란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선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며, 모두 주인공의 책임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웃종교는 많은 사람들이 나 대신 책임져줄 사람이 없을까 생각하며 번 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뉴스에서 사기꾼이 사기로 번 돈을 바쳤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기꾼은 예수님을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신도들에게 "부처님을 공범으로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믿고 의지할 존재를 그리워합니다. 기대고 싶기 때문이지요. 그게 바로 종교의 함정입니다. 해결해 줄 것처럼 굴지만 근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게 종교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법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靜). 이 세상은 끝없이 변하므로 나라고 단정 지을 근거가 없고 열반만이 궁극적 해결이란 뜻입니다. 열반 전까진 일체가 고통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불교가 궁극적으로 원한 건 종교가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살아간다면 종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두려움으로부터 회피하고 대안이 필요해 종교를 요구한다면 그 종교의 허물 속에서 맹신, 광신으로 치달아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판단 · 생활 자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남의 목숨도 허뭅니다. 불교에서 목숨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저는 16년간 주지 생활하면서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매번 똑같이 보고 듣고 이해한다면 고정관념, 선입, 편견 등 악견에 빠진 겁니다. 이것을 늘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수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자기세계에 갇혀 살면 부처님도 제도하기 힘듭니다.

지난주에 중학생 때부터 20년간 인연을 맺은 유발상좌가 결혼했습니다. 덕담을 해달라고 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기 좋은 〈육화경〉의 가르침을 말했습니다.

첫째, 신화공주(身和共住)는 몸으로 화합하라는 말인데 가족과 비유하면 가족이 모두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구화무쟁(口和無諍)은 입으로 화합하라는 뜻으로, 서로 다투지 말고 화목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셋째, 의화동사(意和同事)는 서로 협력해 함께 일하라는 말이며, 넷째, 계화동수(戒和同修)는 함께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란 말이니, 보살님들은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법문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견화동해(見和同解)는 서로 이해하며 의견을 나누라는 말이며, 여섯째, 이화동균(利和同均)은 동등한 이익으로 화합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육화경〉에는 화합하기 위해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치로 화합하는 이화, 삶 속에서 일로 화합하는 사화가 그것들입니다. 〈화엄경〉엔 이치와 현실생활이 구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사명연무분별(理事冥然無分別)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때론 막혀도, 돌아가도 결국 불교계에 몸담으면 깨달음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믿는 게 신심입니다. 불법을 만나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미 불법의 흐름에 들어왔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금강경〉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곧바로 4과중 수다원과(수행자가 비로소 성자의 흐름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흐름에 갓 합류한 경지)에 들어선 도둑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불교의 도도한 깨침의 흐름에 들어온 사람은 결코 물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육화경〉의 가르침이 인문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듯 불교 가르침은 매우 섬세해 우리 생활에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활안 · 호암스님의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강의

경덕전등록은 송나라의 도원(道源)이 1006년에 저술했으며, 총 30권에 이른다. 과거칠불(過去七佛)로부터 역대 선종의 조사들, 오가(五家) 52세(世)에 이르기까지 법등(法燈)을 전한 법계(法系)를 차례로 기록한 책이다.

■ 강 사 : 활안스님(금강선원 총재)
호암스님
(전 불교통신대학원장 / 내원사 주지)

■ 동참비 : 월 50,000원

■ 장 소 :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43가길 6(청량리동)

※ 통신반 모집 : 지방에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의를 녹음하여 CD로 제작하여 보내드립니다.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수행 정진중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에 힘모아야”

환수 전문가, 경주 권고문 채택

세계 각국의 문화재 환수 전문가들이 문화재 도난과 불법반출 방지를 위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외교부의 공동 주최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제6차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에 참가한 8개국 23명의 문화재 환수 전문가들은 마지막날 ‘경주 권고문’을 채택했다. 권고문에는 문화재 도난과 불법반출 방지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 공유 · 교류, 효과적 환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권고문에서 “한국의 시민사회와 종교기관이 문화재 반환을 위해 소장기관과 협력해 대화와 상호 교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문화재 환수의 모범적 선례”라며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문화재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국가 간 행정적 · 사법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운흥사 동종 환수 본격화

불교 단체들 추진 의사 밝혀



일본 네즈미술관에 있는 운흥사 동종.

한국 불교계 시민단체들이 일본 네즈미술관에 소장된 운흥사 동종을 찾기 위해 나선다.

불교계 시민단체 불교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영담),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 등은 “네즈미술관 소장 운흥사 동종의 반환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0월 20일 밝혔다.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네즈미술관을 방문, 운흥사 동종이 네즈미술관에 소장 사실을 확인한 뒤, 한일 우호측면에서 동종을 복제할 수 있도록 ‘복제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복제허가 신청에 대해 네즈미술관 측은 최근 이메일을 통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불교계 단체들은 네즈미술관의 비우호적 결정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 및 항의 서한을 발송하기로 하고, 나아가 앞으로 운흥사 종의 반환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조계사 대웅전 건립, 근대 선지식 원력 담겨”

동국대 불교학술원, 이종욱 스님 新편지 8점 공개

“조선불교의 생명이 이번 사업(각황사 건립)의 여하에 달려있고, 전국 조선팔도의 사찰에 위풍을 진작하고 독촉하는 것은 통도사와 범어사 두 본산의 완납에 달려있는데, 한 본산은 완납을 하였으니 이제는 화상께서 큰 결단을 내리시길 바란다.”

〈1937년 5월 5일 지암 이종욱 스님의 편지〉 中

조계사의 전신인 각황사를 건립하기 위한 생생한 과정과 근대 선지식의 원력이 담긴 편지글이 새롭게 발굴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은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발견된 지암 이종욱 스님의 친필 편지 8점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지암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보낸 편지는 〈삼소굴 일기〉에 소개된 3편을 포함해 11편으로 늘었다.

이번 편지 공개가 이뤄지기까지는 경봉 스님의 상좌인 통도사 극락암 암주 명정 스님의 역할이 컸다. 현재 극락암에는 세 가마니 분량의 경봉 스님 친필 일기를 비롯해 한암, 만공 스님 등 고승들이 남긴 편지글 수백여 점이 남아있다. 명정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고, 현재는 전수조사는 30%가량 진행된 상황이다.

편지의 내용은 월정사 주지이면서 총본산 건설위원회 대표였던 지암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총본산 건설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분담금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간은

경봉선사 유물 조사과정서 발견

이종욱 · 경봉 사이 오고간 편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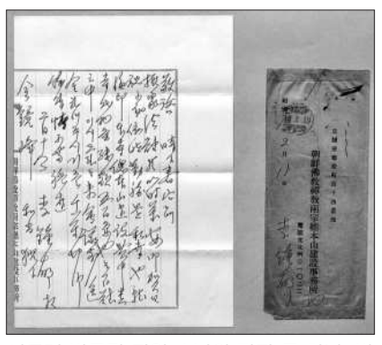
각황사 건립 불사 중요성을 역설

1936년 6월 17일자부터 1938년 9월 22일자까지 약 2년이다.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총본산 건립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7년 2월 28일 총본산 건설 사업이 결정됐을 때 재원은 10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 투입된 액수는 19만원에 달했다. 당시 1만원이 현재 5억원으로 환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황사 건립 불사의 소요비용은 100억 원대의 대작불사였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개최한 지암 이종욱 스님의 편지 공개회에 참석한 (사진 왼쪽부터)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 정승석 불교학술원장, 경봉스님문도회장 법산 스님, 김광식 교수 등이 지암 스님의 편지를 보고 있다.



새롭게 발굴관 지암 스님의 편지 중 하나. 발굴된 편지에는 총본산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1938년 5월 13일 지암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월정사 산림의 나무가 매각되면 월정사 분의 납입금을 완납하는 데 사용하려 했는데 매각되지 않아 그것을 못하게 됐다”면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에 새롭 발견된 편지에 대해 동국대 불교학술원 측은 조계사 창건에 대한 역사적 재인식과 경봉 · 지암 스님 등 근대 선지식의 면모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편지를 분석한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서간문에는 경봉 스님이 총본산 건립 과정에서 통도사 주지로서 큰 기여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는 선승들이 현실과 종단에 무관심했다는 정서를 불식시킨다. 깨달음을 성취한 뒤에도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했다는 것을 경봉 스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황사 재건축, 조계종 창종 등 총본산 건설운동을 편지를 통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 현 조계사 대웅전은 선대 스님들의 노력과 헌신의 역사적 산물이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일제의 식민지 불교정책의 산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지암 스님에 대한 재인식도 주문했다. 김 교수는 “3.1운동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등 독립운동을 했던 지암 스님은 일부 행보로 인해 친일파로 낙인찍힌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공개되는 편지에서 그의 고뇌, 지성, 헌신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다수 보인다. 이 자료를 통해 이종욱의 불교관, 사판관, 종단관 등을 보완, 재인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고려 불화 ‘수월관음도’ 700년만의 귀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17일 국립중앙博에 기증

일본에 반출됐던 고려불화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가 한 기업가의 헌신으로 700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기업가는 사재를 털어 구입한 수월관음도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10월 17일 윤동한 ㈜한국콜마홀딩스 회장에게서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1점을 기증받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윤 회장은 올해 초 재일교포 고미술업자에게서 고려불화를 구입하고 문화재청 등의 자문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게 됐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보타락가산에 주석하고 있는 관음보살의 거처와 형상을 도상화 한 수월관음도는 화려하고 섬세한 표현으로 고려불화의 백미로 꼽힌다. 현재 수월관음도는 전 세계에 약 46점이 남아 있으며, 이중 5점이 리움박물관(2점),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우학문화재단, 호림미술관에서 소장 중이다. 하지만 국립박물관에는 단 한 점도 없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사진 왼쪽)과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고려불화 수월관음도를 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윤 회장의 구입 · 기증에 따라 국내 수월관음도는 총 6점이 됐으며, 국립박물관은 수월관음도를 소장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기증된 수월관음도의 제작 시기는 14세기 중엽으로 화면 크기는 세로 91cm, 가로 43cm로 큰 크기는 아니다. 시기가 오랜된 만큼 박락과 훼손이 진행됐지만, 관음보살과 선재동자 등 화면의 중요한 부분은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어 그 가치가 높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프랑스 기메박물관에서 해설 담당자가 고려불화를 설명하면서 ‘한국에는 없는 희귀한 그림’이라고 설명할 때 자존심이 상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고려불화라는 귀중한 문화재를 되돌리고 싶었다”면서 “또한 문화재는 함께 향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증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문화재들을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응송은 초의 茶麥을 이었다”

정서경 소장, 초의 열반 150주년 세미나서

초의 스님의 다맥에 대한 계승 논쟁 중 하나는 응송 박영희 스님에 대한 부분이다. 10월 15일 열린 초의 선사 열반 150주년 학술대회에서도 초의 스님 다맥 전승에 대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날 정소경 목포대 한국전통차문화연구소장〈사진〉은 ‘초의차의 전승맥락과 제언’에 대한 논문 발표에서 응송 스님은 초의 선사의 다맥을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초의차의 전승이 범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에 동의하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계승 문제를 되짚었다.

현재 응송 스님이 초의 선사 다맥을 전승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논지는 초의와 응송의 계보가 다른 점과 범해는 호의의 직계여서 응송에게 전승이 안 될 수 없다 등이다.

이에 대해 정 소장은 “대둔사가 서산문도 중 소요 문중과 편양 문중이 함께 살면서 13대 종사와 13대 강사를 계속 배출했다”며 “소요 문중은 심적암에서, 편양 문중은 대광명전에서 따로 문중 선사를 모셨다면 1962년 대광명전을 지키고 있던 소요 문중인 지산 화중의 기록은 어떻게 해석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산 화중의 제다법과 당시 대둔사에서 차를 만들었거나 생활했던 시대의 구술자들이 말하는 제다법, 응송의 제다법이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응송 스님은 아암 혜장의 법계이고 소요에 속한 문도이지만, 사찰의 계맥과 다맥을 종합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 소장은 “〈불조종파계보〉로 다풍이나 다맥을 아우를 수 없다”며 “다풍은 사찰의 유풍으로 전해진다. 이런 다풍이 대둔사에 남아 있고, 이것이 초의차의 근간”이라고 역설했다.

신성민 기자

완전한 지혜의 세계,

화제의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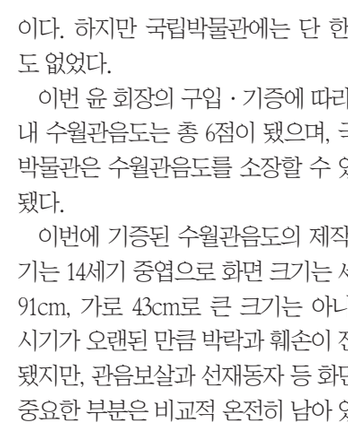
密 밀이 세상에 나왔다 !!

최상 깨달음 지혜 과정이
이보다 더 상세할 수는 없다.

5, 6, 7, 8, 9식(識) 전변 깨달음세계와
완전한 깨달음 6종각(六種覺)인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十覺) 성불
과정의 경계와 지혜의 길을 상세히 완전히 밝혔다.

밀법 태장계와 금강계, 옴마니반메훔, 광명진언 등의
실상세계를 자세히 밝혔다.



전국 서점 판매중!

박명숙(德慧林)저
밀1권 500쪽 / 밀2권 584쪽 / 정가 각: 35,000원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
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慧眼決書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 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자비와 법의 향기로 開山, 널리 알린다

〈개산〉

부산·경남 지역 사찰 다양한 행사로 개산대재 봉행

禪의 법석과 나눔의 자리로 불사 회향하며 정진 다짐 태풍 피해 복구 위한 지원 다채로운 전시·음악회 눈길



부산 경남 일대 사찰들이 개산대재를 봉행하고 개산조의 뜻을 널리 알렸다. 사진은 범어사가 의상대사 다례재를 봉행하는 모습.

청냉한 바람이 부는 가을, 부산 경남의 사찰들이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사찰들은 시민의 발걸음을 붙드는 문화제와 음악회, 그리고 법석을 마련했다.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더욱 풍성한 가을을 맞았다며 감사했다.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금강경오가해설의〉 서문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10월 13~15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열린 서문강의에서 방장 지유 스님은 직접 법을 설했다. 이어 15일 회향식에서 개산조인 의상대사 다례재를 봉행하고 부산불교 불자1000여명에게 개산의 참 의미를 전했다.

지유 스님은 "금정은 금빛 연못에 하늘의 물고기인 범어가 내려와 놀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며 "범어는 물들지 않는 마음의 법을 설명한 것이기에 제대로 알고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범어사는 개산대재 기간 동안 백미 20kg 100포를 인근 복지관에 전달했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개산 13주년을 맞아 대광명전 삼존부처님 복장봉안법회를 10월 16일에 봉행했다. 사부대중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지 심산 스님은 "불사를 마무리 한다는 말은 곧 출발을 한다는 뜻이다"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시고 진심으로 함께 해주신 대중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홍법사는 이날 연합합창단의 공연과 오케스트라의 색소폰 연주 등 작은음악회를 열고 개산 의미를 축하했다. 또 10월 16일부터 제5회 가을국화축제를 열고 사찰 요리 축제 등을 준비해 찾는 이들을 반겼다. 사찰요리 축제는 10월 16일, 26일, 28일에 각각 진행됐다.

울산 백양사(주지 명본)는 지난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한 자리로 개산대재를 봉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 백양사는 10월 15일 경내에서 '개산 1084, 울산 천년을 품다'를 주제로 첫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개산대재는 개산조 백양선사의 부도탑 헌다, 괘불 영산재, 다도 시연, 전시 및 공연 등으로 진행됐으며 경내에 모금함을 설치해 수재민 돕기에 앞장섰다. 백양사는 울산 중구에 수해복구지원금 1000만원과 라면과 빵 등 천인분의 음식을 지원했다. 아울러 개산대재에서 모은 성금도 추가로 전달 할 예정이다.

창원 구룡사(주지 신공)는 음악과 문화를 위한 자리를 펼치고 지역민을 초대하고 창건을 기념했다. 구룡사는 10월 15일 경내에서 '창건 89주년 기념법회 및 가을 달빛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구룡사는 법회에서 구룡은암장학금 2000만원을 수여했으며 음악회와 함께 어린이청소년 백일장 시상식, 바라밀 꽃꽂이회 작품전시회 등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 이사 법산 스님, 구룡사주지 신공 스님, 박완수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 팔관회 천년의 역사를 잇다

다채로운 행사로 전통문화 시민들에게 알려

부산 불교가 팔관회는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한국의 고유문화임을 강조하고 호국의 의미를 널리 알렸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0월 15일~16일 범어사에서 '팔관회'를 개최했다. 팔관회는 신라시대 때부터 꽃피운 불교문화 축제로 부처님이 설하신 계를 강조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던 행사였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신라와 고려시대 호국불교의식을 재현하고 팔관회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10월 15~16일 범어사에서 팔관회를 개최하고 전통불교문화 수호에 앞장섰다.

팔관회는 호국기원법회와 백희가무, 호국영령위령재, 팔관재계법회 등으로 진행됐으며 사진전과 닥종이 전시 등으로 행사에 풍성함을 더했다.

호국기원법회에서는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을 비롯해 원로 스님들과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 박대성 부산불교연합회 신도회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2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은 "오랜 시간 역사 속에서 잠들어 있던 팔관회는 그간 부산불교연합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역사적 고증과 연구를 통해 오늘날 원형을 복원하기에 이르렀다"며 "오늘날 우리가 팔관회를 열어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것은 천년 세월에도 변치 않는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상임부회장 무원 스님은 "부산 불교계가 우리 민족의 전통인 팔관회의 문화적 가치를 복원하고 그 정신을 되살려 나라와 국민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큰 문화불사를 앞장서서 만들어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11월 23일 오후 3시 범어사 보제루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하성미 기자

기림사 금강학림, 재가불자에게 문 활짝

'古文'으로 풀어 엮는 불교, 매월 4째 주 금요일

경주 함월산 기림사(주지 덕민)에서 운영하는 '금강학림'(한문불전 전문도량)이 재가불자들을 위해 활짝 문을 열었다. 이는 승가 중심의 한문불전 전문도량 기림사 금강학림을 재가자들도 함께 접하도록 돕고 깊이 있는 한문불전 연구에 함께 동참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경주 기림사가 운영하는 한문불전 전문도량 금강학림을 재가자에게 개방하고 '고전학당'을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기림사는 앞으로 '고문학당(古文學堂)' 템플스테이를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기간은 매월 4째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며 일요일 오후 2시에 회향한다. 참가비는 10만원이며 템플스테이 일정 가운데 고문 특강만 참여할 경우 4만원으로 참가 가능하다.

고문학당 일정은 10월 28일 소동파의 적벽부, 11월 25일 두보의 율시, 12월 23일 왕유의 선시를 주제로 열리며 2017년 이후 일정은 차후 발표할 예정이다. 강사는 이 시대 대강백인 덕민 스님(기림사 주지)과 운암 스님(기림사 부주지)이 직접 나선다.

부주지 운암 스님은 "고문은 깨달음의 관점으로 자연을 담아 시로 노래하고 있다"며 "재가 불자들이 대상인지라 아름다운 내용으로 또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제를 이렇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지이신 덕민 스님은 불국사 학장으로 대강백이시다. 귀한 만남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템플스테이 외 금강학림 학사일정은 다가오는 11월 14일 동안거 입재에 맞춰 개강한다. 운암 스님은 "한문불전 전문도량 금강학림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깊이 있는 불전연구도량이 될 것이다"며 "템플스테이와 마찬가지로 승가뿐 아니라 재가자도 참여 가능하다"고 많은 관심을 독려했다.

하성미 기자

응공바라밀재 및 시니어 문화 축제

대구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학장 도경)은 10월 16일 대구 달서구 와룡공원 광장에서 와룡산 성서 개구리소년 실종을 위한 위령제와 노인의 달을 맞이 지역어르신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경 스님을 비롯해 해운정사 청명 스님, 곽대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어르신 2500여명이 참석했다.



응공바라밀재 시연 장면.

격려사와 축사에 이어 3부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성서 개구리소년들을 위한 육법공양과 희신곡 바라춤 등이 이어졌다. 또 달서 어울림 마당으로 가요제 본선과 초청공연 다문화여성의 출산자금 보시금 300만원 전달 등도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은해사 개산대재 및 중악 은빛작은음악회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10월 15일 경내 대웅전에서 창건 1208주년 개산대재와 중악 은빛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개산 법요식에는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관장 돈명 스님 대구카톨릭대 정홍주 신부, 경산성당 이창영 주임신부 등 2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은해사 1208주년 개산대재 장면.

돈관 스님은 "오늘의 뜻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면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인사했다.

회주 법타 스님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통해 번뇌 망상에 사로잡힌 중생제도에 나서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갈등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하자"고 법문했다.

식후 중악 은빛 작은 음악회는 선화여고 관악부와 댄스부, 판소리, 무용으로 다채로움을 더했고, 저녁예불과 만등 점등식으로 팔공산을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해인사 원당암 중양절 합동천도법회

해인사 원당암은 10월 9일 중양절을 맞아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경내 원당에서 합동천도법회를 개최했다.

원당암은 40여 년전 前 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이 주석할 때부터 무명영가의 천도를 축원하는 법회를 열어왔다.

이날 원각 스님은 "자신의 참나인 본심을 밝혀 참 자유인의 삶에서 불국정토를 이루어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당암 중양절 합동천도법회 모습.

손문철 대구지사장

시민불교문화상 수상 후보 모집

창원불교연합, 향토문화예술인 위해 제정

창원불교연합회(회장 도홍)가 제26회 시민불교문화상 수상후보자를 모집한다. 시상 부문은 문학상, 예술상, 언론상, 행원상(지역봉사 및 개발 활동가)이며 후보자격은 경남 내 거주하고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전문활동을 펼친 문화 예술인, 언론인, 사회봉사자 등이다. 시상금은 각 부문 창작지원금으로 5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후보 추천 마감은 11월 10일로 발표는 시상 10일 전 언론을 통해 발표된다. 시상은 12월 19일 마산시보이호텔 5층 대연회장에서 진행된다. (055)222-1393

하성미 기자



“염불선은 해탈의 징검다리”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해남 광보사 주지 자황 스님

10월 초순, 남도의 땅 끝 해남 광보사에 20여 명의 수행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꽤 다양하다.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가 이른바 사부대중을 뜻하듯 출 · 재가를 막론한 수행자들이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 바로 염불선(念佛禪)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함이었다.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 특별수행 ‘제1회 전국염불수행자 정진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도법사 광보사 주지 자황 스님의 안내에 따라 정진했다.

자황 스님〈사진〉은 30여 년간 염불선 수행을 이어온 수행자다. 염불선은 구한말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를 보내며 수행정진한 금타 스님(1897~1948)의 보리방편문을 시작으로 청화 스님(1924~2003)이 평생을 해온 선 수행법이다.

“불교 수행의 원리와 방식을 대중이 잘 숙지해 수행의 효과가 드러났으면 합니다.”

자황 스님은 이런 의미를 담아 정진대회와 주말수련을 통해 집중적인 강의와 실참수행을 실시해오고 있다.

“수행에도 순차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단계적인 수행이 따르지 않으면 완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수행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자황 스님의 새로운 염불선 수행방법은 이렇다. 아미타불 명호를 한 자씩 끊어 소리하기 - 소리 듣기 - 소리보기로 단계를 구분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소리하기’를 통해 저절로 소리가 들리는 단계(자성염불)를 지나, 소리가 나오는 ‘소리 이전의 자리’를 찾게 된다. 이런 소리보기를 통해 의식의 확대가 이뤄지고, 마음속 의식 공간 전체를 주도면밀하고 세밀하게 통찰하게 되어 마침내 개체의식의 벽이 없어지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황 스님은 “이 염불 참선법은 인간의 인지구조상 마음집중에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근원통법(耳根圓通法)에 바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김용길 원광대 교수가 이를 학술적으로 조명해 연구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자황 스님은 일반적 불교 수행자들의 단계인 몸을 다스리고 호흡을 조식하여 참선수행으로 마음을 깨닫는 과정에 앞서, 자신의 주변환경을 정리하는 수행을 첨가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이 주석하는 사찰의 정갈함 역시 이것에서 비롯됐다.

“공부하는 것보다 수행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는 자황 스님. 스님은 지난 20여 년간 수행터를 만드는 데 진력해 이제는 본격적인 수행도반을 찾고 있다.

“제 목표요? 함께 먹고, 생활하며, 먹고 사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행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광보사 수행에 참여한 수행자들은 모두 같은 일정대로 활동한다. 새벽 5시 기상과 함께 아침 공부, 공양, 개인공부, 오후공부, 울력, 참선 등이다.

“돋보기를 ‘열심히’ ‘간절히’ 오래 들고 있다 해도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태양의 열을 모아 종이를 태워 뚫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한 ‘의지적인 공부방식’과 간절히 그리고 사무치는 식의 ‘감성적인 공부방식’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어떻게, 왜?’라는 ‘지성적인 공부방식’이 아니고서는 끝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해탈의 징검다리’ 염불선 공부법에는 의지, 감성, 지성적인 세 가지 공부방식이 모두 들어 있어 깨달음에 이르는 데 단계적이고 체계적이며 신속하고 강력합니다.”

자황 스님 염불선이 이전 수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행방법으로 자리 잡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노력이다. 한국불교는 이제 수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일반시민 다문화수용성 증진사업 전개

(사)착한벗들, 각종 NGO단체들과 연계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착한벗들(대표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시작해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다문화수용성 증진사업은 전북 최초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문화에 대한 지역민들과 청소년들의 바른 인식 및 이해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결혼이주여성 강사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요리를 활용해 진행하는 다문화요리체험 ‘음식으로 나누는 세계문화’와 일반시민 · 결혼이주여성이 함께하는 ‘문화나눔 독서동아리’ 활동이 있다.

다문화요리체험은 일반시민과 NGO활동가 등 총 300명이 참여해 10월 17일부터 11월말까지 25회에 걸쳐 중국, 베트남, 미얀마, 일본 등의 대표적인 음식인 오꼬노미야끼, 춘권, 볶음칼국수, 블리느, 반똥돔, 양장피 잡채 등 아시아 각국의 요리를 직접 조리해 보는 체험활동이 진행 중이다.

또 격주로 진행되는 독서동아리는 30여명의 시민이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전쟁의 슬픔, 아큐정전, 붉은 수수밭 등 동아시아 문학작품을 감상하며 각국 문화를 이해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독서동아리에 참가하고 있는 김미례씨(전주시 삼천동)는 “어릴 적 부모님 심부름하며 가게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서 중국 가정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후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른 나라 국민이 아닌 우리의 이웃처럼 가깝게 느껴졌다”며 “앞으로 서로의 문화에 대해 좀 더 알아가며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각국 다문화요리체험과 문화공부 독서동아리 등 11월 말까지 사업 운영

(사)착한벗들 관계자는 “다문화사회를 맞은 우리 사회 현실에서 다문화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그간 일반시민들과 결혼이주여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부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봉사활동이나 지역축제 참여를 통한 체험, 공연 프로그램이 전부였다”며 “본 사업이 요리와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착한벗들이 실시하는 다문화수용성 증진사업 일환인 다문화요리체험 ‘음식으로 나누는 세계문화’ 참가자들이 각국 전통요리를 만들며 다문화 이해를 높이는 모습.

이번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사업은 전주시의 후원으로 전북독서연합회, 국제요리학원, 자연음식문화원, 전북 다누리 콜센터, 전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전북NGO센터 소속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여가부에서 발표한 ‘2015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에 의하면 ‘호남, 제주’ 권역의 경우 4개 권역중 ‘경상, 영남권’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53.88) 다문화수용성을 보였으며 타 권역에 비해 ‘다문화에 대한 거부. 회피 정서’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에 대한 이 지역 일반시민들과 청소년들의 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사)착한벗들은 전북도민들의 다문화수용성 실태를 보다 자세하게 알고 정책과제 도출 및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1,500명에게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1월 26일 전주교육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깨달음 예술, ‘광주영산재’ 정기시연

광주불교영산보존회, 10월 16일 금호동 법륜사서

광주 유일의 불교 무형문화재인 영산재 시연회가 열렸다.

(사)광주전통불교영산회보존회(회장 월인)는 10월 16일 금호동 법륜사서 ‘제12차 전통불교영산재 보존 시연회’를 봉행했다.〈사진〉



2014년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광주영산재는 매년 가을 정기시연회를 통해 불자와 시민들에게 영산재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행사는 지암 스님(태고종 원로의원)을 증명법사로 혜령 스님(범음 이수자), 월인 스님(작법 이수자), 호산 스님(바라 이수자)을 등 전수생과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신도 등 200여 대중이 동참했다.

가을비가 내려 실내서 진행된 시연회는 목탁을 치는 스님을 선두로 소라, 북, 좌발, 호적으로 구성된 취타대에 맞춰 연(輦)에 모신 영가를 도량으로 인도하는 시련과 부처님의 위신력과 감로의 법으로 깨끗이 씻는 대령관욕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법회의식인 상단권공이 시작되어 가장 화려한 작법무인 나비춤, 바라춤 진행되자 참석한 대중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신중단 기도를 위한 중단퇴공과 불법을 옹호하는 신중을 청해 모시는 관음시식은 법회의 백미였다.

행사를 준비한 월인 스님은 “광주영산재는 매월 연습과 매년 연수교육을 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향후 전수관 건립으로 불교계의 문화유산을 길이 남길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영산재는 흔히 ‘깨달음의 예술’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거룩한 법회회상을 종합예술로 승화시킨 것”이라며 “모든 생명의 존엄함과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앞으로 더욱 보존하고 지켜야할 불교의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목조문화재 화재진압 대책 연구

고창소방서, 합동소방훈련 계획

전북 고창소방서가 선운사, 참당암, 도솔암 등 다수의 보물급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화재에 대비하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고창소방서는 선운사가 보유하고 있는 목조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사찰별 문화재 안전대책과 향후 단계별 세부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고, 화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창소방서는 선운사 대웅전, 참당암, 도솔암 등서 2016년 하반기 목조문화재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운사는 산내암자인 참당암, 도솔암, 석상암에 보물 290호 선운사 대웅전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 6점과 천연기념물 3점, 지방문화재 11점, 문화재 자료 3점 등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017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12절 258㎜×265㎜
100부 이상 @ 1,000원
3천부 이상 @ 800원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H.P 010-3554-2988, 070-7425-051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행 : 121068-56-042256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난관 정면 돌파를”… 수행엔 지름길 없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㊾ 우마왕의 집착에 대한 해석



그림 · 최주현

오! 시작하자마자 나칠계님 손을 번쩍 드시네요. 오늘 미인 이야기를 하기로 한 거, 잊지 않았느냐구요? 당연히 잊지는 않았죠. 조금 그런 약속 드린 걸 후회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유기는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서유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지어진 어떤 문학작품도 남성중심을 벗어나기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위상은 자연 남성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고, 행불행이 모두 남성에 의해 좌우되었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여성상은 자연 남성 중심의 사고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서유기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거기에 서유기는 불교 수행을 중심축으로 해서 엮어지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불교는 출가자인 스님을 중심축에 놓고 있었고, 스님의 중심은 확실하게 남자 출가자인 비구 중심이었고…. 그런 스님들의 세계에서 여성성이 정당하게 평가되기 힘들었다는 것은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여성성이 아니라 성 문제에 대한 온당한 견해 자체가 제출되기 힘들었지요. 그런 덕분(?)에 서유기에서도 남녀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는 나오기 힘든 것이 사실이고, 여성하면 바로 인격 그 자체로 대접받기 보다는 성적인 대상, 아니면 성적인 유혹을 하는 장애물 정도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만천하의 여성 여러분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옵기 앙망하옵나이다. 결코 삼쾌선생이 여성을 낮춰보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던가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도요.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앞에 내세우고, 남성 중심사회에서 고난의 삶을 이어왔던 여성 가운데 미인으로 이름을 떨쳤던 예들을 좀 들어보고, 그들의 어려웠던 삶까지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지요. 여성의 운명적인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곁들여가면서요.

일반적으로 중국의 사대미인이라 하면 서시(西施), 왕소군(王昭君), 초선(貂蟬), 양귀비(楊貴妃)를 꼽습니다. 그 가운데 초선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삼국지연의라는 소설에 나오는, 즉 삼국지의 저자 나관중에 만들어진 여성이지요.

그런데 그 각각이 침어낙안(沈魚落雁), 폐월수화(閉月羞花)라는 미인을 형용하는 말에 대응하기 때문에 가공의 인물인 초선이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의 침어, 즉 물고기가 그 미모에 홀려 물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것은 서시에 해당하구요, 기러기가 날갯짓을 잃고 떨어진다는 것은 왕소군을 말합니다. 왕소군이 오랑캐 땅에서 비파에 맞춰 고향 그리는 노래를 하니 기러기가 그 노래에 취해 떨어졌다 하지요. 달이 구름 속에 숨는다는 것은 초선에 해당합니다. 왕윤이라는 사람이 그의 양녀인 초선의 미모에 달이 구름 속으로 숨는다고 찬탄했다는 이야기가 삼국지에 있지요. 마지막 꽃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당 현종이 양귀비의 미모를 찬탄해서 한 말입니다. 그 밖에 조비연(趙飛燕)이라는 한 시대의 여성을 꼽기도 하는데, 이 비연은 얼마나 날씬했던지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출 수 있었다 하네요. 그 반면 양귀비는 아주 풍만한 미인이었죠. 이 둘을 대조하여 연수환비(燕瘦環肥), 즉 “비연은 말랐고 양귀비는 살이 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양귀비의 이름이 옥환(玉環)이어서 ‘환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둘과 또 대조하면 서시는 가슴앓이 같은 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문지르는 자태를 그린 그림도 있고, 또 서시가 얼굴 찌푸리는 것을 아름답게 여긴 못난이가 그 찌푸리는 흉내를 내다 아주 망신을 했다는 ‘효빈’이라는 이야기도 있지요.(〈장자〉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모두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서시는 월왕 구천에 의해 정략적으로 오왕 부차에게 바쳐진 여자입니다. 정략적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설이 유력하지요. 왕소군은 한 나라 궁전의 궁녀였는데, 화공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아 그 모습이 밉게 그려졌지요. 오랑캐에게 궁녀 가운데 뽑은 여자를 정기적으로 보냈는데, 그림만 보고 선택을 하는 바람에 천하의 절색인 왕소군이 뽑혀 가게 되었답니다.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오랑캐 땅에서 죽었지요. 시인 이태백이 왕소군이 오랑캐 땅으로 떠나는 모습을 그린 시가 있습니다.

昭君拂玉鞍 소군 옥 안장에 올라앉았네.
上馬涕紅顔 말 위서 고운 얼굴 눈물에 젖는구나.
今日漢宮人 오늘은 한나라 궁전 사람이지만
明朝胡地妾 내일 아침이면 오랑캐 땅의 첩(妾)

중국인들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주고, 그 기구한 삶으로 인하여 더더욱 애틋한 동정심을 자아내는 것이 바로 왕소군이겠습니다.

꼬이 있는 ‘완공’ 집착 지적
잘못된 진리의 무서움 묘사
한마음 돌리면 모두 다 선지식

초선 역시 정략적으로 동탁과 여포라는 인물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요. 양귀비는 애초에는 당 현종의 며느리였다가 현종의 비가 되었고, 그 뒤 안녹산의 난으로 인하여 비명에 죽게 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요. 한 때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지만 결코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면이 있고,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 등을 소재로 한 여러 작품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백락천의 장한가(長恨歌)일 것 같군요. 그 마지막 구절이 생각납니다.

在天願作比翼鳥 하늘에 있다면 비익조 되어 함께 날고
在地願爲連理枝 땅에서라면 연리지가 되어 함께 이어지리.
天長地久有時盡 하늘땅이 비록 오래 간다 하여도 다할 날이 있지만
此恨綿綿無絶期 우리의 사랑하는 그리움은 끊어지는 날 없으리라

시인의 눈으로 다시 해석되고 미화된, 참으로 사랑의 그리움을 절절하게 표현한 절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무튼 이들 미인들은 남성들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되었고, 그 미모 때문에 기구한 삶을 살아간 것이지요. 그것이 그들의 죄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성을 자신의 종속물로 여기고, 그들의 미모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성적인 쾌락을 위한 도구로 본 남성들 때문에 그리 된 것이겠지요. 그런 점에선 남성들 중심의 역사에 대한 엄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에까지 그러한 성적인 불평등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성들의 죄야 아니지만, 과거의 업에 대하여 남성들이 깊은 반성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군요. 그런 점에서 남성 일동 묵념! 이크, 삼쾌선생은 묵념타령을 하는 병이 있군요. 반성하는 의미에서 묵념! 애고 또!

정말 애고입니다. 조금 쉬어간다는 것이 많이 길어졌지요? 아직 못 다한 이야기도 많은데. 앞에서 말한 무산 운우(巫山雲雨)라든가, 설도(薛濤) 이야기도 못했어요. 그래도 설도에 관해서는 조금 이야기하기로 하죠. 설도는 당 시대의 유명한 여류시인인데, 신분은 기녀였어요. 당대의 여러 유명한 시인 묵객들과 교유를 했지요. 직접 아름답게 꽃물들인 종이를 만들어 거기에 연애편지도 쓰고 했다는, 정말 멋있는 여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동심초라는 가곡 있지요? 그 노랫말이 바로 설도의 시라는 것 아세요? 안서 김억이 설도의 춘망사(春望詞)라는 시를 맛깔나게 번역한 것이 바로 그 노랫말입니다. 기왕 쉬어가는 김에 조금 퍼져 버릴까요? 설도의 춘망사가 나갑니다.

風花日長老 바람에 날리는 꽃은 긴 날에 시들어가고
佳期猶渺渺 만날 기약은 아득하기만 하구나
不結同心人 마음을 함께하는 이와는 맺지 못하고
空結同心草 헛되이 풀로 동심결만 맺는구나.

김억 시인의 절묘한 번역과 삼쾌선생의 직역의 비교는 여러분이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제 정말 서유기의 본 이야기로 갑니다요.

앞에서 화염산의 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끌 수 있는 열쇠를 우마왕 부부가 쥐고 있네요. 사도(邪道)의 요괴놀음 시절에 맺은 인연, 그것이 결국 정도로 돌아선 뒤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군요. 그리고 여기서 우마왕은 완공(頑空)에 매달리고 있는 집착을 상징합니다. 완공이 뭐냐구요? 갑자기 어려운 얘기로 돌아서게 되는 군요. 완공은 공(空)에 대한 참다운 이해인 진공(眞空)의 반대말이지요. 공이란 정말 아무 것도 없는 텅빔이 아니라, 바로 연기적인 세계의 참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을 그대로 아무 것도 없는 것이라는 식으로 굳게 믿어서, 연기적 세계의 참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집착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될까요? 잘못된 진리에 대한 집착이라는 정말 무서운 병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자칫하면 이러한 ‘완공’병 같은 병에 걸리기 쉬운 측면이 있지요. 얼마나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버젓이 있는 눈, 귀, 코, 혀 등을 없다 하잖아요? 반야심경의 무안이비설신의(無眼耳鼻舌身意) 말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와! 참으로 불교는 심오하구나. 눈 귀 코 혀 몸과 뜻이 없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억지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려 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완공’ 병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병은 참으로 치료가 힘든 측면이 있어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한 지성을 가진 확신범(?)인 경우가 많아요. 나름대로 사상적인 무장이 잘 되어있어 설득이 잘 안돼요. 아무튼 이런 완고한 집착, 그 황소고집 같은 집착을 바로 우마왕으로 상징화한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서유기의 표현을 직접 볼까요?

우마왕은 본디 마음 원숭이(心猿)가 변한 것
시원한 곳으로 나아가 화염을 쉬게 하고
공(空)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깨뜨리고 부처님 모습을 뵈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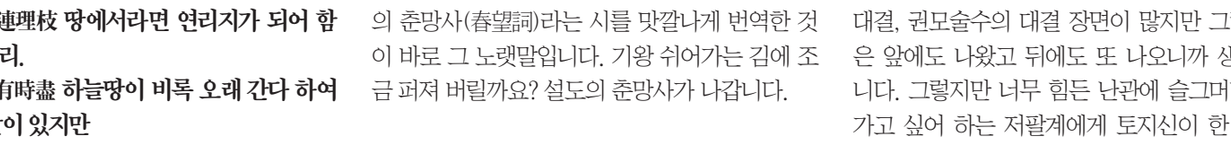
그렇습니다. 참된 부처님 뵈려면 너무 성급하게 용쓰다 걸리는 불의 병도 물리치고, 공과 같은 진리에 대한 잘못된 집착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참으로 다른 병보다도 더 위험하지요. 사이비가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속기도 쉽고 또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기도 어렵거든요.

우마왕과 싸우는 대목도 참으로 재미있는 도술대결, 권모술수의 대결 장면이 많지만 그런 것들은 앞에도 나왔고 뒤에도 또 나오니까 생략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힘든 난관에 슬그머니 피해가고 싶어 하는 저팔계에게 토지신이 한 이야기는 꼭 다시 음미해야 하겠네요. “꾀부릴 생각 마십시오. 딴 길로 돌아가면 바로 그게 이단의 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부는 올바른 길에서 여러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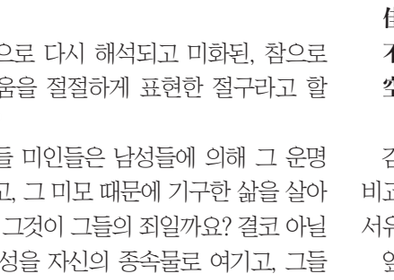
그렇습니다. 어떤 난관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특히 수행에 있어서 지름길, 샛길은 없지요. 그래서 손오공 일행, 당당하게 화염의 난관, 완공의 장애 물리치고 당당하게 올바른 길로 오늘도 나갑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묵념!…이 아니고, 이 당당한 행보에 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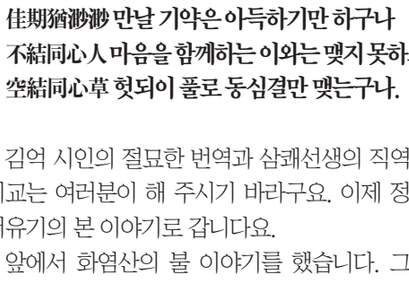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 절집의 빛

㉒ 통도사 영산전 견보탑품도

법화경 설하는 국토에 증명으로 솟다

통도사 11곳 전각에 550여점 벽화

고색창연한 사찰벽화의 빛을 간직하고 있는 절집이 전국의 곳곳에 분포한다. 양산 통도사와 강진 무위사, 공주 마곡사, 고창 선운사, 양산 신흥사, 파주 보광사, 보성 대원사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 양산 통도사는 우리나라 사찰벽화의 소재와 모티프를 집대성한 보고라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벽화와 수준 높은 벽화를 간직하고 있다. 영산전, 약사전, 대웅전, 용화전, 명부전을 비롯해서 안양암 북극전까지 11곳의 전각에 걸쳐 550여점의 방대한 벽화가 현존한다. 18세기 초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장엄한 성보들로, 오래된 것은 300여년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한다.

벽화의 개체 수만큼이나 소재도 풍부하다. 통도사 말사인 신흥사 대광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사찰벽화에 등장하는 모든 소재가 통도사 전각에 집대성 돼 있다고 봐도 지나침이 없다. 영산회상도의 모티프는 물론이고, 견보탑품도, 석가모니 삼존도, 약사여래 삼존도, 아미타 내영도, 비로자나불도, 팔상도, 수월관음도, 지장보살 삼존도, 반야용선도, 고승과 나한도, 고사인물도, 금강역사도, 석가모니 행적도, 주악비천도, 서수도, 화조도 등, 심지어는 〈서유기〉와 〈삼국지〉의 내용도 소재로 삼았다. 과히 사찰벽화의 향연이다. 그 중 영산전의 벽화들은 일괄적으로 2011년 보물로 지정 되었다. 보물로 지정된 배경에는 영산전 내부 서쪽 벽면에 장엄한 견보탑품도(見寶塔品圖)의 희소성과 세계 불교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가치에 주요한 바탕이 되었다. 통도사 영산전의 견보탑품도는 무위사 아미타삼존벽화, 선운사 대웅보전 삼불벽화와 함께 우리나라 사찰벽화의 정수이자,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견보탑품도는 불교미술사에서 유일무이한 희소적 가치에 세계적인 주목의 대상이라 그 중요도가 각별하다.

다보사 대웅전에도 견보탑품도 현존

견보탑품도는 〈묘법연화경〉의 제11품 '견보탑품'의 경전 내용을 담은 변상도다. 석가모니불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무렵, 땅에서 홀연히 솟아오른 큰 보배 탑을 여러 사부대중과 청중들이 경이롭게 예경하는 장면을 모티프로 삼은 벽화다. 그런데 견보탑품의 내용을 담은 벽화는 여러 언론기사, 책, 학술보고서에서 언급하듯이 통도사에만 국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18세기 초 장엄인 통도사 영산전의 견보탑품에 비해 시대가 떨어지는 20세기 초의 작품이 하나 더 존재한다. 나주 다보사 대웅전 좌우 외벽에도 견보탑품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까닭이다. 특히 사찰명도 다보사이니 다보탑 벽화 장엄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그 역시 법화경의 경전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탑 옆의 여백에 벽화의 내용을 암시하는 〈법화경〉 제11품 '견보탑품' 문장을 아예 적어서 그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물론 벽화의 규모면이나 붓질의 수준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가지지만, 경전 구절과 변상도를 나란히 함께 한 화면에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와 고증의 가치가 충분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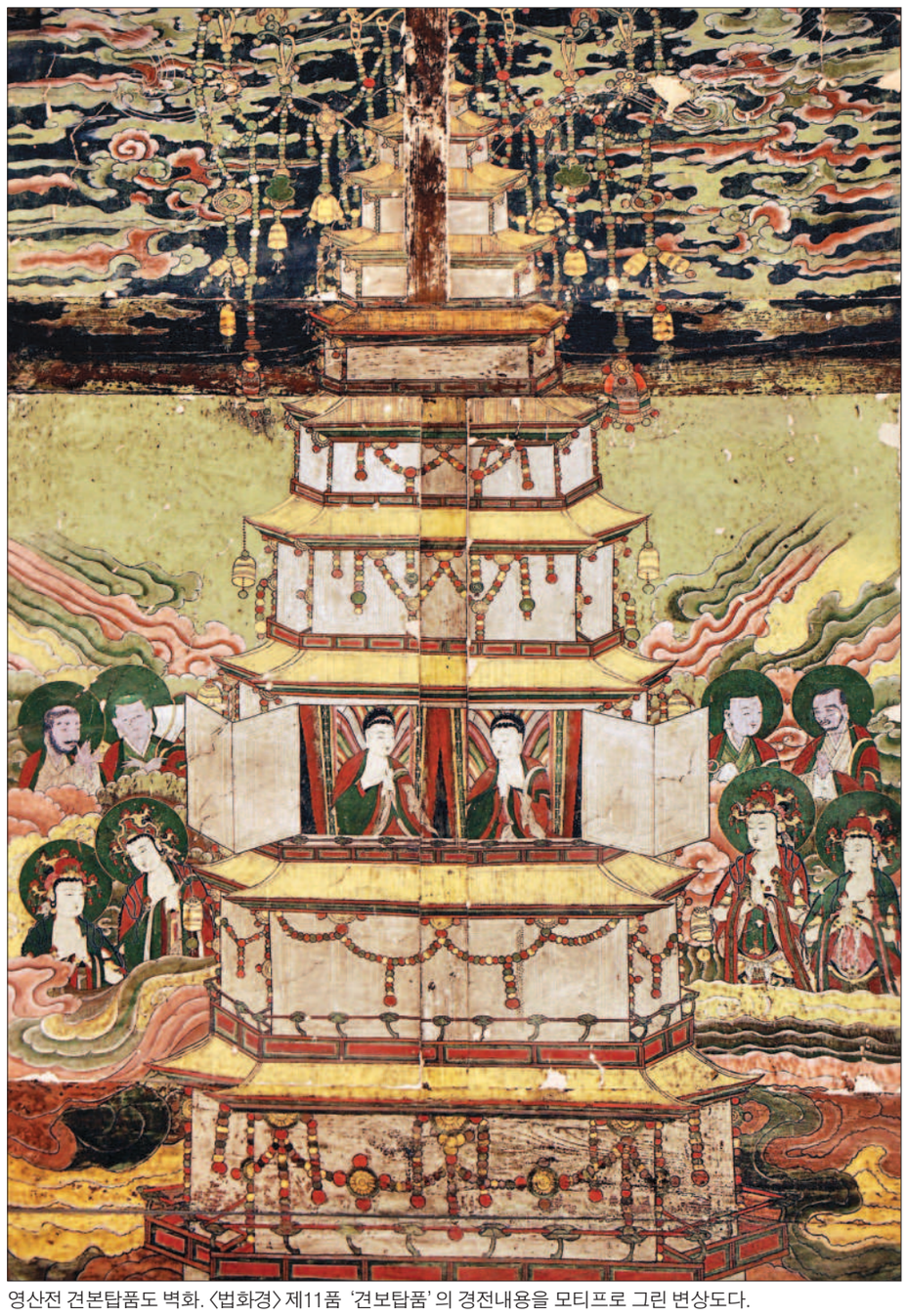


다보여래와 석가모니불께서 칠보탑 가운데를 반으로 나누어 앉으셨다. 저 장면을 탑으로 구현한 조형이 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탑이다.

> "통도사는 우리나라 사찰벽화의 보고이고, 특히 '견보탑품도'는 불교미술사에서 세계사적 가치를 지닌 유일무이한 희소성의 벽화"



칠보탑의 상륜부 세부.



영산전 견본탑품도 벽화. 〈법화경〉 제11품 '견보탑품'의 경전내용을 모티프로 그린 변상도다.

〈법화경〉 '견보탑품'의 환상적 서사

법화경 견보탑품의 내용은 대단히 드라마틱하고, 환상적이다. 소설이나 서사극의 플롯처럼 기승전결의 짜임이 매력적이다. 무대의 막이 오르면 인도 왕사성의 영축산이다. 석가모니불께서 정좌해 계시고, 1만 2천 사부대중과 8만 보살, 천인, 신중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자 모였다. 그런데 부처님 앞의 허공에 큰 보배탑이 머물러 있다. 어떤 인연으로 땅에서 솟아난 칠보탑이다. 칠보탑은 말 그대로 가지가지 보물과 보배 영락, 보배 방울을 장식하고 있고, 5천의 난간과 천만의 방이 있는 엄청난 크기의 탑이다. 높이가 500유순이고, 폭은 그 절반이다. 1유순을 대략 15km로 잡더라도 실감키 어려운 크기임을 알 수 있다. 현실로 비유하자면 히말라야산맥의 에베레스트산 만한 셈이다. 경전에서는 탑의 꼭대기가 수미산 중턱에 있는 사천왕궁에까지 이른다고 밝혔다. 그 웅장함에다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의 천신은 하늘의 만다라꽃을 비 내리듯 공양하고, 천, 용, 건달바, 아수라 등 천룡팔부(天龍八部)들 역시 온갖 꽃과 향, 음악을 공양 올린다. 탑의 사방에는 그윽한 전단향 향기가 가득한 그야말로 지극한 환타지의 장면이다. 그 때 탑 속에서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을 찬탄하는 큰 소리가 들린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도다.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평등한 큰 지혜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시며, 부처님께서 보호하는 〈묘법연화경〉을 대중을 위하여 설법하시니, 석가모니 세존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 진실이니라."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 이 미증유의 경이로운 장면에 모두가 놀라워하며 동요한다.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시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한결같이 그 의문을 갖는 것이다. 그때 대요설이라 불리는 보살마하살이 일체 세간의 청중들의 한결 같은 의심을 알고 부처님께 여쭙는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저 칠보탑이 땅에서 솟아났으며, 또 탑 속에서 저와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까?" 석가모니불께서 그 인연을 말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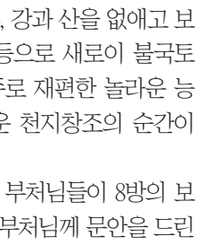
"이 보배탑 가운데는 여래의 전신이 계신다. 오랜 과거에 동방 천만억 아승지 세계를 지나서 보정(寶淨)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셨다. 그 부처님 존명이 다보불(多寶佛)이시다. 다보불께서 보살도를 행할 때 큰 서원을 세웠는데, '내가 만일 성불하여 멸도한 후 시방 국토에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법화경을 듣기 위하여 하나의 큰 탑으로 몸을 일으켜 그 앞에 나타나 설법의 참을 증명하고, 거룩하시다고 찬양하리라'고 하셨느니라. 지금 이 다보여래의 탑도 법화경을 들으려고 땅으로부터 솟아나서는 거룩하다고 찬탄하고 있는 것이니라."

칠보로 된 보배탑은 곧 다보여래탑이고, 법화경이 완전한 진리임을 증명하는 탑임을 밝힌 것이다.

우주를 재편하는 천지창조의 장면

일체대중의 궁금증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부처님께 다보여래의 전신을 뵙고 예경 올릴 수 있도록 간청한다. 그것은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사부대중들에게 탑 속의 다보여래 전신을 나타내 보이려면 시방세계에 흩어져 있는 석가모니불의 분신인 모든 부처님을 이 회중에 설법으로 다 모이게 하셔야 하는 까닭이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선재동자의 구법(求法)순례 서사만큼이나 재미있고, 극적이다. 부처님께서 선뜻 나서신다. 시방으로 백호의 광명을 놓아 분신불을 영산회의 회중으로 불러 모으신다. 그런데 항하사의 모래알 개수보다 많은 부처님 분신을 다 앉힐 자리가 문제다. 석가모니불께서 그 모든 분신 부처님을 앉게 하려고 8방의 국토를 모두 청정케 하신다. 불국사 석가탑 주위에 있는 팔방 연화좌가 그 청정의 자리를 상징하는 조형적 산물이다. 국토를 청정케 하는 대목이 기막히다. 공간이동을 하시는데, 우주 전체를 재배치하는 놀라운 장면을 연출하신다. 쉽게 비유하자면 사단장 순시가 있다고 영내 청소하고, 화분 갖다 놓고, 눈에 거슬리는 거 치우고 하듯이 육도세계를 재편하신다. 사바세계를 청정케 하고,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의 세계는 없어지고, 모든 천과 인간은 다른 공간으로 옮긴 후, 강과 산을 없애고 보배나무 보배꽃, 보배 휘장 등으로 새로이 불국토로 장엄한 것이다. 평행우주로 재편한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 것이다. 새로운 천지창조의 순간이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시방의 불국토 분신 부처님들이 8방의 보배나무 아래 사자좌에 앉아 부처님께 문안을 드린 후 모두가 보배탑 속의 다보불을 보시기를 간구한다. 서사는 클라이막스로 치닫는다. 석가모니불께서 홀연히 허공 가운데 머무신다. 모두가 일심으로 합장하며 경배를 올린다. 석가모니불께서 마침내 오른손가락으로 칠보탑의 문을 여신다. 드디어 천만억 겁의 오랜 과거에 멸도하신 다보여래께서 석가모니불과 법화경을 찬탄하며 찬란히 나투신다. 하늘에서 숱한 보배꽃이 흩어져 내린다. 그 때 다보불께서 탑 가운데 자리를 반으로 나누어 석가모니불께서 앉으시기를 권하신다.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자 석가모니불께서 탑 가운데로 가시어 반으로 나눈 자리에 결가부좌 하신다. 석가모니불께서 아득히 먼 곳에 있는 일체대중을 신통력으로 허공 가운데로 이끌어 올리신 후 사자후를 토하신다. "지금이 바로 〈묘법연화경〉을 설할 때 이니라." 모두가 법화경의 법비에 젖을 때 서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대단하고 대단한 서사다. 막이 내린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자리를 뜰 수 없는 깊은 감격과 환희지의 여운이 남는다. 통도사 영산전의 견보탑품도 벽화는 그 경전 내용의 클라이막스를 절묘하게 포착했다. 경전 내용을 이렇게 훌륭하게 표현한 벽화는 또 없을 것이다. 경전을 빌려 찬할 뿐이다. 선재 선재라.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천지 佛香 맡으며 승속 경계 넘나들어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㉜ 우정 김극성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에는 삶의 기준도 바로 세우기 어려운 법이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생존만이 더욱 또렷한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시절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혹 시류에 동조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아니면 의리명분을 중시하여 스스로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몸으로 겪어낸다. 하지만 인과론적인 역사의 패턴은 일시적인 부귀란 결국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일 뿐이고, 의리를 실천한 이는 오래도록 길이 남을 명예를 얻는다는 사실이 언제나 명징(明澄)했다.

우정 김극성(憂亭 金克成, 1474~1540)의 자는 성지(成之)다. 호는 청라(靑蘿), 우정(憂亭)이라 하였고 〈우정집(憂亭集)〉을 남겼던 그는 혼란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잇달아 일어난 사화(士禍)로 인해 국정은 문란했으며 오랑캐의 침입과 왜구의 침탈 또한 이 시대에 상존된 위기였다. 실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시기였던 셈이다.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에 있는 우정 김극성 사당. 예조판서와 우의정 등 주요관직을 두루 거친 그는 〈우정집〉을 남긴 문신이다. 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근신과 절제를 통해 높은 벼슬에 올랐던 그이지만 처음 생원시에 급제한 해는 1496년이다. 2년 후인 1498년 별시 문과에 장원한 후 전적(典籍)에 임명되어 종학사회(宗學司誨)를 겸했고, 1500년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가 헌납(獻納)으로 봉직할 때에 폭군 연산군에게 충간(忠諫)했던 일은 그의 성정이 어떠했는지를 드러낸다. 〈국조인물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산군이 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심순문을 죽이고자 하여 군신(群臣)들에게 물었지만 모두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공이 대사간(大司諫) 성세순(成世純)에게 이르기를 "간관(諫官) 벼슬로써 죄가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한갓 몸을 아낄 수는 있겠지만 맡은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니 어찌하리오"라고 말하자, 좌우에서 아무 말을 못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심순문과 같이 죽으려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공은 성세순과 담소(談笑)하며 태연하게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큰일이다. 각각 그 뜻에 맡기는 것이 좋다. 오늘 먼저 죽을 자는 아마도 우리 두 사람일 것이니 어찌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리오"라고 하였다. 드디어 심순문의 억울한 정황을 아뢰었다. 연산군이 듣지는 않았으나 (그에게) 죄를 내리지도 않았다.(燕山欲以非罪殺沈順門 問群臣皆莫敢異辭 公謂大司諫成世純曰官以諫爲名 見人死無罪而不言 縱愛身奈負職何 左右默默 或曰必與順門同死無益 公與世純談笑自若曰死生大矣 各任其志可也 今日先死者必吾兩人 豈累他人 遂白順門冤狀 燕山雖不聽亦不之罪累)

이 글에 따르면 김극성은 폭군이었던 연산군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충신이었다. 그러므로 연산군은 그의 말을 수렴(收斂)하지는 않았지만 벌을 주지 않았으며 여러 번 자리를 옮겨 병조정랑(兵曹正郞)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에 임명했던 것이다.

1506년 중종반정에 가담했던 그는 분의정국공신(奮義靖國功臣) 4등에 녹훈되어 장악원정(掌樂院正)으로 임명된다. 그가 관료로서 백성의 신망을 한 몸에 받았던 사실은 유배지에서 돌아왔을 때의 일이다. 바로 그가 권신 김안로에게 미움을 받아 정광필(鄭光弼)과 함께 흥덕(興德)으로 유배되었다가 해배되었을 때 도성의 부노(父老)들이 이마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선인(善人)을 보게 되니 죽어도 한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가 백성에서 보인 신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게 한다.

한편 그의 인품은 〈국조인물고〉에 "풍모(風貌)는 풍후(　厚)하고 빼어났으며 그릇이 크고 넓어 조화(調和)를 이루되 세속(世俗)에 흐르지 않았으며, 침착 중후하고 간결 엄정하여 평상시에 몸가짐이 법도가 있었다"고 하였고, 그의 품 넓은 포용력을 "남의 과오를 발견했을 때는 가려 덮어주기에 힘썼다. 비록 자제에게 실책이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었으며 사람을 접함에 있어 반드시 지성(至誠)으로 대했다"고 하였다. 그가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늘 검소한 삶을 살았던 삶의 일면은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단확(丹雘)을 바르도록 권하였지만 "사치를 후손에게 전함은 상서롭지 못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잇단 士禍에도 절제 갖춰
폭군에게 소신 밝힌 충신
승려들과 꾸준히 교유하며
자신 글에 僧俗不二 나타내

차를 좋아하며 수편의 다시(茶詩)를 남겼을 뿐 아니라 승려들과의 격의 없는 교유를 나누었다. 특히 속리산의 숭 승려와 막역한 사이인 듯한데 이는 숭 승려가 보낸 먹을 받고 쓴 '숭 승려가 먹을 보냈기에 감사하며(謝崇上人惠墨)' 에서 짐작할 수 있다.

누워서 휴식하는 건, 산문의 풍미이니
(山門風味臥宜休)
어찌 속인을 위해 편안히 머리를 드는가
(豈爲塵容穩擧頭)
늘 꿈속에서 천리 밖에 있을 그대를
생각하지만(千里憶君常入夢)
조각구름 나를 가려 함께 놀지 못하네
(片雲遮我不同遊)
이미 업신여겨 비웃음 많은 걸 부끄럽게
여기니(已慙白眼多譏笑)
어찌 높은 벼슬 구하기를 도모할까
(何計朱門一品求)
묵객이 깊이 경개하는 벗이 되길 맹세했거니
(墨客盟深傾蓋友)
다른 해 서울에서 서로 붙어 다니리
(他年京洛也相隨)

숭 승려가 수행했던 속리산을 찾았던 듯하다. 그러기에 숭 승려는 그가 찾아오자 산문의 풍미인 "누워서 휴식하는 것"을 포기한 채 "속인을 위해 머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나눈 살가웠던 우정의 향기는 숭 승려가 보낸 먹에서도 묻어났으리라. 이에 화답하여 "늘 꿈속에서 천리 밖에 있을 그대를 생각"했던 김극성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귐은 유불의 경계를 허물고 속내 깊은 뜻을 공유했던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은 분명 경개의 벗(傾蓋友)이었던 것이다. 경개란 원래 양산을 기울인다는 뜻으로, 개(蓋)는 수레 위의 일산(日傘)을 말한다. 경개의 벗이란 잠시 만났더라도 오래 만났던 사람처럼 친하다는 의미로 이들의 교유의 깊이를 바로 드러낸 말이다. 이뿐 아니다. 그가 숭 승려에게 보인 〈속리산 숭 승려에게 보이다(俗離山 示崇上人)〉라는 시엔 그가 불교의 원리에도 상통했던 관료였음을 드러내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바쁜 홍진 속 나그네 길 분주한데
(衮衮紅塵客路忙)
아름다운 경치 더듬어 산당에 이르렀네
(爲探佳景到山堂)
낭떠러지 위태로운 돌, 떨어질 듯하고
(懸崖巨石危將墜)
산꼭대기 나이 든 노송, 넘어지지 않네
(絶頂孤松老不　)
홍진의 객, 선승에게 법주를 들으니
(入塵對禪聞法住)
문을 나와 문장대를 바라보네
(出門矯首望文藏)
산중에 좋은 것, 산승이 다 말하지만
(山僧說盡山中好)
환하고 기이한 전기, 정말로 상서롭구나
(灼灼奇傳信可詳)

그가 찾은 속리산엔 문장대가 있다. 홍진 속에 분분했던 그가 아름다운 산경(山景)을 더듬어 암자에 올랐던 것. 하지만 암자로 가는 길은 "낭떠러지 위태로운 돌, 떨어질 듯하고/ 산꼭대기 늙은 노송, 넘어지지 않는"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승경지였다. 더구나 세속의 미몽(迷夢)을 헤매던 그가 숨을 몰아쉬며 올랐던 산당(山堂)에서 들은 법주(法住)란 바로 진여(眞如)의 미묘(微妙)한 이치가 반드시 일체 만유 가운데 있다는 소식이었던 것이다. 또한 그와 알고 지냈던 학연이란 승려는 효행이 돈독했던 듯하다. 이런 사실은 '승려에게 주다(贈僧)' 에서 드러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에도 드물게 효를 숭상하는 이가 있으니
(寺有扁崇孝)
승려의 호는 학연이라(居僧號學然)
배움은 도를 밝히는 것이고(學所以明道)
효는 능히 이치에 이르게 하네(孝能爲格天)
삼천대천세계, 석장을 날리며(飛錫三千界)
40년의 헛됨을 면했구나(逃空四十年)
명을 생각하고 이에 의를 살피니(顧名斯顧義)
어찌 시든 선을 할 수 있으랴(何用作枯禪)

기실 효행은 사람의 기본 도리이다. 효는 출가 승려들에겐 강조되는 윤리관이 아니다. 하지만 학연은 효를 실천했던 승려였다. 효를 중하게 여긴 김극성은 학문은 도를 밝히는 일이며 궁극의 이치에 도달한 삶은 효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학연의 40년 수행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아울러 학연은 명과 이를 살핀 승려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선, 살아있는 선을 실현했던 승려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밖에도 설과 준 승려(雪俊師)에게 남긴 '증설준사(贈雪俊師)' 에 그가 불교의 이치에 어두웠던 것이 아님을 드러냈는데 5수(首) 중에 제4수와 5수를 살펴보면 이렇다.

탑을 세우는 건, 승려의 지엽적인 일이고
(建塔僧之末)
벽곡은 행실 중에 작은 일이라(穀行之小)
두 승려, 법을 전하니(兩僧傳一法)
석종에 이묘를 감췄네(石鐘藏二妙) (제4수)

다른 사람의 반나절 한가함을 훔쳐서
(偸他半日閒)
모든 불장을 보았네(得見諸佛場)
더러운 옷 털지 않아도(衣塵未拂去)
텅 빈 하늘, 코로 향기를 맡누나
(空聞鼻觀香) (제5수)

그의 말처럼 탑을 세우거나 벽곡을 하는 건 지엽적인 일이다. 특히 그에게 법을 전해 준 이는 설승려와 준 승려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자의 한 가함을 훔쳐 모든 불장을 보았으며 속진을 떨지 않고도 온 천지에 퍼져있는 불향(佛香)을 맡았으니 그는 승속불이(僧俗不二)의 경계를 보인 것이라 하겠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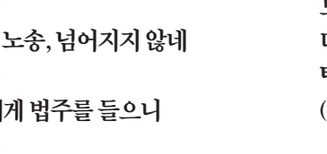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리더에게 聽하다

正論直筆의 근원은 참선…

〈정론직필〉

정일태 언론사불자연합회 회장

세상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있다. 이런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공감을 주는 좋은 기사, 영상을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의 간격, 그리고 갈등은 커져만 간다. 세상과 소통, 공감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해 전달하는 언론인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10월 17일 제24회 불교언론문화상의 불교언론인으로 선정된 정일태 언론사불자연합회 회장은 불교를 넘어 가슴 따듯한 공감의 기사와 영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소통하게 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그 이면에는 참선 수행을 통한 정론직필의 신념이 있었다. 수행을 토대로 일로매진하고 있는 그를 만나 보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사회가 고착화되고, 언론 간 경쟁도 심화되며 시청률을 위한 선정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사를 과도하게 취재 보도하는 옐로저널리즘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인, 특히 불자언론인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본적으로 언론인은 정론직필을 해야 합니다. 바른 논리에 기반해 각 사안에 바르게 파고 들어가는 따가움과 매서움이 필요하죠.

여기에 불자언론인이라면 그것을 넘어 그 이면의 인간적인 따뜻함과 같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진정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논리, 마음의 깊이 등을 다뤄야 합니다.

보통 언론은 현상을 많이 보도하는데, 기사를 통해 옳고 그름을 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불자언론인은 부처님의 중도사상으로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게 하고, 서로 대안을 찾게하는 그런 기사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론사불자연합회는 2002년 10월 17일 출범 후 KBS와 MBC, SBS, 경향신문 등 4곳만 참여했지만 2014년 정 회장님 취임 이후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불교신문, 법보신문, JTBC, 불교방송 등이 신규 회원사로 가입하고 회비를 내는 회원이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9대 회장으로도 재추대 되셨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예전에는 언론사에 OB언론인 위주인 한국불교언론인회와 현직 언론인 위주의 언론사불자연합회의 두 조직이 있었습니다. 처음 서울에서는 한국불교언론인회 사무총장을 했고, 포항에서 서울로 복귀 후 언론사불자연합회장을 맡으며 한국불교언론인회와 언론사불자연합회장을 합치게 됐습니다.

8대 회장직을 수행할 때는 KBS의 지역 책임자로 있다가 다시 서울로 와서 활동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얼떨결에 맡게 되어 직접 방송국과 신문사를 찾아다니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내부적인 내실보다는 외연을 늘리는데 주력했습니다. 회원 숫자를 늘리고 회원사를 늘리는 확장정책을 세웠습니다.

이번 9대 임기 동안에는 이런 외형성장에서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언론인 불자들도 타종교인들처럼 봉사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행과 함께 봉사하는 그런 조직으로 가꿔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근무한 대구 · 경북 지역이나 부산 · 경남 지역은 불심이 강합니다. 모든 대중들이 불교를 많이 봐와 다양한 행사에서 전반적으로 불심이 가득찬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 네트워크 활동이나 불교이야기를 꺼내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반면 서울은 현대화가 된 곳으로 불교 포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당당한 불자되길 발원

2014년 언론사불자회 회장 취임
"수행 · 봉사하는 언론인 문화 만들터"
2016 불교언론문화상서 언론인상 수상

하지만 이에 상관없이 포교하는 당당한 불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가르침은 인간이 살아가야 할 진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불자회 회장을 하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불자들이 불자임을 당당히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히 말하는데 불자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는 불자라고 당당히 말하고, 이에 맞게 소외계층을 돕는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상식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등 이웃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자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구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오는데, 불자들은 그런 면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를 드러내지 않는 성향과 수행에 근간한 종교란 점이 한 원인일 겁니다. 하지만 불자들도 만약 불교 신행과정에서 느낀바가 크다면 '부처님 가피를 받은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불자들이 자신있게 드러냈으면 합니다.

▲예전에 방송인 김용림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방송활동 이면에 PD 등에 특정종교로 인한 인맥이 있고,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응집력이 떨어지는 불자 연예인들의 경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구요. 언론사 내에서 종교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불자회를 조직하고 있지만 작품을 만들 때는 종교를 떠나야 합니다. 불교인, 기독교인을 떠나 그 작품을 만들 때는 가장 잘 취재하는 기자, 잘 만드는 PD를 뽑아야 하고, 이를 잘 표현하는 연기인 등을 섭외해야겠지요. 공적인 활동과 신행은 분리돼야 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모든 언론활동이 종교 프레임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불자라면 불교를 넘어 인연, 연기에 의해 순리대로 일을 진행해 가야 합니다.

▲회장님은 언제부터 불교에 심취하게 되셨습니까. 언론인으로서 불교 안팎의 다양한 문제점을 보셨을 듯합니다. 이전투구의 불교 내부 사건을 다루면서 신심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기자들도 많습니다. 회장님은 오히려 신심이 떨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 종갓집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위로 누님이 3명 있었는데, 아들이 귀한 집이었죠. 영천 죽림사에서 부모님이 치성을 드려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처님께 빌어서 태어났다고 듣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마에 빨간 점이 있었는데, 스님이 환생했다는 증거라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사찰에 간 것은 드물었습니다. 외무고시에 매진했던 대학과 대학원 시절을 비롯해 해병대 장교생활, 바쁜 직장생활 등으로 한동안 사찰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불교는 그저 심오한 사상과 철학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지식의 대상으로서 불교 공부를 했습니다.

KBS에 입사하며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였는데, 10여 년이 지난 뒤 한 지인의 소개로 불교와 다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포항방송국 근무시절 당시 오어사 주지 학나 스님을 통해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새벽예불과 108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3개월간의 대구와 포항 통근을 통해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모두 외웠으며 〈금강경〉도 매일 3독하다보니 자연스레 외울 수준까지 근접할 만큼 불교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에 점점 빠져들게 된 것은 바로 회

잘하는 명상은 나의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병이나, 괴로움, 번민 등은 모두 자연법칙을 위배하는데서 일어납니다.
명상을 통하여 모든 자연법칙들의 근원인 순수의식을 확립하면
마음과 몸은 자동적으로 단단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여 생리계통이 바뀌게 되며, 그후 문제 없고
완전한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빠르게 발전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 첫째주 (토요일) : 나를 귀하게 하는 명상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 둘째주 (토요일) : 자기 능력을 일깨우는 창조명상〈취업준비 직장인 및 상업인, 사업인 등〉
◆ 셋째주 (토요일) : 사랑을 얻는 행복명상 〈결혼, 이혼, 재혼을 앞둔 이들을 위하여〉
◆ 넷째주 (토요일) : 귀한 자녀를 얻는 태교명상
〈뇌세포의 70%는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 지며, 스트레스는 태아의 뇌 크기를 줄인다〉

◆ 문 의 : 작은 마음선원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40번길 32
◆ 전 화 : 010-8673-7558 / 010-5658-2657 / 031-335-2568
◆ 매주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삶에 대하여 …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자신을 키우고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보세요.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共感의 기사로 세상과 소통

사 내 데스크와의 관계 설정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데스크와 관계설정입니다. 급박한 업무 진행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예전에는 데스크의 일방적 지시로 인해 지금보다 더 많이 힘들었어요. 서로 소통이 안 됐을 때 내가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극복의 수단으로써 마음을 정화시키는 부처님이 다가왔습니다. 사색의 대상, 사고의 대상으로가 아닌 실생활에서 마음에 닿는, 피부에 닿는 부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2004년 축서사 무여 스님을 만나면서 간화선 수행에 빠져들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스님은 회장님께 어떤 존재이고, 느낌이었습니까?

- 2004년 8월 KBS안동방송국 방송부장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축서사 진신사리탑 조성불사 보도자료를 갖고 온 축서사 총무 스님을 만날 때만 해도 축서사와 무여 스님에 대해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는 법회 보도자료였지만 공영방송 특성상 특정종교 일반 행사를 취재하기는 곤란하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진신사리는 인류사적 문화유물로서 가치가 있으니 공영방송의 보도기준에도 부합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카메라기자와 함께 축서사를 찾았는데 먼저 문수산과 무여선원의 풍광에 매료됐습니다. 무여 스님을 뵙고 3배를 올렸는데 함께 무릎을 꿇고 3배를 올리는 스님의 모습을 보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님을 보고 '아! 구도자구나, 수행자구나' 싶었습니다.

이때까지의 불교는 내가 필요해서 언제든지 도와주는 부처님이었고, 구복의 차원이었는데 이 개념을 바꿔주셨습니다.

▲스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요? 또 평소에 어떻게 수행을 하시는지요?

- 처음에 받은 화두는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이뭣고' 였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에 대해 다른 것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법귀일, 일기하청' 화두를 다시 받았습니다.

화두는 제 생활입니다. 행주좌와 화두를 듭니다. 본격적인 수행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세면을 하고 108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샤워를 하고 다시 참선 후 출근합니다. 화두에 들면 너무 좋습니다. 일단 몸이 가뿐해집니다. 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차분하게 내면을 보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간화선이 생활화


언론사불자연합회 2016년 충주 석종사 성지순례 모습.


2016년 5월 여의도 대로서 진행된 봉축탑 점등법회 모습.

무여 스님 만나고 화두 받아

새벽4시 일어나 108배 · 참선
급박한 일서 평정심 유지 큰 도움
후배들 참선 수행 권하는데 앞장

되면 흥분할 때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특히 간화선 수행이 도움이 되셨을 듯합니다. 언론인에게 간화선 수행은 어떤지요?

- 앞서도 말했지만 언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 흥분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이 옳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 면만 있는 것이 아닌 여러 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흥분하지 않는 차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간화선 수행이 큰 역할을 합니다.

방송기자는 특히 생방송이 스트레스입니다. 예전에는 너무 긴장이 돼 생방송 시간이 다가오면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음도 어눌해지고 전달력도 떨어집니다. 방송 직전 마음챙김을 하고 나면 콜 사인이 들어오면 방송 때 잊어버리지만 부드러운 방송이 가능합니다. 참선의 장점은 자세를 교정하는데도 있어요. TV에 출연하는 이들의 경우 자세가 삐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화두 들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저 한 명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교를 접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가르침을 접했으면 합니다.

▲최근에는 방송에서 다큐 등을 통해 방송에서 종교를 다루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종교방송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 기본적으로 종교는 국민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이나 정신세계의 근간이라고 봅니다. 특정종교를 조명하는 것보다 이런 국민 정신세계의 근간을 조명하는 일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신념을 발현할 수 있도록 종교계와 정부, 언론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언론사 불자연합회장이나 개인으로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언론사 불자연합회 회장으로서는 언론인들이 좀더 불자로서의 소양과 신심을 증장시켜서 불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회나 교육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당당함 속에 사회봉사, 포교 등을 활성화 하자는 것입니다. 언불련의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KBS를 보면 가톨릭 신자들이 제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불자들의 의식과도 연관 있는 듯 합니다. 종단 측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종정 스님 등 큰스님들이 앞장서서 봉사활동을 해주시고, 함께 언론인도 이를 알리고 앞장서서 해나가는데 동참해야 합니다.

부처님오신날 전후로 사찰 인근의 많은 소외계층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가톨릭의 경우 프란체스코 교황의 모습이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큰스님들이 보다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로원 등에서 스님들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언론인들이 많이 조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교봉사단체, 교육단체에서 재능과 열정을 회향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무여 스님에게 배운 것이 참선이기에 도심에 장소가 있다면 도심에서 간화선이나 명상을 알리는 것을 하고 싶네요.

자비와 지혜의 종교 불교, 정 회장은 인터뷰 내내 자비실천도 함께 가야 함을 강조했다. 정 회장이 떠올리는 미래에 열린 눈과 열린 귀로 밝은 안목을 기르고 당당한 불자로서 언론인의 역할을 해나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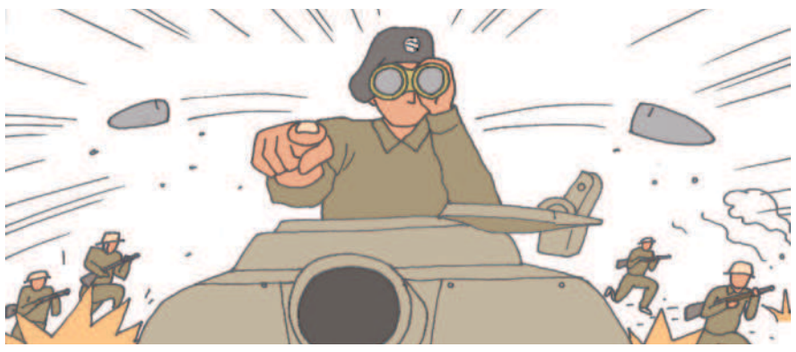
정일태 언론사불자연합회 회장(법명 보광, KBS보도본부 해설위원)은…

1959년 3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다. 대구 대륜고, 경북대 독일어교육과와 동 대학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KBS 14기 기자 공채를 통해 언론인으로서 첫 걸음을 내디딘 이후 KBS 대구총국 보도국장, 본사 시청자사업부장, 포항방송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구경북불교언론인회장과 한국불교언론인회 사무총장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 언론사불자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언론사불자연합회와 한국불교언론인회로 나뉘어 있던 언론사 불자신행단체를 2014년 5월 언론사불자연합회로 통합해 불자언론인들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봉축기간 동안 의사당대로에 봉축탑을 최초로 세우고 봉축법회를 여는 등 언론인들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불심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 현재 KBS 보도본부 문화분야 해설위원으로서 해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전통문화 보존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는데 힘쓰고 있다.

니까야서 길을 묻다 지혜란 무엇인가 ①

최적의 선택이 곧 지혜

이제 '지혜의 갖춤을 지향하는 사유체계' (慧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먼저 '지혜' 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 핵심이 될 것이다. 지혜의 팔리어 원어는 '판냐' 인데, 현존하는 팔리어 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판냐는 '알다' 에서 파생된 말이므로 '앎' 에 관련된 말이다. 따라서 지혜는 '앎' 의 문제와 일차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지식이 곧 지혜는 아닐 것이다. 한자어 '지식(知識)' 에 '앎과 이해' 의 균형적 갖춤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상적 용법에 따르면 지식은 '축적된 앎', '실용적 앎' 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혜를 지식과 동의어로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지혜를 불교적 '혜학' 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지식과 구별될 수 있는 지혜의 면모를 살펴보자.


그림 · 나은영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쓴 '세계 전쟁의 역사' 를 읽어보면 지혜의 면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견해를 만날 수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몽고메리는 '누가 위대한 장군인가' 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검토해나간다. 어느 하나의 덕목만으로는 답을 찾아내기 어려운 이 질문에 대해 그는 '정확한 판단력' 이야말로 위대한 장군의 요건이라고 힘주어 강조한다. 곧 전쟁의 판세를 정확히 읽어내어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일이야말로 장군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인 셈이다.

이에 따르면, 축적된 수많은 지식과 경험은 장군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그에게 제공된 수많은 지식과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장군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정확한 판단력이 중요한 이유는 전쟁의 상황이 매우 변화무쌍하여 처음부터 이것은 중요하고 저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전제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군사의 숫자에서부터, 가동할 수 있는 무기의 존재, 군사들의 사기, 지형과 날씨, 군량과 보급로 등 고려해야 할 상황과 조건, 변수 따위가 너무나 다양한 곳이 전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답이던 것이 내일도 그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몽고메리는 장군의 조건으로 정확한 판단력을 든다. 달리 표현하면 상황대처능력, 문제 해결능력이야말로 장군, 나아가 지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는 것이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혜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별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혜의 면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 또한 전쟁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정답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에 따른 최적의 선택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일상 그 자체이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필수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최적의 판단과 선택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선행될 때 가능할 것이다. 주어진 상황의 정체는 무엇인지, 이 상황이나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선택과 대처가 뒤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혜의 면모는 마치 정보가 입력되는 순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최적의 길 찾기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길 도우미 '내비게이션' 을 떠올리게 한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LOTUS (연꽃) 조연향



조연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 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조연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우리향입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격 [장] 10,000원 [단] 15,000원 (제조 : 국내산)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연꽃 향초
로터스 양초 특징 :
1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2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일본 직수입 향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원효가 쓴 기신론 해동소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의 삼대소(三大疏) 가운데 혜원의 정영소(淨影疏) 다음에 나온 것이 원효의 '해동소(海東疏)'이다. 중국에서 신라를 해동이라 하였으므로 해동소라 한다. 원효의 해동소는 현수(賢首)가 〈기신론의기(起信論義記)〉를 지을 때 많은 참고를 했을 정도로 기신론의 소 가운데 가장 탁월한 소라고 평가받고 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경·율·논 삼장에 걸쳐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대표적인 인물이 원효이다. 조명기 박사가 편찬한 〈원효대사전집〉 목록에 의하면, 총 91종의 저서 이름이 있고, 현존하는 것은 경에 관한 것 9종, 율에 관한 것 2종, 논에 관한 것 4종, 기타 5종 등 20부 23종이 남아 있다고 한다.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원효에 대한 기록엔 몇 가지 설화가 있다. 그 가운데 원효와 혜공(惠空)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원효가 여러 주와 소를 쓰다가 혜공에게 물어 의심을 해결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혜공은 원효를 가르친 스승의 역할을 한 셈이 된다.

원효는 기신론소(해동소) 외에도 〈기신론별기(起信論別記)〉를 지었다. 기신론에 관한 원효의 저술은 종요(宗要), 소문(疏文), 대기(大記), 요간(要揀) 등 6종이었으나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소와 별기뿐이다. 원효의 소는 먼저 종체(宗體)를 나타낸 다음 제목의 이름을 해석하고 본문을 한 구절씩 해석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승을 소승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기신론에서 내세우는 대승은 대·소승의 상대개념이 아니다. 원효는 별기에서 대승의 종체를 설명하면서 "이치가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크게 그러한 것(無理之至理 不然之大然)"이라는 특이한 표현을 하여 대승을 설명하였다.

원효의 소와 별기에서 나타난 기신론 이해의 특징은 공(空)을 주장한 중관사상이나 식(識)을 내세운 유식 사상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하고 회통하여 진속불이(眞俗不二)의 관점에서 기신론을 이해한 점이다.

원효가 입당유학(入唐留學)을 하려고 길을 떠났다가 도중에 노숙을 하면서 '촉루수(觸 水, 해골물)'를 마셨다는 유명한 일화를 통해 원효가 유심대의(唯心大義)를 터득했다고 알려져 있듯이, 진속불이의 관점이 곧 유심대의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각범혜홍(覺範慧洪, 1071~1128)의 〈임간록(林間錄)〉에 수록되어 있는 촉루수 설화에는, 밤중에 모르고 마셨던 해골 물로 갈증을 풀었는데 다음 날 날이 밝아 해골 물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올라오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이 마음의 조작이라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원효의 해동소가 가장 '탁월' 평가

진속불이의 관점서 기신론을 이해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면 가지가지 법이 없어진다. 삼계가 오직 마음뿐이요, 만법도 오직 식일 뿐이다. 마음 밖에 법이 없거늘 어찌 달리 구할 것이 있으랴. 내 이제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구나."

이와 같은 독백을 한 원효는 끝내 입당을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오고 말았다.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면 가지가지 법이 없어진다(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種種法滅)"란 말은 원래 〈능가경〉에 나오는 말이다. 기신론을 '〈능가경〉을 달리 펼쳐놓은 책(別伸書)'이라 할 정도로 〈능가경〉의 내용과 관련이 많다.

〈능가경〉은 대승불교 후기에 나온 경전으로 여래장사상과 유식사상을 결합시켜 기신론의 내용을 체계화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으로 보고 있다. 삼역본(三譯本)이 있는데 권수가 달라 4권경, 7권경, 10권경으로 부른다. 원효는 자신의 기신론소에서 능가 삼역을 골고루 인용하고 있다. 달마가 처음 중국에 왔을 때 4권 능가경을 가지고 와 법을 폈다 하며, 나중에 혜가를 만나 법을 전해 줄 때에도 의발과 함께 4권본 능가경을 전해주었다 하여, 초기 선종을 능가종이라 부르기도 했다. 〈해심밀경〉과 더불어 유식의 소의경전이 된다.

당신이 중생 위해 눈물 흘릴 부처입니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㊷보살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

有悲心者見貧苦眾生無財可與。悲苦歎息無可為喻。救眾生者見眾生受苦悲泣墮淚。以墮淚故知其心軟。菩薩體淨悉皆顯現。何以故。知其顯現。見苦眾生時眼中墮淚。以是故知菩薩其體淨軟。菩薩悲心猶如雪聚。雪聚見日則皆融消。菩薩悲心見苦眾生。悲心雪聚故眼中流淚。菩薩有三時。一者見修功德人。以愛敬故為之墮淚。二者見苦惱眾生無功德者。以悲愍故為之墮淚。三者修大施時。悲喜踊躍亦復墮淚。計菩薩墮淚已來多四大海水。世間眾生捨於親屬悲泣墮淚。不及菩薩見貧苦眾生無財施時悲泣墮淚。(유비심자견빈고중생무재가여。비고탄식무가위유。구중생자견중생수고비읍타루。이타루고지기심연。보살체정실개현현。하이고。지기현현。견고중생시안중타루。이시고지보살기체정연。보살비심유여설취。설취견일즉개융소。보살비심견고중생。비심설취고안중류루。보살유삼시。일자견수공덕인。이애경고위지타루。이자견고뇌중생무공덕자。이비민고위지타루。삼자수대시시。비희용약역부타루。계보살타루이래다사대해수。세간중생사어친속비읍타루。불급보살견빈고중생무재시시비읍타루。)

번역

자비심이 있는 이는 가난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보면 재물이 없어도 주거니와, 자비심으로 탄식함이 비유할 바가 없습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이는 중생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 자비심으로 눈물을 떨구며, 눈물을 흘림으로써 그 마음이 부드러운 줄 압니다. 보살은 근본바탕의 깨끗함을 모든 곳에 드러냅니다. 어째서 그 드러냄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고통 받는 중생을 봤을 때 눈에 눈물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보살의 근본바탕이 깨끗하고 부드러운 줄 압니다. 보살의 자비심은 마치 구름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구름이 모이면 해가 가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살이 자비심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볼 때 자비심이 구름처럼 모이기 때문에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보살은 세 번 울 때가 있는데 첫째, 공덕을 닦는 사람을 봤을 때이니,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로 눈물을 흘립니다. 둘째, 고통 받는 중생이 공덕 닦음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자비심으로 불쌍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셋째, 큰 보시를 닦을 때이니, 자비심에 기뻐 뛰며 역시 눈물을 흘립니다. 보살이 눈물 흘린 것을 계산하면 사대양의 바닷물보다 많습니다. 세상의 중생은 친척 권속을 잃어 슬퍼 눈물을 흘리지만, 보살이 가난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보고 보시할 때 재물이 없어 자비심으로 우는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해설

경전에는 '일생보처(一生補處)'라는 말이 있다. 보처라는 말은 '대신 자리를 메운다'는 말이다. 그래서 한 생애 동안 부처님의 자리를 메우는 이를 일러 '일생보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생보처는 다음 생에 부처를 이루는 분들이다.

화엄경 〈여래명호품〉에 나오는 말이다. "세존께서 마가다국 고요한 도량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보광명전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셨을 때, 열 세계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계셨으며, 모두 일생보처(一生補處)"라고 기록돼 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의 삶은 곧 부처의 삶이요, 보살의 말은 곧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설한다. 이 말은 당신이 곧 일생보처임을 암시하고 있다. 보살이라는 말이 깨달은 중생을 의미하며, 깨달음을 이루려는 중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깨달음을 실천하려는 중생이기도 하다.

그러니 당신이 바로 지금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 대신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부처님 대신 중생을 위해 눈물 흘려야 할 보살이 아니겠는가.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열려있는 불교처럼

상식이 통하고 기본에 충실하면 탈이 없다. 궤도를 벗어나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난초를 화폭에 담을 때 한 줄기쯤은 꺾여 있는 걸 그리는데 이것을 파격(破格)의 미(美)라 칭한다. 그러하듯 규범 속에 질서만을 강조하면 사람냄새가 사라질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질서는 편한 것이다.

상식이 통해야 사람다운 사람인 것이다. 요즘 성직자라는 그럴듯한 직분을 앞세워 천국을 팔고 양심을 팔고 영혼 장사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성직자 아닌 성직자를 보게 된다. 최소한의 지켜야할 기본덕목마저 팽개치고 끌어당김의 상술을 이용하여 현찰 챙기는 일에 몰두하는 느낌이 없지 않다.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가 기복신앙으로만 치닫는 현 주소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경전은 주입식이나 명령어가 아닌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 토론 문화를 통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마음을 중심으로 짜여진 과학적·인문학적·윤리학적인 내용이 불교 경전만의 자랑인 것이다. 불교의 세계관과 인생관은 창조주의 조화가 아닌 연기법칙(緣起法則) 같은 과학적 논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화엄경〉의 법계연기론(法界緣起論)은 우주의 빅뱅 이전의 모든 존재론적 의문 부호를 명쾌하게 녹여 주고 있다. 한 터럭 속에도 구억의 생명체가 모여 살고(一毛孔中 九億) 한 티끌 속에 시방의 모든 세계가 담겨있다(一微塵中 含十方)는 열린 논리는 불교의 경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과학마저 뛰어넘는 가르침인 것이다.

극락세계도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마음만 열리면 중생이 부처가 되어 발길 닿는 곳, 이르는 곳이 곧 정토(淨土) 세계가 되는 것이다.

열반의 사덕(四德)에서 알리고 있듯이 깨달음을 이뤄 열반(涅槃)을 성취하면 예토(穢土) 그대로 정토(淨土)가 되어 움직이는 것은 모두 아름다운 제행유상(諸行有常)과 일체계락(一切皆樂), 제법유아(諸法有我), 당생정토(當生淨土)를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다수의 수행자들이 무아(無我)와 진여(眞如)를 가리지 못한 채 막연한 희망사항으로 경전 내용을 짜깁기 하는 모습은 생각의 윤회를 가중시킬 따름이다.

불교의 대표적 가르침인 중도사상(中道思想)마저 좌와 우로 기울지 않는 균형과 조화로 받아들여 양변불락(兩邊不落)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제선사가 통쾌하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듯 발길 닿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란 뜻인 수처작주(隨處作主)가 불교의 중도사상인 것이다.

동·서·남·북은 본래 없는 것이다. 내가 머무는 곳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이 갈리며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세계의 주인공인 것이다. 모서리와 변두리가 없는 것, 나의 발길 닿는 곳이 세상의 중심, '마음이 곧 부처요(心卽是佛) 생활 그대로도(生活是道)'이며 '사람이 부처다'는 인불사상(人佛思想)이 중도(中道)의 바른 가르침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열린 종교이다. 구원을 약속해 주는 메시아 따윈 키우지 않는다. 사람이 곧 부처요 이 세상이 곧 극락세계이다. 팔만대장경의 대표적 가르침은 중도사상(中道思想)과 연기법칙(緣起法則)이다. 또한 오온(五蘊),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이다. 다만 사무치게 간절심으로 깨달아야할 것은 무아(無我)에 대한 열린 안목이다. 무아(無我)와 진여(眞如)에서 헤맨다면 진정한 의미의 불교학자도 교수도 선지식도 아닐 터이다.

상식이 통해야 사람다운 사람
수행자는 수행자다운 것이 중요

이쯤에서 상식이 통하는 설법, 기본이 충실한 자세에 대해 언급해보자.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독신 수행승일수록 개운한 모습을 지켜 나가야한다. 머무는 사찰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도량임을 선전하고 현금거래에 치중하는 영험설화를 풀어대는 치졸한 모습은 색깔과 이름만 승려일 뿐이다.

초청 법회의 주최 측에서 내미는 현금이 든 봉투도 아름답게 사양하는 법보시(法布施)를 실천하는 스님이 스님이다. 49재를 돈으로 흥정하는 모습에서 죽은 자의 가족이 되는 심정으로 살피고 배려하는 열린 모습을 보이는 스님이 스님이다. 불교가 열려 있듯 스님도 열려 있어야 스님이기 때문이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색으로 표현한 不二… 인식 지평을 넓히다

禪과 현대미술
⑳ 고타르 그라우브너 (Gotthard Graubner)

거대한 자연은 시간의 흐름을 색으로 보여준다. 자연을 산책하며 마주하게 되는 각각의 색들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무심히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하여 색을 발산하는 자연의 모든 생물들은 색을 통하여 생존한다고 할 수 있다.

고타르 그라우브너(Gotthard Graubner, 1930~2013, 독일)는 자연을 산책하며 많은 색들과 친숙하게 된다. 자연 속에 나타나는 색들은 자신의 존재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색으로 나타난다. 색은 곧 생존이며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연의 섭리이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모든 가치들이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젊은 그라우브너는 자연을 가까이하며 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방식을 찾아가게 된다. 자신의 삶의 공간과 자연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예술의 의미에 대하여 고뇌하기 시작하며 색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하게 된다.

당시 많은 예술가들이 아방가르드 정신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며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는 자연의 변화를 관조하는 일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현대미술의 커다란 변혁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독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며 스스로의 예술세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전통적인 철학, 종교, 예술 등의 가치들이 무너지고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새로운 개념을 찾아가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었다.

그라우브너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선사상이었다. 처음 접하는 선사상은 그에게 많은 번뇌를 가져다 줬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과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깊은 통찰을 하게 된다. 정신과 신체는 공유돼야하며 신체의 행위를 통하여 정신의 깊이와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

정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공간이다. 일상의 공간속에서 정신성을 느끼게 되는 것은 공간속에 존재하는 표현된 색과 입체적 공간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간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작품은 입체적 관계성과 그 색에 의하여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색을 칠하게 되는 캔버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그래서 그의 색에는 따뜻함, 차가운, 밝음과 어두움 등이 공존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신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호흡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호흡이다. 그가 선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호흡이다. 그의 작품에는 호흡이 표현되어 있다. 자신이 호흡을 하며 느끼는 파장과 긴장감, 평온함, 고요함, 적막함 등을 화면에 그대로 표현한다. 또한 자신의 호흡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색을 칠하기 전에 캔버스에 스폰지나, 솜 등을 넣어 부드러우면서 입체감이 느껴질 정도로 두툼하게 만든다. 화면의 상태가 최대한 부드러운 상태가 되면 그 위에 자신이 호흡을 하며 느낀 감정이나 특성을 색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작품 〈Hommage a Tintoretto(1982)〉는 '틴토레토에 존경'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틴토레토는 이탈리아 화가(1519~1594)이다. 그는 종종 과거의 위대한 화가들에 대한 찬사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그들을 위한 존경의 마음을 작품제목으로 명명하여 그 뜻을 이어 받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그가 색과 입체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에 제작되었던 작품이다. 캔버스에 솜과 같은 부드러운 소재를 넣은 입체적 화면에 빨강 계열의 색을 칠하여 밝은 느낌과 함께 따뜻함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예술가를 존경하는 마음을 그는 이처럼 단순하게 색채만을 이용하여 시간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 변화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가치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라우브너는 이처럼 시간이 흐른 시간성에 공간성을 도입하여 자신만의 존재 가치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연친화적 삶서 禪을 만나
호흡하며 느낀 감정들 표현
中道·不二사상, 작품에 담아
개인주의적 모순들 비판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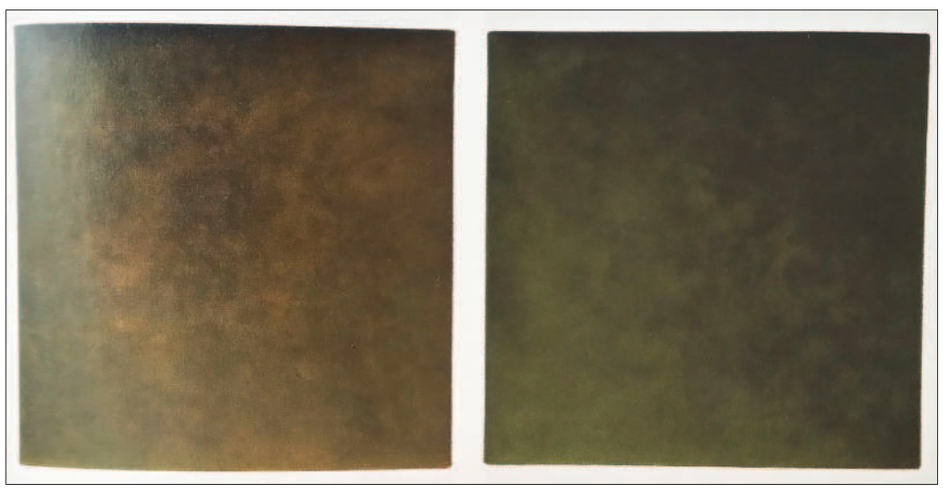
부드러움은 깊은 호흡을 통하여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나온다. 평온하다는 것은 강한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며 또한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다. 즉, 어느 하나의 관점에 치우친 것이 아닌 중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특성들이 바로 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색채의 사용에서 극단적인 화려함이나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 색을 계속해서 겹칠하면서 본래의 강함을 중화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때에 중요한 것이 호흡이다. 자신의 호흡이 거칠어지면 화면에 나타나는 것도 거칠게 느껴진다. 이러한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그는 작품을 하기 전에 자신의 호흡부터 조절한다고 한다.

이 작품은 이러한 작가의 의도와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필자가 이 작품을 독일 쾰른에 있는 현대미술관(Museum Ludwig)에서 처음 보았을 때의 느낌은 평면회화 작품인데 공간성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었다. 보통의 회화작품들이 그 두께가 5~8cm인데 이 작품의 두께는 20cm정도였다. 작품을 보는 관점 즉, 앞면과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느낌에서 많은 차이가 느껴졌다.

앞면에서는 색의 특성들이 강하게 느껴졌다면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 입체감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또한 강한 색채 임에도 거칠거나 강한 느낌이 아니라 부드러운 솜사탕에 색을 입혀놓은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던 기억이 새삼 생각이 난다.



그라우브너의 작품 〈Hommage a Tintoretto(1982)〉은 '틴토레토에 존경'으로 번역된다. 이탈리아 화가 틴토레토를 존경하는 마음을 단순하게 색채만을 이용해 표현했다.



작품 〈Farbraumkoerper-Diptychon(1977)〉은 '둘이 하나인 작품'으로 번역된다. 이는 불이(不二)사상을 작가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arbraumkoerper-Diptychon(1977)〉은 '둘이 하나인 작품'으로 번역할 수 있다. 두 개의 같은 크기의 화면에 약간의 색의 차이를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작품을 설치하였을 때 느껴지는 동일성과 차이성을 보여주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는 불이(不二)사상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분법적, 논리적, 합리적 사고가 지배적인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관점에서 살아온 그에게 불이사상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인식은 그에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성역이었다. 자연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색하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아가는 길에 만난 이 불이사상은 자신의 관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인식의 범주 속에서 그가 택한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방식들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자신의 작품에 이러한 생각들을 접목하기 위하여 그는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작품들을 제작하게 되는 것이다. 둘이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하지만 둘이라고 구분하기에는 모호함이 있다. 그가 이해한 불이사상의 관점이다.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이러한 인식은 당시의 유럽인들에게는 이해불가 한 인식의 범주에 속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슷한 논쟁을 필자가 독일 작가인 우도 클라센(Udo Claassen)과 한 것이 생각이 난다. '음과 양이 둘'이라고 주장하는 우도에게 나는 "원래는 음과 양이 하나이다. 그것이 나누어져서 둘로 표현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1유로 동전을 꺼내 보여주며 "앞면과 뒷면의 모습이 다른데 왜 2유로라고 하지 않고 1유로라고 하는가"라고 말하였다. 그는 잠시 말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더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분법적 논리가 지배적인 인식의 틀에서 불이를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논리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관객들에게 그라우브너는 이 작품을 통하여 비논리적 사고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논리적, 비논리적이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관념적 사고이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관점에서 보면 그 어떠한 것도 관념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라우브너의 작품도 처음에는 이러한 인식의 범주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객들에 의하여 비판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는 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그는 관조를 통하여 이미 간파한 것으로 보여 진다.

화면에 보여지는 단순한 색을 통하여 자연 속에 드러나는 변화의 이치를 드러내고자 하였던 그의 노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질서를 만들어 갔다. 선의 정신성을 그는 단순성, 공간성, 동일성 등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개념들을 화면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아방가르드와 표현주의적 표현들이 범람하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신의 본래적 존재가치를 찾아가는 수행자적 길을 선택한 그라우브너의 예술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인식의 범주를 새롭게 확장시켜주었다는 것이다. 즉, 불이사상을 통하여 타자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적 모순에 인간의 본성을 통한 동질성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예술가는 시대적 흐름을 통찰하여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그 과정에서 예술가는 수행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다시 말해 명예, 권력, 부 등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예술가의 가치가 높아지면 많은 명예와 부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필자가 예술가의 길을 가면서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왜 예술가의 길을 가는가? 왜 수행자의 길을 가는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닐까?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도치료법 1:1 또는 5인이하 실전교육을 상시합니다.
※ 기도 치료는 유사 사이비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 의학입니다.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기도치료는 유사 사이비 대체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에 의한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치료법입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두권 구입 값 43,600원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건강증진은 물론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전문기도치료사만 된다면 노후 걱정은 덜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70대 중반입니다만 가끔 한달에 천만원이상의 수입을 볼때도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011-557-2773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음악에 담긴 진리 찾아나선 '건반의 求道者'



내한한 세계적 불자 피아니스트 임 현 정

오는 30일 비로자나국제선원 10주년 음악회서 특별 공연

'영혼의 자유' 위해 출가 결심도

음악·영성은 연결… 수행과 같아

"오롯이 자신만의 음악을 할 뿐"

16세의 소녀는 목말랐다. 그토록 소원했던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 '최연소 입학'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정신을 다잡고 싶었다. 그러던 중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법륜 스님의 수련회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명상 수행을 하며 접한 불교는 자신이 그렇게 갈급했던 '무언가'를 채워줬다.

평소 어머니가 들려주신 '천하의 양귀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늙으면 아무 소용없다. 아름다움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다. 자신이 추구했던 내면의 아름다움, 영혼의 울림을 불교를 통해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다.

행복과 소유, 경쟁 등이 모두 덧없었다. 물러설 수 없었다. 당장 출가해 스님이 되고 싶었다. 수행을 지도했던 유수 스님에게 출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만류했다. "당신의 재능이면 얼마든지 세상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음악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소녀는 다시 고민했다. 그러면서 '진리를 찾기 위해 음악을 떠나 종교에 귀의한다면 다시 수단에 집착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9월 예정대로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 입학해 건반 앞에 섰다. 그리고 3년 만에 '최연소 조기 수석 졸업'을 거머쥔다.

사찰 행사서 첫 공연 "영광이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이를 찾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그래서 불가(佛家)에 귀의하려고 까지 했던 소녀가 바로 세계적 피아니스트 임현정이다. 그녀는 최근 내한해 DMC 페스티벌에서 클래식 공연, 서울 백병원 환우들을 위한 음악회 등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 먼저 선보였던 자신의 에세이집 〈침묵의 소리〉 한국어판을 10월초 발간하기도 했다.

이번 내한에서 임 피아니스트는 뜻 깊은 불교행사에도 참여한다. 오는 10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리는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 창건 10주년 음악회서 특별 독주회를 갖기 때문이다. 그녀는 음악회서 밀양아리랑 테마로 직접 작곡한 '아리랑 판타지'와 라흐마니노프 프렐류드를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사찰 행사는 처음 참여해요. 불자들에게 제 연주를 들려드리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 기쁩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비로자나국제선원의 기념행사에 참여한 것은 스위스 법계사 주지 무진 스님과의 인연 때문이다. 무진 스님이 한국 사찰에서 행사가 있는 데 참여가 가능한지를 물었고, 임 피아니스트는 한번에 '오케이'라고 답했다.

"무진 스님 말씀이면 저는 망설임없이 해요. 무진 스님이 칼 같은 성격이시라 칭찬을 잘 안하시는데 유독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에 대해서는 늘 칭찬하셔서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공연을 수락하고 보니 자우 스님의 사찰이더군요.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나봐요."

성담 스님의 짓소리와 '콜라보'

임 피아니스트는 영성과의 만남을 중요시 한다. 이는 지난 4월 부산에서 사대산인 성담 스님과 함께 한 '어둠에서 빛으로' 공연에서 잘 나타난다. 불교와 클래식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공연에서 그녀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비창' 등을 연주했고, 연주 사이마다 성담 스님이 짓소리를 했다.

임 피아니스트와 성담 스님의 이 같은 '콜라보'는 해외에서 먼저 알아봤다. 둘의 '콜라보'는 2015년 더블린 피아노 페스티벌에 초청돼 연주된 바 있으며,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환경을 위한 'COP21 24시간 명상프로젝트' 행사에도 상연돼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현지 언론은 "동서양의 만남, 음양의 조화" 등 공연에 대해 극찬했다.

"음악 스승님 중 마에스트로 라비노비치가 계셔요. 이분에게 성담 스님의 짓소리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이것은 큰 보물이다. 외국에도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서양음악은 열정, 환희, 슬픔, 기쁨들을 표현한다면 동양음악은 침묵의 자리에서 빛으로 화현되는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를 음악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어요."

"피아노는 수행과 같아"

임 피아니스트가 말하는 '영성'은 곧 자신의 영혼이 가진 에센스다.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불성(佛性)'이다. 실제 그녀는 피아노를 "영혼의 에센스를 찾기 위한 사공"이라고 말한다. 베토벤, 라흐마니노프에 대해 악보뿐만 아니라 작곡가의 인생, 사상 등을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것은 그녀에게는 구도와 같다. 우리도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고 가르침을 공부하며 부처가 되기 위해 부단히 수행하지 않는가.

임 피아니스트가 추구하는 음악적 경지도 작곡가들과의 '일체됨'이다. 작곡가가 남긴 악보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것을 넘어서 작곡가와 하나를 이뤄 자신만의 소리를 내는 것이다.

완벽히 자신만의 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던 그녀는 음악적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세계적 레코드사인 EMI에서 데뷔음반으로 발매했고, 이를 통해 미국 빌보드 차트와 아이튠즈 클래식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 피아니스트의 목표는 성공에 맞춰져 있지 않다. 오로지 지금 여기, 어떠한 걸림이 없이 자신만의 연주를 하는 것이다.

"음악과 영성은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 베토벤을 공부하다보면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만납니다. 여기서 더욱 몰입하면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음악으로 하나됨을 느낍니다. 비평가들이 뭐라고 하던 상관없어요. 오로지 자신만의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내가 추구하는 절대적 음악을."

신성민 기자



신진환 불화장의 작품 '호랑이 타고 오시는 미륵불.'

2016년 서울에 미륵부처님이 오신다면

신진환 불화장 개인전

11월 8일까지 가나아트서

현대적 미륵불 40점 선봬

미륵부처의 출현을 바라는 미륵사상은 민중불교의 상징이다. 환란과 악정으로 핍진했던 중생들은 미래불인 미륵이 도래해 새 세상이 오길 기원했다. 2016년 대한민국 서울에 미륵부처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 같은 상상력으로 그려낸 불화전이 열린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신진환 작가는 오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가나 아트 스페이스에서 개인전 '2016·서울·미륵부처님 오시다' 전시회를 개최한다.

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현대적으로 해석된 미륵부처님을 그려낸 작품 40점을 선보인다. 그가 한국을 미륵의 출현지로 보는 것은 근현대시기 가장 많은 아픔을 겪은 곳이기 때문이다. 미륵부처가 타고 오는 것이 호랑이인 이유도 우리 민족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미륵불 온다면 무엇을 타고 한국에 오실까를 생각해보니 우리 민족과 친근한 호랑이를 타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호랑이는 민화에서 벽사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아이들과 새, 꽃, 첨단 기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용화세계를 만들 것이라고 상상해봤습니다." (02) 734-1333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삼조승찬신심명'

전통 공예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에 김정호 씨의 '삼조승찬신심명'이 선정됐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제41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심사 결과를 10월 19일 발표했다.

이번 공예대전에는 10개 분과에서 총 316작품 633점이 접수됐으며, 1·2차 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총 132작품 249점의 입상작들이 선정됐다.

김정호 씨의 '삼조승찬신심명'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글자의 획이 힘차고 아름다우며 서법과 각법이 탁월하다"고 밝혔다.



제41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김정호 씨의 '삼조승찬신심명'

신성민 기자

문화재기능인 등록 제5772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검색 | 보리수불교예술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을 검색하시면
보리수 공방으로 연결되고, 보리수 공방의 작업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10.12~2016.10.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바람불면 다시오리라-소설 법정	백금남	샘앤파커스
2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3	참선이란무엇인가	진제대선사	매일경제신문사
4	돌이키는힘(치유하는금강경읽기)	서광	모과나무
5	날마다 새날-불교 명절에 담긴 수행이야기	법륜	정토
6	부처님말씀 따라쓰기	불교방송	비단길
7	깨달음과역사(개정증보판)	현응	불광출판사
8	나를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만공법어)	만공	비움과소통
9	그녀는다시태어나지않기로 했다	조민기	㈜조계종출판사
10	어느수학자가본기이한 세상-조합	강병균	살림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너무 사소해 묻기 망설여 지세요?



불교에 관한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물음 49

장웅연 지음
니나캄 그림
담앤북스 펴냄
1만 3천원

"부처님은 원래부터 곱슬 머리였나?" "사리는 왜 생기나?" "49재는 정말 49일간 지내나?"

절에 다니면서 한 번쯤은 마음속에 품었던 질문들이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어디다 대놓고 묻기는 애매한 것들이다. 절에서 만난 스님들에게 묻자니 왠지 실례인 것 같다. 너무 시시콜콜해서, 너무 무식해 보일까봐 망설여진다. 절에 다니는 지인에게 물어보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글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불교신문〉 기자로 일하는 저자는 이번 책을 통해 불교와 가깝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궁금증에 대해 나름의 해답을 제시했다. 책 제목대로 어디다 대놓고 묻기 애매한 물음 49가지를 가려 뽑고 답을 달았다. 이를 위해 저자는 "각종 경전과 불서를 참고했고 인터넷도 수없이 검색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인맥들에게 전화도 숱하게 돌렸다"고 지난 과정을 술회 한다. 저자의 이 부지런함 때문에 누구나 알기 쉽고, 재미있는 불교입문서가 탄생했다.

그렇다면 저자는 사리가 어떻게 생겨난 것이라고 조사했을까?

저자는 이 책에서 "1995년 인하대 연구팀이 사리 성분을 조사했고 그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다. 전체적으로 뼈와 유사하지만 프로트악티늄과 리튬, 티타늄 등의 광물질이 섞여 있었다. 아울러 사리의 위상을 애써 폄하하려는 쪽에서 주장하는 '담석'이나 '결석'과는 형질이 다르다는 점도 밝혀졌다. 무엇보다 경도가 압권이었다. 사리는 1만5,000파운드의 압력서 부서졌다. 1만2,000파운드에서 부서지는 강철보다 단단하다는 게 입증된 것이다. 오랜 금욕 생활로 정액이 축적된 것이라는 키득거림은 사실무근이다."이라고 밝힌다.

불교에 관한 49가지 문답으로 구성된 이 책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다. 불교에 대한 일상적이고 사소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준다. 이 책은 교과서처럼 불교에 대해 시간 순이나 주제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불교에 관해 누구나 한번쯤 가졌을 법한 의문에 주목한다. '절은 왜 산속에 많지?' 같은 난이도 하급 물음은 물론 '스님들이 애완동물을 키워도 되나?' 하는 다소 엉뚱한 궁금증도 친절히 풀어준다. '무아(無我)라면서 어떻게 윤회가 가능한가?' 같은 상급 의문도 다룬다. 불자든 아니든, 절에 갔다가 혹은 책이나 TV를 보면서 느낀 불교에 관한 다양한 물음과 답을 비빔밥처럼 잘 버무렸다. 불자들에게는 자신의 종교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불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불교를 통해 전해진 우리 역사와 문화의 면면을 새로 알아가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불교계 저명인사들의 생생한 육성을 전한다. 맛깔스런 답변을 내놓기 위해 저자는 때로는 경전에 근거하고 때로는 불교 전문가들의 육성을 그대로 전한다. 현직 기자의 역량을 십분 발휘, '어떤 스님을 큰스님이라고 부르나?'는 의문에 답하기 위해 '진짜 큰스님'께 묻는 식이다. 진짜 큰스님인 경주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전했다.

"내가 입산할 즈음에도 큰스님이란 표현은 지금처럼 보편적으로 쓰였다. 아마도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많은 어휘의 한글화가 진행되면서 백성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정착됐을 것." 스님의 설명에 저자가 참기름 한 방울을 톡 떨어뜨린다. '고승대덕(高僧大德)과 같은 딱딱한 한자어가 정다운 우리말로 거듭났으리란 이야기'라는.

공(空)이나 무아(無我), 중도(中道) 같은 불교사상에 대해 흔히 갖는 오해나 냉소도 쉬운 설명으로 불식한다.

불교에 관한 49가지 문답 자세히 기술
저자, 경전과 인맥동원 발품팔아 정리

"중도의 삶이란 사물의 이면을 볼 줄 아는 삶이며 균형을 유지할 줄 아는 삶이다.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의 원리에 충실한 삶이다. 모든 것은 변화함을 알기에, 과거를 못내 아쉬워하거나 미래를 지레 걱정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또한 독립된 내가 없음을 알기에, '나'를 고집하지 않는 일이다. (중략) 성철 스님의 제자인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은 중도를 통찰하면서 다음의 네 가지를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됐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에 확신을 갖게 됐고, 자주적인 사람이 됐고, 소통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다. 내가 있는 그대로 부처인 만큼 남도 있는 그대로 부처라는 성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과 진정한 배려심이 생긴다는 교훈이다."

짧지만 알차고 재미나 술술 읽힌다. 질문 하나당 짧게는 3~4페이지, 길어야 6페이지에 불과해 읽기 쉽다. 짧은 내용이지만 역사와 경전에 기반한 사실과 저자를 비롯한 불교계 저명인사들의 의견이 적절히 어우러져 읽는 재미가 있다.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니나캄의 밝고 경쾌한 그림도 고명처럼 중간중간 담겨 있어서 보는 즐거움도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사들 나눈 문답 기록… 논리적 문답 위주 해설

조당집 읽기

정영식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5천원



〈조당집〉은 당나라 시대 선의 태동과 전개과정, 선사들의 삶과 일화들을 생생히 보여주는, 세계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전해 내려온 책이다. 이 것은 〈조당집〉에 수록된 중요 문답이나 어구는 물론이고, 여타의 선종어록과 등사 등을 참고해 등장 선사들의 전기와 그들이 남긴 일화나 선어록을 덧붙이고 간략한 해설을 붙였다.

'조사들이 당우(堂宇)서 나눈 문답을 기록한 책'이란 뜻의 〈조당집〉은 중국 오대(五代)의 952년에 정(靜)과 균(筠) 두 승려가 쓴 책이다. 그러나 이후 중국 역사서 감쪽같이 자취가 사라져버려 남아 있는 책도 없고, 읽힌 흔적도 없었다. 이처럼 역사서 잊혀진 〈조당집〉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우리나라의 해인사에서였다. 일제식민시대에 고려대장경 경판을 조사하던 중에 〈조당집〉 경판이 발견돼 그것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조당집〉은 공개되자마자 세계 불교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1900년에 발견된 중국의 돈황문헌에 비견할 만한 중대한 사건으로 회자된다.

왜냐하면 〈조당집〉은 세계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이며, 종래 잘 알려지지 않던 당나라 시대의 선을 생생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연구 성격을 띤 〈조당집〉 해설서인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당집〉에 입전된 조사 253인이 누구인가를 밝혀내었다(과거칠불과 서천 28조는 제외). 〈조당집〉에 입전된 조사들의 표제어는 통일돼 있지 않다. 주로 주석한 산명(山名)이나 당호(堂號)를 표제어로 사용하기는 하나, 때로는 시호(諡號)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운문문언(雲門文偃)의 경우는 '운문 화상'이라고 표기하는데 운문은 주석산명인 운문산을 가리킨다. 반면에 월산사내의 경우에는 시호를 써서 '월산감진 대사'라 표현한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우선 입전된 선사들이 누구인가를 밝혀냈다. 그리고 〈선학사전(禪學辭典)〉과 일본의 〈선학대사전(禪學大辭典)〉 및 중국서 간행된 〈조당집〉을 참고해 각 선사들의 간단한 전기를 작성했다.

둘째, 〈조당집〉에 나오는 중요한 선사들과 그들이 남긴 선문답에 대해서 해설을 붙였다. 그 경우 선사의 전체상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선 각 선사가 중국 선종사서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서술했다. 예를 들어 권1과 권2의 전반부서 다루는 과거칠불과 서천 28조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내용을 다루지 않고, 과거칠불과 서천 28조설이 선종사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 육조혜능의 경우는 혜능상(慧能像)의 변천과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 등 〈조당집〉에 나오는 기록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상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필요한 경우 〈벽암록〉 등을 인용해 설명한다.

반면에 정작 〈조당집〉에 나오는 중요한 문답이나 어구에 대한 설명이 빠졌을 수도 있다. 그것은 선문답의 의미는 다의적인 경우가 많아서 자칫하면 독단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논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문답만을 해석하려 했다.

이 책은 〈조당집〉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에게, 또한 〈조당집〉 전체를 숙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해설서가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좋은 날과 나쁜 날, 판단은 스스로의 마음가짐

온화하게 심플하게

마스노 슌묘 지음/민경욱 옮김
21세기 북스 펴냄/1만 4천원



매일이 반짝반짝 빛나는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강한 날도 있다. 인생도 이와 같아서 즐겁고 좋은 날이 있는 한편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날도 있다. 오히려 그런 날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하지만 즐거움에 휩싸인 하루도, 괴로움이 찾아온 하루도 인생 전체서 보면 똑같은 하루일 뿐. 어제와 오늘을 비교한들 의미가 없다. 그날의 희로애락에 휩쓸리지 않고 하루를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매일이 좋은 날'을 만든다.

비가 오는 날에야말로 맑은 날이 오리라는 것을 믿고 앞을 보고 걷는 것, 바로 매일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날로 만드는 비결이다. 그리고 이토록 소중한 매일을 정중하게 맞기 위해, 당신이 마음에 새겨둬야 할 선(禪)의 문장들이 있다.

선의 문장들은 명확하게 처음 그 말을 한 사람을 아는 경우도 있는 반면 여러 승려의 입을 통해 내려오는 것도 있다. 때로는 시대 변화와 함께 그 해석이 조금씩 변한 것도 있다. 문장의 깊이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기 때문이다. 스님이자 정원 디자이너로서 또 세대와 종교를 넘나드는 인생의 멘토로서 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마스노 슌묘. 그는 심플한 생활방식,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 일을 대하는 법, 자신을 높이는 지혜 등의 주제에 따라 현대인을 위한 삶의 지침이 될 51가지 선의 말씀을 골랐다. 문득 만나게 된 하나의 문장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감정에 지배된 마음을 돌아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인생마저 바꿀 수 있다. 젊었을 때는 좀처럼 와 닿지 않던 말이 지금은 마음에 스민다거나 혹은 깊은 슬픔을 경험함으로써 하나의 말이 분명한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옆 사람에게는 무가치한 말이라도 내게는 보석처럼 빛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받아들이는 사람에 달려 있다.

저자는 선의 문장을 통해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다는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당부한다. 이 책은 하루하루 너무 많은 감정에 휩싸여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가장 솔직한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행복해지는 길을 안내한다. **김주일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대북

◀ 태징

◀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대원 문재현 선사님 82권째 서적 출간!

화엄경6권
화엄경 전자책 1권부터 5권까지 무료 공개!!
신간!
www.zenparadise.com 에 다운로드 방법 공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고,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을 완역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 하신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법성게 3개국어판
신간!
법성게는 한마디로 화엄경의 핵심부를 훤출히 드러내놓은 게송으로 짧은 글 속에 일체 법을 고스란히 담아 놓았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통쾌한 법성게 법문이 한영중 3개국어로 출간되었다.
도서출판 문젠(구, 바로보인) ☎ 031-534-3373

도난당한 日 불상 오른손, 70년만에 발견

국보급 '황금불' 향약사상… 본체 아직 못찾아

도난당한 국보급 불상의 오른손이 70여년 만에 발견됐다고 일본 언론사 '현대비즈니스'가 10월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나라(奈良)에 있는 신약사사(新藥師寺)에 안치된 국보급 불상 향약사상(香藥師像)이 1943년 도난당한 이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 향약사상의 오른손이 70여년 만에 발견되어 일본 불교계와 고고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향약사상은 일본 하쿠호(白鳳) 시대(645~710)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황금불(黃金佛)로도 불릴 만큼 불상 조각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이 불상의 오른손을 찾는데 크게 공헌한 인물은 前 신문기자인 키다 마사코(貴田正子) 씨다. 키다 씨는 '산케이신문(產經新聞)' 기자로 재직할 때 도난당한 향약사여래상을 취재한 일을 계기로 불상의 행방을 추적해왔다.

2002년 기자직을 그만 둔 후에도 독자적으로 조사를 계속한 그는 신약사사의 주지 스님과 관련 인물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끝에 불상의 오른손을 봤다는 인물과 극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이만남이 결정적인 단서가 돼 불상의 오른손을 발견한 것이다.

불상 오른손은 도쿄문화재연구소로 보내져 과학조사를 거친 결과 하쿠호 시대 금동불임이 틀림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이 발견을 두고 도쿄예술대학 명예교수이자 일본조각사연구의 권위자인 미즈노 케이자부로(水野敬三郞) 씨는 "오른손의 발견은 미술사적으로도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이 오른손이 무사히 보존돼 있었단 사실 자체가 정말 놀라울 따름"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현대비즈니스' 보도에 의하면, 이 향약사상은 지금까지 총 3차례 도난당했다. 도난당한 이유와 다시 되찾게 된 사건도 실로 드라마틱하다.

8세기 이후부터 신약사사에 안치된 이 불상은 병을 치유하는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다.

많은 중생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게 한 이 불상이 도난 사건과 만나게 된 발단은 메이지 시대(1868~1912)에 들어서 국보로 지정되면서였다. 국보로 지정된 불상이 일본 전역에 널리 알려지자 방문객들이 늘어났고 '황금불'이란 별칭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불상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풍문이 떠돌았던 것.

이로 인해 메이지 시대에만 2번의 도난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 2번 모두 불상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사실을 안 도둑들이 길가에 버렸기 때문에 되찾을 수 있었다.


메이지 시대(1868~1912)에 국보로 지정된 향약사상.

메이지 시대에 국보로 지정돼 '100% 순금' 소문에 도난 빈번 도둑들, 길에 버려 되찾았지만 1943년 3차 도난 후 행방묘연

그러나 두 번째 도난사건을 당했을 때 범인은 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불상의 오른손목과 양쪽 발목 등을 절단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 당시 경찰과 주민들은 잘려나간 불상조각들을 찾아내기 위해 며칠 동안 근방서 수색작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향약사상의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3년 3월, 불상은 3번째 도난을 당하고 말았다. 불상이 도난당한 후 발견된 것은 떨어져나간 오른손 중지 끝마디뿐이었다고 한다. 이 마지막 도난사건 이후 현재까지 불상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채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형법상으로도 공소시효가 지나 이 도난 사건은 결국 수사종결 상태가 되고 말았다.

지난 20년간의 추적 취재 끝에 향약사상의 오른손을 찾아낸 키다 씨는 "불상의 흔적을 추적하는 동안 불가사의하다고 여길 만큼 놀라운 인연의 연속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불상의 오른손을 찾기까지 실로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향약사상의 본체는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다. 키타 씨는 오른손을 발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머지 불상 전체를 찾아내기 위해 조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키다 씨는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여 〈향약사상의 오른손〉이란 제목의 저서를 출판할 예정이다. **주성원 객원기자**


지난 10월 6일 태국 승려들이 탐마삿대 학살 4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천도재를 봉행했다. 사진출처=AP통신

"억울하게 죽은 학생들, 편히 잠들길"

10월 6일 방콕 탐마삿대서 '학살 40주년 합동천도재'

태국 승려들이 40년 전 군부세력에 의해 죽은 수 십 명 학생들의 넋을 위로하는 현장에 사부대중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온라인 매체 'spartan echo'는 10월 13일(현지시간) "지난 10월 6일 태국 승려들이 탐마삿대 학살 4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천도재를 봉행했다"고 보도했다.

'탐마삿대 학살'은 싱가포르로 축출됐다 1976년 귀환한 독재자 타놈 키티카촌(Thanom Kittikachorn)에 항의, 방콕 탐마삿 대학서 평화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군부가 학살하고 동네 자경단이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다.

비극적 사건에도 불구, 2014년부터 정권을 잡은 군부는 현재까지 사건을 언급하길 꺼리며 공식 집계상 사망자를 46명이라고 축소 발표했다. 특히 가해세력 중 처벌받거나 법정 심판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현재까지 군부의 폭력행태에 대한 처벌 전례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서 병폐가 심각하다.

또한 지난 2010년 민주화 시위서 과잉진압으로 사망자 92명 · 부상자 2000명 내는 등 군부의 억압적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40주년 추모행사서 연사로 초청된 민주화 운동가 홍콩인 조슈아 왕이 태국 정부에 의해 공항에 억류되기까지 했다.

현장에 참가한 생존자 수라찰트 밤룽쑥 前 학생회장은 "민주화를 위해선 군부의 영향력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만약 군이 경찰을 계속 지배한다면 민주화는 절대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솜킷 럿패쏜 탐마삿대 총장은 "정부선 사건을 은폐하려 하지만 탐마삿대는 학생들에게 학살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생존자를 학교 직원으로 기용하는 등 '역사바로잡기'를 진행 중"이라며 "젊은 세대들이 선행해 올바른 역사를 공부하고 있으니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희 기자**

베트남 청소년 불자들, "개 식용과 동물학대 멈춰라"

베트남불교위원회, '개 식용 반대' 캠페인 열어
불자 청소년 및 부모들 100여명 거리로 나서

베트남 불자 청소년 및 그들의 부모 100여명이 모여 '개 식용 반대'를 주창했다.

베트남 언론 'VNExpress'는 10월 17일(현지시각) "약 100명의 청소년과 부모들이 16일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에 모여 개 식용 사업과 동물학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며 베트남불교위원회(the Buddhist Sangha of Vietnam)에 의해 조직된 이 캠페인에 대해 보도했다.

'개 식용과 동물 학대를 멈춰라'란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대부분 15세 이하 청소년으로 알려졌다. 참여자들은 오전 8~10시 노래하고 춤추며, 곳곳서 슬로건을 외쳤다. 등 뒤에 붙인 동물학대 모습이 담긴 사진은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특별히 준비됐다.

특히 어린이들은 그림을 통해 동물학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코뿔소의 뿔은 우리의 손톱과 같다", "우리 행성을 함께 보호해주세요" 등 삐뚤빼뚤 적힌 아이들의 글씨가 어른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효과적이었단 후문이다.

'VNExpress'는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된 이번 행사는 거리를 따라 행진하며 매우 평화롭고 이상적으로 진행됐다"며 "편안한 분위기 때문에 산책하던 많은 가족들도 함께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튜 동(Tue Dong) 베트남불교위원회 대표이자 행사 기획자는 "우리는 매주 다른 주제의 캠페인을 열고 있다"며 "현대사회서 외면받고 있는 환경 · 자연 · 동물 등의 중요성을 널리 제고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베트남불교위원회는 10월 16일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서 '개 식용 및 동물학대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출처=VNExpress

베트남불교위원회가 사회문제를 다룬 캠페인을 연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직전 캠페인은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었다.

한편 아시아 개보호연합에 따르면 베트남은 매년 최소 500만 마리 개가 죽어가며, 중국에 이어 세계서 2번째로 가장 많이 개를 식용으로 소비하는 국가다. 아울러 지난 6년 간 세계서 코뿔소 뿔이 가장 많이 불법 거래된 국가기도 하다. **박아름 기자**

"내 음악으로 치유된다면 그것으로 충분"

네팔 아니 초잉 돌마 스님, 보수세력 비판에 반박

비구니 스님이면서 뮤지션으로 유명한 인물이 있다. 바로 네팔의 아니 초잉 돌마(Ani Choying Drolma · 사진) 스님이다. 그는 네팔에서 불교의 아이콘임과 동시에 유니세프 친선대사이면서 네팔의 여학생들과 신장질환 환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다.

45세의 네팔 카트만두 출신의 비구니 스님은 보수 세력에 저항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저는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갖는 보수적인 승가계의 입장을 반대합니다."

아니 초잉 돌마 스님은 세계적인 가수 푸르부 T 남걀, 암촉 곰포 돈덥, 융첸 등과 연주를 했으며 15장의 앨범을 발표했다.



하지만 네팔의 보수 승가 집단은 그가 12년간 음악활동을 통해 부와 명상을 축적해 소박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한다. 수리야 샤카족 스님은 "비구니가 자신의 목소리를 팔아 돈을 버는 행위가 과연 성직자로서의 삶으로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돌마 스님은 "수익금은 교육자선단체와 신장병원 운영에 쓰인다"며 "비구니 스님이 항상 가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 음반을 통해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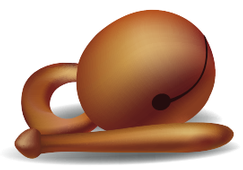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내어 오욕락을 탐하지 않으면 곧 신심의 힘을 성취할 것이니, 이것을 견고한 믿음이라 한다.

– 광박엄정불퇴전륜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비구니스님, 수계보살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정신분열,정신이상,
빙의,환청,환시,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정암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529-1076
010-9944-1075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배우자 관상을 보면 몇 살째 어디 질병이 있는지, 죽음까지 알 수 있다
– 암, 질병, 묘터, 교통사고, 이혼을 얼굴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관상과손금 비밀이야기(판매중)
010-4014-8822

EST 기치료센터
기치료 과정
최면상담사 과정
사주, 육효, 철학상담사과정
각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업하고자하는분,공부하였으나자신이 없는분,관심은있으나배울기회가없는분)
EST 기치료최면센터
010-6666-2733

파동명상요법
병원에서 병명이
안 나오는 분. 빙의,
영가장애로 고통받는 분,
우울증 등 심인성 질환자
041-555-0374
주지스님 찾으세요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연화사)
010-5269-4168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5960-4984
지리산 현담

알립니다
법당,신당 퇴불 및 철거 전문업체
불교용품 일체 취급
법당, 신당 제작 설치
사찰 중개도 합니다
불교용품 다 사고 팝니다
010-2001-0089
010-3200-0091

태극기문명리
(기문둔갑 명리비법 작명
영가작법 계의신결 팔괘법)
실전통변 완전정복
부경대학교교육원 전임
태극기문학회
051-949-1234

사주학 제10기 모집
• 교육과목 : 사주학, 매화역수, 성명학
• 초급반 : 사주명리 왕초보자,
• 실전반 (통변반) : 질의 / 응답식 강의
• 강사 : 정인스님
010-4047-0134
(서울 광진구 구의동)

건강장수비결(공개)
최고영양공급,건강증진,
체력보강. 당뇨에 탁월한
국내산 식품신고 603호
현미쌀눈 500g 3만 5천원
010-8561-8253 보건식품처방사
농협 187-02-274348 이청하
알미늄 포장이 아닌것은 불량식품임

?고민 해결의 지침서
당신의 어떠한
고민도 해결 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
010-7732-3267
농협 302-1030-1238-01 배종영

불교용품 점포하실분
부산 사하구 당리동
탑마트 정문앞
17평 2천만원 월30만원
현재영업중, 권리금 없음
010-2953-8770

문두루 기도법?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후계자를 찾습니다
35년간 수행해온 모든 것을 다 전수 받을 수 있는 후계자를 찾습니다
(스님이나 스님이 되고 싶은 사람)
"1차 전화 상담후 면접"
063-832-0108 / 010-6513-4771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근무지역 : 부산
급여 및 근무조건 : 면접시 협의
연락처 : 051-742-7610(종무소)
조건 : 불교신도, 유경험자
나이 : 40 ~ 60대
좋은인연으로 신심있고 성실하게 임하실 수 있는 분 환영합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0-3746-88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0-8559-9400

출가 1~ 2년차
비구니 부전스님 모심
(의식, 집전 공부하면서)
지역 : 울산, 안동 (지장정사)
울산 010-3858-0306
안동 010-6475-3439
※출가를 원하는 비구니 행자도 모심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걸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
공간내 행동이 자유롭고 흡입력이 좋은 마이크를 만들겠습니다. 이정도면 잘 나온다며 종교인의 심리를 이용하지 않고 재공사로 마음에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제10-1317539호)
010-4440-86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김해)
010-3858-921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7311-533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 김해 사찰)
010-3871-3000

능력있는 법당 같이 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인천)
010-8300-9679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영남 범음 범패 학인모집
대상 : 비구 · 비구니 스님
현, 무형 문화재스님 직접지도
교육원 위치 : 부산 중구 보수동
문의처 (수시로 접수함)
김해지역 010-5687-9089
양산지역 010-9340-9674
제주지역 010-4136-8734
창원지역 010-4547-1117

대한불교조계종 본사 대웅전
기도 스님 모십니다
사시만 기도, 조석예불 안함
보시는 면담 후 결정
010-9043-313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같이 오래 수도 생활 할 수 있는 참신하고 공부하는 기도 스님 모십니다
010-9023-9833

포교원 할분 조건좋음
부전 일할분 쓰실분
철학 작명 뜻 있는분
010-5381-1419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소부
☎ 011-356-3427(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한국최초!! 내손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
(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해 드립니다.)
동영상 CD(외장하드)를 함께 드리며 화상강의도 가능합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육임이 보인다. 공념 著 / 4×6배판 / 정가 70,000원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보시는 세상의 양식이 되거니 반드시 궁극적인 곳으로 가게되리라. 착한 신장이 언제나 그를 돌보고 또 언제나 기뻐하네.

- 증일아함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탁트인 바다 전망과 전통목조 사찰◀
- 위 치 : 진해구 용원동
- 총부지 : 240여평. 1만여세대 대단지 아파트
- 건물 : 목조법당(25여평), 요사채, 목조산신각(7여평)
- 가액 : 6억 5천만원

▶ 백두대간 격조높은 사찰◀
- 위치 : 강릉
- 총부지 : 2000여평(100%가용), 버스 진입 가능
- 건물 : 목조건물 5동(대웅전 25평) 산좋고, 물좋은 고장(계곡물 철철)
- 양도가액 : 5억 3천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경기도 안성 사찰 추천 급 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요사채 등, 토지 1000㎡
- 법당 뒷편이 산이며 조용하고 아늑함 스님 건강상 부득히 양도하심
- 양도가액 : 2억 5천만원, 조정가능(융자있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북
◎ 부지 : 80평 ◎ 부지 : 2000평
◎ 법당 : 40평 ◎ 인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요사 : 60평
◎ 양도 : 8억2천 ◎ 양도 : 2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 총부지 : 183평
- 건물 : 60평
- 법당,요사채(방4개),화장실2개
- 정원,주차장 위치 좋은 암자
- 매도액 : 몽땅 2억 2천

직통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예천사찰(급)안내

- 법당, 요사채 94㎡
- 토지 440㎡, 주차가능
- 위치좋음, 마을에 위치
- 깨끗하며 조용함. 안정된 마을 사찰
- 가액 : 1억 2천만원(융자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서울연락처: 010-7347-1010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직접 방문을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 및 상담
- 전국 매물 수백건 보유/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70-8145-9393

서울 포교원 안내

- 위치: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 지하철역5분거리/버스정류장앞
- 총 236.29 ㎡ (약70평/도시가스/상업용전기)
- 신중, 산신, 영가단, 법당
- 주방, 방5, 화장실2
- 가액 보3000만/월170/시설비없음

070-8154-9393(포교원전문)
010-3426-9393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청평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 3개, 욕실2개, 거실, 주방 (큰방 1개, 작은방 2개중 1개는 구들방)
- 난방 : 석유 보일러
- 실내에 패치카 있음(화목보일러 사용가)
- 가액 : 2억 4천만원

010-9411-5302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173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8평
- 가액 : 2억 2천만원

010-2376-5411
041-557-7786

아름다운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
- 요사채1동(25평), 법당1동(33평)
- 정자(원목), 가로 5m 세로 3m
- 총평수 300평
- 가액 : 2억 5천(은행융자 5천 포함)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람

010-3889-7141
주지스님

다용도 주택 안내

- 위치 : 경기 양평 신복리 뒤는 산, 앞은 옥천시내 아신역에서 차로 5분거리
- 정남향(대지 257평 건물 40평) 지하암반수 마당 넓음,터와 주위에 약초 많음 (용도 :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등)
- 마당에 별채 6평
- 가액 : 4억 8천(실입주금 3억) 전세도 가능

010-4234-253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화명동 (요지)
- 3층건물의 3층
- 법당, 공양간 약 60평
- 깨끗한 시설 완벽 (소임관계로 급 양도)
- 가액 :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신설공사비) 1800만원 (절충)

010-3582-89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 대지 : 2,103㎡
- 법당, 요사 약 100평
- 창고, 기타 약 15평 외 20평은 기초공사 완료
- 석등 외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7억 5천만원

010-5518-6606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산속 솔밭 속 사찰
- 대지 670평, 가건물 5동
- 매실나무 350그루 외 다양한 유실수 보유
- 건강 관계
- 가액 : 2억 8천만원

010-6656-8117(주인직접)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 건물, 목조한옥, 원룸형 10.5평
- 부지 82평, 전 221평 (추가필지)
- 2차선 도로에서 200M
- 계곡물이 흐르고 도로 끝 지점
- 가액 : 9천만원

010-8562-448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해도동
- 약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 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3723-0777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시설비 금액은 1,600만원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010-9902-3969

(급)암자 같은 포교원 안내

- 경북 고령군 시설특 A급 몸만 오시면됨
- 법당1,삼존불 완비, 스님방1,거실1, 주방1,옥실1,창고1,원두막1, 보일러실 별도, 마당 넓고 조용한 한옥단독주택 약 25평이며 주변 주차공간 많음
- 비구니스님 오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 가액 :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약간있음,보시고 결정
- 외국 유학 관계로 급 양도

010-5807-245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45평, 건평 92평,
- 4층 건물 1층 33평(법당), 2층 24평, 3층 20평 4층 15평
- 건물 : 철근 콘트리트구조 산밑 아담하고 조용한 곳

010-5931-1071

사찰,암자,선방부지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 평수 : 약 2,300평
- 지목 : 계획관리지역 + 보존임야
- 특징 : 조용하고, 전망과 조망이 좋고 투자성으로 매우 좋습니다. 주인직접
- 가액 : 2억 3천

010-2215-3657

사찰 및 요양원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저수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망최고의 명당터
[사찰] ● 1층 30평 천불상 관음궁전
- 2층 25평 삼존불 및 지장보살 소불 130불 요사채 45평(황토방1, 큰방3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입소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
- 가액 : 17억 5천
- 월수입 약 4천만원(원장 건강상 급 양도)

010-9567-0813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진악산
- 대지 444평, 법당 27평
- 요사 28평, 임야 171평
- 깨끗하고 주차장 완비
- 진악산 밑 조용하고 아늑함
- 가액 : 2억 7천

010-3401-6356
010-4355-635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15번길 17 (거제시장 안쪽 통닭골목)
- 3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주방, 욕실,창고 등 보신후 결정
- 가액: 보 5백만원, 월 60만원 (60평 정도됨)
- 시설비는 보신 후 결정

010-8385-2447

토 굴 안 내

- 지리산 청학동, 산중턱 위치 차량주차 후 20분 산길 거리
- 완전수행도량, 약 800평
- 황토건물 4동, 법당, 삼존불, 각각 군불(재래식 난방)
- 꼭 수행하실분만 연락요망
- 가액 : 2억

011-9206-8464

포교원(급)안내

- 위치: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 1호선, 동묘역 2번, 3번 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가격 절충, 시설비 1,600만원

010-3722-27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 토지 : 대지 200평, 답 760평
- 건물 : 45평 (후불탱화, 지장보살 봉안)
- 방향 : 남향
- 야산에 위치한 아담하고 조용한절
- 전기, 전화, 인터넷 가능

010-2831-8573
(주인직접)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도심 속의 아담한 암자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121-11번지
- 건물 : 단독 주택
- 가액 : 7500만원 대출 + 1억 1천 5백만원 합 가액 : 1억 8천 5백만원 (절충가능함)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010-7188-7723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진악산
- 대지 444평, 법당 27평
- 요사 28평, 임야 171평
- 깨끗하고 주차장 완비
- 진악산 밑 조용하고 아늑함
- 가액 : 2억 7천

010-3401-6356
010-4355-635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미아 4거리 부근
- 법당 30평, 공양간 약 4평
- 방 4개(대 2, 소 2) 화장실 2개(대1, 소 1) 창고 약 4평(대1, 소 1)
- 3층건물 3층
- 관리비(전기료 수도료외 없음)
- 가액 : 보2,500만원 임차료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6396-6916

멋진2층전원주택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 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밀양IC 얼음골 바향 15분 거리
- 잣나무 숲과 계곡의 완벽한 환경
- 총면적 1,678평중, 대지 328평
- 2층 건물 1층 명상홀 및 요사 59평 2층 대웅전 24평 ● 가액 : 6억
- 대나무숲속 삼성각 4.5평 별도 요사채 28평과 창고 20평
- 원통문 수월관음, 연화탑,포대화상 등 석물 농지에 사과나무 220주 호두나무 40주

010-4895-2050

사 찰 안 내

(시세이하 급 안내)
- 위치: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입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격 협의 가능(현지답사후 협의 요망)

010-8014-7707
010-3832-715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합천 무학동굴 앞 대지 및 전원주택 매각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2번지
- 대지417평(1,379㎡), 건물(전원주택)44평(147.36㎡)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8번지
- 임야 211평(699㎡)
- 특징 : 합천무학동굴은 조선시대 왕사인 무학대사가 어린시절 수련하였던 동굴이며, 동굴에는 무학대사가 숟가락으로 팠다는 샘이 있다(경남문재재연구원의 합천무학대사 유허지 발굴 보고서 및 합천향토문화지 등에 기록)고 강숙자 보살이 무학동굴앞 부지를 매입하여 1999년부터 무학동굴을 관리하고 있었다.(건물은 2008년도 신축함)
- 가액 : 4억

010-2078-959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586
- 목조 법당 25평, 요사콘크리트 슬라브 50평
- 심야보일러, 전 다소
- 가액 : 3억 5천만원 전세가 6천만원

010-5780-1415
033-762-249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내
- 4층 건물 중 2층 40평
- 삼존불 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

010-8758-1313

암자터 및 전원주택 부지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 자연경관 수려하고 삼면 소나무 숲
- 전기 자연우물 유 (지방국도 물고 있음) 1,300평
- 가액 : 9,500만원

부산 010-3868-7435
거창 010-4661-7734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대지 : 69평
- 1층 : 27평(방3칸, 공양실, 요사)
- 2층 : 25평, 법당, 스님 친견실
- 삼존불, 각단 탱화, 법당시설 완벽
- 종무소 : 3평 도시가스, 주차가능
- 가액 : 4억 5천

010-7311-5335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IC에서 15분거리
- 부지 187평, 건물 30평, 부속건물 17평
- 도지세 년 15만원
- 가액 : 9천 5백만원

010-7765-272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2동
- 대지 41평, 건평 19평
- 방4, 단층 스라브집, 정남향집 공기 좋고 아늑함
- 가액 : 1억 1천 5백만원 융자 삼천만원 안고 팔천오백만원에 매입

051-852-1810 주인직접
010-3598-5470

암 자 안 내

- 위치 :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 內
- 장군봉, 임금봉, 신선봉, 천왕봉, 문필봉 동학사를 바라보며 앞쪽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좌측에는 신도안의 기운이 뻗치는 위치에 자리한 백만불의 조용한 암자
- 인연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곳
- 가액 : 18억

010-9228-6747

사찰안내 또는 전세

- 위치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586
- 목조 법당 25평, 요사콘크리트 슬라브 50평
- 심야보일러, 전 다소
- 가액 : 3억 5천만원 전세가 6천만원

010-5780-1415
033-762-2494

다 용 도 건 물

- 위치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 해발 500, 국유림내 본채 건물 40평 사랑채 20평, 대지 456평
- 한적한곳, 본채 건물 완전 올 수리, 도로 양호
- 지방도 약 500M, 최고의 위치라고
- 가액 : 9,500만원

010-8899-8899
010-7621-76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들길 85-5
- 대지 200평, 건물 2동, 아미타 지장
- 가액 : 8천 5백만원

010-7796-9856
불문스님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마당 잔디. 조경 전망 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 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 7천 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8억 6천만원)
- 불사 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세, 물, 공기 좋은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 130평
- 법당, 요사채 후원, 실외화장실
- 텃밭 무한정 사용가능
- 가액: 1억 6천만원

055-972-033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왜관읍 2번 도로길 60번지
- 2층, 40평, 법당, 삼존불
- 방,사무실,주방,에어컨3대 옥상(창고로 사용가)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1,000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4813-51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안양시 만안구청 근처, 명학역 도보 10분(명학시장 2층)
- 평수 : 약 42평
- 시설 : 삼존불 외 완비(주방 침실 욕실)
- 가액 : 보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없음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10-5495-4678
031-441-4678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토마스 비엔 · 비버리 비엔(명상 지도자)

〈4〉 일기 쓰기

종이 위 치유의 세계… 자기 내면과의 만남



고통스런 감정 해결 시도

삶의 곤경이 닥칠 때 우리는 약물에 의존하여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들 시도는 모두 우리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약물 남용의 이면에는 긍정적인 치유 의도가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약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괴로워하는 자신의 마음에 치유와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해서다. 우리가 파괴적인 행동 의도를 품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무언가 '좋은 일'을 하려고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다.

당신은 이제 약물 사용이라는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향후의 전망을 상실하거나 감정의 홍수에 떠밀리지 않도록 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때 도움 되는 여러 가지 수련법이 있다. 치유 과정에 들어서는 방법은 다양하다. 때로 가족과 선생님, 치료사, 친구 등 깨어 있음과 평화, 안정감을 지닌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도 언제나 당신 곁에 있어줄 수는 없다. 이에 당신은 언제나 곁에서 당신의 말을 들어줄 친구가 필요하다. 그 친구가 바로 당신이 쓰는 일기이다.

일기 쓰기는 너무 간단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 마치 호흡을 자각하는 명상법이 더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보이듯이 말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붓다는 호흡에 대한 자각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마찬가지로 일기도 그저 종이 몇 장에 쓰는 글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지만, 종이에는 치유와 도움의 온 세계가 들어 있다. 그것은 당신을 마음챙김의 영역으로 데려다주는 완벽한 스승일 수 있다.

불교인들은 승려 등 불교 지도자가 주관하는 법회에 참석할 때도 마음으로 자기 내면의 붓다와 접촉하고 있다. 불교인이 법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법문에서 하는 말과 가르침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지혜의 원천을 찾아 듣는다. 불교인들은 지금 자기 앞에서 법문하고 있는 스승에게 자기 내면의 붓다를 투영한다.

우리가 글을 읽고 법문을 듣는 이유는 학문적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들의 참된 목적은 자기 내면의 신과 접촉하는 데 있다. 일기 쓰기라는 수련법이 강력한 효과를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기장에 걱정을 쏟아내라

자신의 일기장을 연금술에서 사용하는 그릇으로 생각하라. 일기장은 자신의 경험이라는 원재료,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라는 원재료를 담는 그릇이다. 경험과 문제라는 원재료를 그릇에 담았다면 이제 알아차림, 마음챙김이라는 열을 가한다. 만약 현명하지 못한 이라면 일상의 경험과 고난이라는 원재료를 그저 쓰레기로 간주할 것이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되도록 빨리 제거해야 하는 쓰레기 말이다. 그러나 이처럼 삶을 회피하는 태도는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게 마련이다. 영적 수련은 약물 남용처럼 삶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적 수련은 자신의 변화(transformaion)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즉 영적 수련은 일상이라는 원재료를 지혜와 평화,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부정적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다면 당신의 변화 과정은 온전한 변화라 하기 어렵다.

일기를 쓸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실제로 일기를 적을 일기장을 마련할 차례다. 일기장은 당신 마음의 변화라는 연금술을 일으키는 그릇이다. 그렇다면 일기장을 고르는 과정도 정성스럽게 깨어 있는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느껴지는 일기장을 직감적으로 고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서점이나 문구점에 가서 일기장을 구입하는 일 자체를 신성한 의식(儀式)으로 여겨도 좋다. 이때는 일기장 구입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다. 오직 나의 변화가 일어날 '그릇'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문구점으로 향하라. 평화와 자신감, 긍정의 느낌을 일으키는 일기장이 있는지 살펴보라. 그런 다음 하나를 골라 구매한 다음 집으로 돌아오라.

이제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걱정거리가 있는지 살펴본다. 인간관계에서 걱정 되는 부분은? 직장에서는 문제가 없는가? 자녀 양육이나 가계 상태는?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가? 무엇이든 마음에 떠오르는 내용을 적어보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자기 안의 걱정을 쏟아내더라도 그저 부정적인 내용만을 재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교 경전에는 "몸에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느낌에서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을 유지하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뚝 떨어져 있지 말고, 감정 안에 있으라는 말이다. 화가 나는 순간에는 내가 곧 화이다. 그러나 감정에 빠져 길을 잃은 채 자신이 감정보다 '큰 존재'임을 잊어버린다면 이것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음챙김은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뚝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다고 감정에 푹 빠진 채 허우적대는 것도 아니다. 마음챙김은 이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다.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감이 오지 않을 때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면 마음은 오히려 그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떠올리고 그걸 파고들겠다고 작정한다 해서 마음이 저절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마음의 성향을 역이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반사 심리(reverse psychology), 쉽게 말해 청개구리 기법을 이용해 보라.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며 이렇게 말해보자. "지금 이대로 내 삶은 더 없이 완벽해." 이 말을 진짜 사실로 믿으라. 이렇게만 해도 걱정거리가 더 쉽게 의식될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해도 걱정거리가 떠오르지 않는가?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다.

> **일기는 단순한 글씨기를 넘어**
> **당신 곁에서 말 들어줄 친구**
> **일기에 실패경험 기록하면**
> **현실 직시해 영적수련에 도움**

마음챙김 수행을 처음 접했다면 이제부터 자각하고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 갑자기 많아졌다고 느낄 수도 있다. 또 매우 힘든 영혼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도 당신은 걱정거리가 매우 많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걱정거리를 한꺼번에 다룰 수는 없다. 그런 시도는 오히려 좌절감만 키우고 만다. 그렇게 되면 일기를 쓰더라도 치유적인 효과를 낼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일단 당신이 갖고 있는 걱정거리들을 모두 열거해보라. 그중에서 당신이 지금 가장 알아차림을 가져가기 원하는 걱정이 있는지 보라. 혹시 그 걱정이 당신을 완전히 압도할 정도로 힘겹다면 다른 걱정을 택하라. 지금 다룰 수 있겠다고 느껴지는 다른 걱정거리에서 시작하라.

감사하는 마음에 집중하기

삶은 배움의 경험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는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 배움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에서 달아나고 싶어 한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문제로부터 달아나는 주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중독이다. 만약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어 있는 마음으로 자각할 수 있다면, 중독의 과정은 지속되지 않는다.

최근 심리학계에는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면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부인하지 말라는 조언이다. 사실 부인(denial)이란 있는 그대로의 실재(reality)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성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다.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다. 먼저 일기장 맨 위에 '오늘 고마웠던 일'이라고 제목을 적는다. 그 다음 그날 하루 감사했던 일을 써내려가기만 하면 된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오늘 하루 감사의 마음을 느꼈던 일을 남김없이 적어본다. 이렇게 하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성을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적어온 일기를 다시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면 장기적인 자기 삶의 경로와 방향성을 전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정 주제가 있듯이, '당신의 삶'이라는 소설에도 중심이 되는 주제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당신은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중심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앞의 삶 이야기(life story)에서 다루었던 '반항'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수도 있다. 당신이 쓴 일기에서 '반항'이라는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이제 '조화 혹은 협력'이라는 주제를 떠올려보라.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협력적으로 일했던 때를 떠올려보라. 동시에 타인과 협력하는 부분을 더 진작시킬 수는 없을지 생각해보라.

일기는 점진적이긴 해도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조금의 인내심을 갖고 일기를 쓴다면, 당신은 지금껏 쓰레기라고 여겼던 것을 아름다운 꽃으로 바꿀 수 있다. 또 약간의 인내심을 갖는다면, 당신은 붓다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붓다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뚝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비 오는 날

비가 내린다. 빗방울 하나에 모두 젖는 날이다. 길이 젖는다. 길 젖으니 멀리 있는 것들 그립다. 잘 있겠지. 나뭇가지도 젖는다. 계절 다한 나뭇가지 비에 젖으니 지나간 것들 아쉽다. 어쩔 수 없겠지. 하늘도 젖는다. 젖은 하늘 바라보니 죄목만 가득하여 법당에 향 한 자루 피워본다. 어림없겠지. 비가 내린다. 빗방울 하나도 무거운 날이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나쁜 말 ㊦

입이란 도끼가 짓는 죄

하늘은 푸르고 공기는 청량했다. 잔디밭 위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2천 원짜리 김밥에 콜라를 마시면 딱 좋을 날씨였다. 공원에는 점심 식사를 마친 회사원들이 커피를 마시며 가을볕을 쬐고 있었다. 이런 날은 벌이가 좋았다. 회사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색깔부터 달랐다. 은성이는 레퍼토리를 바꿨다. 최백호에서 비틀스로. 심수봉에서 저스틴 비버로. 은성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예리한 눈을 가졌다.

손뼉을 치는 회사원들 사이로 경찰 아저씨가 걸어왔다. 은성이는 먹구름처럼 덮쳐오는 불길함을 떨쳐버리려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었다.

"이 시간에 학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냐? 어른들은 어디 계셔?"

"저는 AG밴드 멤버예요. 어쿠스틱 기타 밴드죠. 오늘은 공원에서 버스킹이 있는 날이라 학교에서 허락을 받고 나온 거예요. 밴드 멤버 형들이 곧 올 거예요. 두 시에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준비했던 것도 아닌데 거짓말이 술술 나왔다. 하늘이 내린 거짓말쟁이 판다곰과 보낸 2년이라는 시간이 마냥 헛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그래? 어느 학교에 다니니?"

"계영 초등학교 5학년 2반 16번이에요. 저는 기획사 연습생이라 학교에서 시간 내기가 좀 쉽죠."

계영 초등학교는 외삼촌이 수배되기 전에 다녔던 학교였다. 4학년 2반 16번. 그 후로 몇 번 더 학교를 옮겼지만, 반이나 번호는커녕 학교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다. 출석부에 이름만 올렸을 뿐 거의 나가지 않았고, 그 후로 학교는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구나. 그럼 형들이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려도 되겠지? 약속 시간까지 겨우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약속한 적 없는 멤버 형들은 약속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멤버라는 건 애초에 없었으니까. 때를 봐서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경찰 아저씨는 꼭 잡은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도 통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화장실 안까지 상냥하게 동행해 주었다.

경찰 아저씨는 친절해도 너무 친절했다. 은성이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을 때리거나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어째서 은성이를 잡고 늘어지는 걸까. 경찰 아저씨는 끝까지 친절함을 잃지 않았다. 2시 30분이 훌쩍 넘어가자 인제 그만 파출소에 가서 기다리는 게 어떻겠냐며 은성이에게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파출소로 가면서 은성이는 우리나라 경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한가해졌는지 물었다. 경찰 아저씨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가 학교에도 가지 않고, 돈을 벌러 다니면서부터라고 대답했다.

곰이 온다. 판다곰이 달려온다. 둥그런 배가 위아래로 출렁거렸다. 가장자리의 살들이 물결처럼



그림 · 강병호

퍼져나가며 나달나달해진 츄리닝을 사르르 흔들었다. 곰이 큼직한 앞발을 들어 파출소 문을 밀었다. 이마와 콧잔등에 굵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눈 주위의 그늘은 한층 짙어졌다. 외삼촌은 경찰들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한 뒤, 잘 훈련된 곰처럼 얌전히 의자 위에 앉았다.

경찰 아저씨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준비된 질문을 쏟아놓았다. 처음부터 경찰 아저씨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 어린이가 판다곰을 사육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을지도.

은성이는 외삼촌에 대해서는 맹세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새아빠의 주먹이 얼마나 단단하고 매웠는지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맞고 있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던 힘없는 엄마에 대해서 줄줄이 늘어놓으며 신세한탄을 했지만, 누구의 이름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말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조차도.

그러고 보니 걸리는 것이 있었다. 중국집 배달부. 매일 저녁 자장면을 배달했던 배달부가 파출소에 탕수육 그릇을 놓고 나가며 은성이에게 찡긋 윙크를 했다. 원룸과 파출소를 뻔질나게 드나드는 동안 파출소 벽에 붙은 수배 전단의 잘생긴 얼굴에 살을 더하고 더하면 판다곰이 된다는 사실을 눈치채버렸는지도 모른다.

왜 그랬을까. 외삼촌이 자기나 자기의 사돈의 팔촌에게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단무지 곱빼기를 외치며 단골손님에 대한 예우로 군만두 다섯 개를 요구했기 때문일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원룸 5층까지 매일 배달하기가 짜증났던 걸까. 면이 불었다고, 소스가 부족하다고, 짜거나 달거나 싱겁다고 투덜거리는 판다곰을 상대하기 귀찮았던 걸까.

"천수경에는 마땅히 참회해야 할 열 가지 무거운 죄가 나오지. 그중에 말로 지은 죄가 네 개란다. 우리가 짓는 죄의 절반이 말로 인한 죄라는 얘기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입에 도끼를 지니고 나온다고 한다. 그 도끼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찍으며 살아간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뱉은 나쁜 말 때문이지."

지난밤 외삼촌은 장장 열 시간에 걸쳐 온라인 게임을 하고, 짬뽕을 국물까지 다 들이켠 후 벌러덩 누워서 천장을 보며 말했다. 은성이는 그 말의 뜻은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외삼촌이 할 만한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을 마치고 천둥과 같은 트림과 함께 깊은숨을 뱉은 외삼촌은 어딘지 좀 지쳐 보였다.

외삼촌은 경찰이 묻는 것에 술술술 잘도 대답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그동안 저질렀던 크고 작은 사기들. 그의 조카가 새아빠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준 대가로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어 왔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는지를. 은성이의 엄마와 새아빠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들이 사는 곳과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것은 외삼촌을 만난 후 처음 들어보는 진실한 말들이었다. 그리고 은성이가 외삼촌에게 들었던 숱한 말들 중에서 가장 나쁜 말이었다.

은성이는 소리쳤다.

"말하지 마. 삼촌! 아무것도, 아무것도 말하지 마!"

외삼촌은 알고 있을까. 외삼촌과 보냈던 지난 2년의 시간이 은성이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온갖 거짓말로 얼룩진 시간이 은성이에게는 가장 달콤하고 평안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사람의 말을 잊어버린 판다곰처럼. 〈끝〉



여러분의 생활이 생활선이며 그냥 행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너무 많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나도 안개가 끼어서 공항에서 무척 기다린 데다 비행기 타고도 지연이 돼 가지고 한 시간 반이나 기다렸어요. 일찍 나와서 세 시간씩 기다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다리게 됐네요. 여러분이 기다릴까봐 딱해서 난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면 여러분도 지루하겠죠?

우리가 기다린 지루함은 한생각으로 돌려놓고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한생각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 점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설법이라기보다는 대중 토론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먹고사는, 공생으로서 공용하고 있죠. 그러니 가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다른 모든 문제를 각자 마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묘법이 바로 우리들의 법이자 부처님 법이고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여러분은 부처님 법이 따로 있어서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부처님 도량에 가야만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그 체 없는 마음은 우주를 싸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청정함도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또 걸림 없는 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도 버리지 않는 법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즉 말하자면 갖추어 가지고 있다 이 소립니다. 또 일심으로써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데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재료를 가지고 있고 모든 법을 응용하고 있는 것이니 아주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처님 법은 자기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중생이니까 부처님의 그 묘한 법, 광대무변한 법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이 고등 동물로서, 한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억겁에 걸쳐 '아, 이런 거는 잘못된 건데….' 하고 반성하고 고치면서 살아오던 과정이 있어서 현재 인간에 이르기까지 진화되면서 마음을 그렇게 지혜롭게 썼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서 아직도 짐승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물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인간까지 됐으니


그림 · 최주현

인간 자체가 모두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 한번 돌리면 부처입니다. 그 부처의 마음을 내가 갖추어 가지고 있고 청정함도 나한테 있고 걸리지 않는 것도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된다면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나 그 도리를 몰라서 바깥으로 끄달리고 윤회에 끄달리고 업보에 끄달리고,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 그런 팔자 운명에 끄달리고, 부적을 써 붙여야 잘된다는 것에 끄달리고 '내가 그냥 이사를 가면 사단이 나지. 무슨 일이나 생기면 어쩌나.' 하는 데 끄달리고, 무꾸리를 해서 좋다고 그러면 좋은 줄 알고 언짢다고 하면 언짢은 줄 알고 남의 말에 끄달린다면 중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된 도리로서 다 갖추어 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그렇게 약하고, 고차원적인 인간으로서 행을 못하시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한테 "한생각의 도리를 알면 부처인 것이다. 그런데 그 도리를 모르면 인과응보에 끄달리면서 일체 모든 것이, 발 하나 떼어 놓는 대로 고(苦)니라. 네가 고덩어리니라." 그러셨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말씀 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한 말씀 올리고 여러분이 또 질문도 하시고 이러세요. 오래간만에 만났고 하니 오늘 툭 털어놓고 우리 서로 질문하고 이래 봅시다.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법(四諦法)도 '고덩어리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멸해 버리느니라. 그러면 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편하게 아세요. 그걸 그냥 어렵게 생각을 하신다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난 게 고덩어리니라. 왜 고가 됐느냐. 내가 나기 이전의 수없는, 물질에 끄달리면서 살아 내려온 그 습이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에 살면서 지은 인(因)으로 인해서, 즉 말하자면 형제의 인, 부모의 인, 자식의 인…. 착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 인에 의해서 과(果)가 되고 인과가 돼 가지고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겁니다. 부모도 바로 인연에 따라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가 뭉쳐서 고가 된 겁니다.

그러면 고가 어디 붙어 있느냐. 바로 여러분 속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천차만별로 요렇게도 생기고 길쭉하게도 생기고 모습이 죄 다르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사는 짐승들도 천차만별로 다른 모습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도 천차만별이고 짐승도 천차만별이고 사생이 다, 알로 낳는 거든지 태로 낳는 거든지 습한 데서 낳는 거든지 화해서 낳는 거든지 다 천차만별로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내 몸 안에 지금 수십억 마리가 돌고 있는데 그게 인과로 뭉쳐진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나왔지만 그 속은 내가 과거에 태어나기 이전에 살던 그 인으로 인해서, 업보로 인해서, 살던 습으로 인해서 온 인과가 뭉쳐서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악한 마음도 나오고 선한 마음도 나오고 증오하는 마음도 나오고 별 마음이 다 나오는데 그 마음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데도 잘못되는 수가 있고 잘되는 수가 있고, 장사를 하는 데도 잘되는 수가 있고 잘못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행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하신다면 행과 마음과 말과 뜻이 바로 합류화돼 가지고 스스로 속이 상하질 않고 편안하기 때문에 말도 편안하게 나와서 남도 편안하게 해 줘요. 그러면 빚진 사람이 갚지 않다가도 자기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면서 '아, 저 사람에게 빨리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빨리 갚게 되는 거고 빨리 받게 되는 거죠. 장사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모두를 거느리는 회사의 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만이, 또 말을 어떻게 해 줘야만이, 행을 어떻게 해야만이 직원이 자기 뼈를 깎아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가? '내 사장을 살려야지. 이 회사를 위해서 저분은 참 애쓰셨는데….' 이렇게, '저분은….' 하는 이러한 마음이 스스로 생기게 해야지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삐뚜로 나갔습니다. 허허허….

그런데 삐뚜로 나간 게 아니라 그것도 생활선으로 통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행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또 마음과 행으로써, 즉 말하자면 실천궁행을 하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에 빠지거나 유(有)의 생활에 빠진다면 이건 저울이 맞질 않는 거죠. 양편이 다 맞아서 우리가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부처님 법이 돼야 되겠죠. 동떨어져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몸뚱이의 고'라고 했는데, 그래서 고집멸도 사제법은 "집착을 하지 마라.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놓게 된다. 그냥 용광로에 놓는 작업만 하라. 그러면 스스로 바로 재생이 돼서 나간다. 그것이 집착을 하지 않고 놓는 것이다. 그러면 멸한다. 멸하면 도니라." 이겁니다.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얘기해 드리죠. 내가 지금 몸에 들어 있는 그 인과응보에 의한 의식 자체를, 수십억 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지배인이라고 생각합시다. 지배인이 모든 부하를 인솔하는데 마음을 잘 써 주면, 둘이 아니게 써 준다면 그 수십억 마리가 모두 한마음으로 따라 줍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장 공장, 위 공장, 이 공장 저 공장, 이렇게 여러 군데에 공장이 있어도 마음은 체가 없으니 지배인의 한마음이라면, 내가 지금 살면서 한마음을 잘 쓴다면 이 속에 있는 그 수십억 마리가 한마음으로 뭉쳐 줍니다. 그래서 묘법인 것입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이런 공부를 해서 미래에 천당에 간다, 승천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자체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따로 없고 미래도 따로 없고 현실일도 찰나 생활이기 때문에 '무(無)'다 이런 겁니다. '공했다'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무척 고민하면서 여러분을 대하는 겁니다. 책을 보고 이론으로써, 학식으로써, 지식으로써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연구해서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 26면으로 계속

영남 범음범패(통범소리) 제주도 교육원

- 실전위주 단기교육 특강 -

1 불교의식 각종 사물 단기교육
2 범음범패 실전위주 단기교육
3 각종(불공) 1인 진행법 단기교육 (전체교육 3개월)

현 시대에 맞는 실전위주의 톡톡튀는 불교의식 교육을 강의합니다.
제주도에서 홀로 포교당 운영 및 수행하시는 주지스님, 법사님 환영합니다.

■ 인터넷 유투브. 다음 (월오스님을 클릭 하세요!)
■ 영남 천수바라, 나비작법, 살풀이, 극락무, 승무, 연화무, 지전무 등 배우실 스님, 법사님, 보살님 개인특강
■ 범음범패 문의 : 010-3189-0602 월오 합장
■ 불교무용 문의 : 010-3844-9565 하늘소리예술단장(서련)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 서길 92

염불공덕 성취도량 문수암

전화 064-799-1559

부처님 마음 공부

무량 청정암 열린 마음선원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부처님 마음공부를 함께하실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아 래

1 교육과정 및 일정

과 정	요일 및 시간	수 업 내 용	
기초과정	매주 화요일 (요일 변경 가능)	염불선	1단계 : 불교이해 2단계 : 경전독송 이해
중급과정	매주 수요일	참 선	참선이해, 법거량
고급과정	매주 금요일	간화선	화두참구, 깨달음

2 수업 신청 방법
- 기초과정 : 3개월 선착순 (20명 이내 한정)
- 법사와 1대 1 수업 운영
- 수 강 료 : 3개월 (30만원)

3 교육장소 : 무량 청정암
4 교 수 : 무량 청정암 최정훈 법사
5 문 의 : 010-2559-6886

무 량 청 정 암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76번길 23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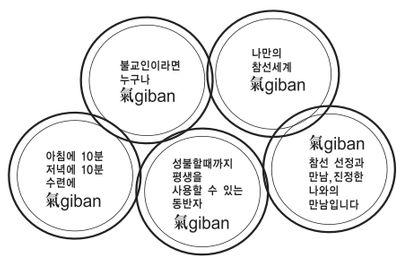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 25면에서 계속

내가 행해 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업과 선업이 한데 뭉쳐 있는데 악업도 여러분의 법이 아니요, 선업도 여러분의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법인가? 여러분이 마음 쓰고 행하는 것이 그대로 법인 겁니다.

왜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광로에 넣듯이 작업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찰나, 되는 것도 찰나라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가고 오는 것 모두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만남도 그렇고 모두가 말입니다. 그러니 공했단 얘기죠. 그것을 현실로써 널리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나와 상대, 이 모두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으로 뭉쳐서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혜가 생기죠.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집 안에 있다고 해서 안 보인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가깝고 멀고가 없습니다. 저 우주 전체를 한 찰나에 탐험할 수도 있는 심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내가 용광로에 넣듯이 과거의 업을, 얽히고설킨 인과를, 악업 선업 지은 거를 다 오는 대로 놓아야 합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전자에 한 것이 현실에 나타나서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 선업을 지었으면 선업이 번갈아 가면서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겁니다. 안에서 솟아나오고 바깥에서 들어오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이 이 도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기복으로만 자꾸 나간다면 공덕도 없거니와 이익도 없고 또 세세생생에 나를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일체를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악업 선업을 다 녹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그럴 때,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큰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고 또 '아,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모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인과로 인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는 의식만 없으면 송장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수십억 마리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선업 악업 지은 데서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를 통해서 바로 소뇌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중추 또는 척수 이런 데로, 양쪽에 마이크 세워 놓았듯이 세워 놓은 데서, 척수 자체에서 중추를 끼고 도는 그런, 가장자리 양쪽에 붙은 것이 바로 전체를 통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말로 할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놓아야 합니다. 잘돼서 좋은 생각이 들어가면 '아유, 참 감사하구나!' 이러는 게 그냥 놓는 겁니다. '내 주인공, 참 감사하구나!' 하는 게 놓는 겁니다. 또 안됐으면 '아! 내 주인공밖에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게 놓는 겁니다, 또.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왜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자꾸 창살 없는 감옥에다 자기를 넣고 옹쳐매니까 나는 되풀이하는 겁니다. 마음이 체가 없어서 우주 전체를 탐험할 수 있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또 "당신 마음으로 옹쳐매고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둬 놓는 게 고(苦)고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래도 믿지 않는 겁니다. 왜들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혼자 왔다 혼자 가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다섯 가지는 대신 못해 준다고요. 똥 누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죽는 거, 아픈 거 이런 거는 대신 못해 줘요.

여러분한테 자꾸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릇이 요만하다면 나도 요만큼밖에 얘기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드럼통만 하다면 드럼통에 담길 말을 하게 되죠. 바다 같다면 더 말할 거 없이 함이 없이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또 가고 옴이 없이 "허허, 물이 없는데 배가 어디 있을꼬? 배가 없는데 탈 게 어디 있으며 건너갈 곳이 없는데 건너갈 게 어디 있나, 내가 공했는데." 아, 이런 말들로 쭉 법문이 돌아가죠? 그런데 수차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음 한 번 잘못 쓰고 행 한 번 잘못해 가지고 백 번을 고생을 하고 백 마디를 해야 하고,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착을 둘 걸 둬야지 이 몸뚱이도 내 집이란 말입니다. 내 집에도 착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런 것에 착을 두지 마라. 내 집까지도 착을 두지 마라." 왜? 평생 살다가 내 집을 떠날 때 어떻게 이걸 두고 떠나느냐 이거죠. 착을 두면 이 집을 떠나지 못해서 3년이고 4년이고 콩깍지 안 떨어져서 억지로 떼듯이 그렇게 아픔을 당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착을 두지 않는다면 내일 가든지 모레 가든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 아닙니까? 콩이 다 익었으면 훌떡 까지듯이 건드리기만 해도 까지죠. 그런데 다른 데 착을 둔다면 평생 살던 이 몸뚱이의 착은 어찌 떼시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생활이 생활선이며 그냥 행선입니다. 화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뚱이를 화두로 생각하십시오. 화두는 따로 없는 것입니다. 남한테서 받는 것이 화두가 아니라 나에게서 그냥 저절로 생겨요. 이 몸뚱이가 난 것이 태초요 바로 화두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집도 되고 화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인과응보, 악업 선업이 한데 뭉쳐서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고덩어리다 했으니 여러분이 그 고덩어리를 녹여서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살든지 자식과 부모와 형제들과 살든지 또는 회사의 직원으로 살든지 사장으로 살든지, 선생님으로 살든지 학생으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막론하고 각자 여러분의 탓이지 남의 탓이 아닙니다. 모든 잘못을 남한테 전가를 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놈이 잘못해 가지고 집안이 그냥 어수선하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거든요. 자식이 학교에서 잘못해서 부모가 성가시면 "아이구! 저놈의 자식으로 인해서 그렇다." 이러거든요.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일체가 다 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집착을 하지 마라.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놓게 된다.
그냥 용광로에 놓는 작업만 하라.

여러분, 저 상점에 가 보십시오. 깡통은 깡통전에 깡통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자기가 지은 대로 차원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자식도 인연이 바로 그런 것이고 부부지간도 인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깡통끼리 만나니까 그렇게 얼그렁덜그렁 하죠? 소리가 납니다. '넝마는 넝마전에 모여 있고' 하는 그 차원이라면 그것끼리 또 모입니다. 그러니 서로 고생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그냥 욕하고 때리고 온통 "이년 저년, 이놈 저놈,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고 온통 야단입니다. 왜 그런가. 그게 아수라장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세상에 이 몸뚱이로 태어나 가지고 철모를 때 빼고 잘 때 빼고 늙었을 때 빼면 몇 푼어치나 산다고 그렇게 얼그렁덜그렁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즐겁고 패기 있고 자유스럽게, 좋으면 껄껄 웃어도 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조그만 거 가지고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싸우거든요. 참 이상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요,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만상을 찌푸리고 말입니다. 그걸도 그 하치않은 거 가지고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좋게 사세요.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여보! 당신 오늘 얼마나 노고가 많았소." 하면서 웃고 들어오면 그냥 미안하고 그래서 "여보 당신! 참 얼마나 일하시느라고 애썼소." 하고 이렇게 말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당신,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러고 들어오면 "아니?" 이렇게 나오지요. "아니, 뭐?" 이렇게, 하하하….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거 가지고 실랑이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법을 못 배워요. 그리고 자유스럽게 못 살아요. 자유스럽게 살아야, 먹을 것에도 착을 두지 않아야 들어와요. 돈도 착을 두고 가지려고 애를 쓰면 자꾸 달아나가요. 병고도 탁 놓고 '네가 업보로 인해서, 인과응보로 인해서 모두 뭉치게 한 거니까,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 알아서 해라.' 아, 이러고 탁 놓으니까 이게 심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구! 난 내 그릇이나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달아나가거든요.

그전에 이런 얘기 한 예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감기를 앓았는데 너무 오래 앓았어요. 인제 죽을병이 되어서 의사들도 다 괴질이라나 그러면서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아들인데 그냥 하도 병이 안 떨어지고 애를 쓰니까 스님이 오시자 여쭤 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당신네 나무 패는 모탕 있죠? 도끼하고." 그거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놓으니까 도끼를 들고 그놈 좀 이리로 내오라고 그러거든요. 허허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소? 아, 그놈 내오라고 그러니. "어서 나오너라. 스님이 나오라고 하신다." 해서 나오니까 그놈 모가지를 그냥 모탕에다 턱 놓고 "이놈, 감히 어디라고 네가 부처님 앞에 붙어서 이러느냐!" 이러면서 그 모탕에다가 목을 올려놓고 그냥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여기 와서 그걸로 인해서 얻어먹고 살려고 했는데 뚝배기가 깨지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뚝배기를 들고 얼른 도망을 갔습니다. 그 아들한테 뚝배기를 씌워 놨거든요. 뚝배기를 씌워 놔야 병을 앓아서 내가 얻어먹거든요. 그래 뚝배기를 벗겨 가지고 얼른 도망을 가니까 그 병이 바로 낫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좀 내버리세요. 네? 죽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원통합니까? '내일 죽은들 어떻고 모레 죽은들 어떠리. 좀 더 살면 어떻고 덜 살면 어떠리.' 아, 이렇게 좀 하면 어때요? 뭐가 그렇게 그렇다고…. 그렇게 내버리고 산다면 그냥 좋은 밥에 좋은 옷에 화목한 가정에, 참스러운 마음에서 이리로 가도 좋고 저리로 가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덩실덩실 춤을 춰도 다 못할 것입니다. 정말이지 여러분이 "저 중 미쳤어." 이럴까 봐 춤을 못 추지, 허허허…. 아니, 모르는 사람들은 "저 중 미쳤어." 그럴 거예요. 춤 좀 추고 좀 웃기나 하면 "갓 미쳤어." 그러고, 껄껄껄껄 웃으면서 아주 그냥 옷도 다 벗고 이러면 "아주 정말 미쳤군."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 하는 데 미쳤다는 소리 한 마디 듣지 않고는 공부 못합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진심으로 자기한테 자기가 미쳐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길잡이한테는 지혜를 구하고자 따르는 거고, 자기를 발견하려면 자기를 믿어야만 됩니다. 만날 여러분이 기복으로 끄달리고 귀신 짓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귀신 짓을 하지 않는데 어찌 귀신이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진짜로 아주 중심에다 활을 꽂을 수 있다면 진짜로 아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아니 되는 거 없죠. 여러분, 인제 질문 좀 안 하시렵니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9년 10월 1일 부산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세상보기

권혁주, 불꽃처럼 살다간 천재 음악가



강형진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단장

지난 10월 12일 아침, 후배작곡가 차은선 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그는 전화로 "선배님, 권혁주 씨가 사망했습니다"라는 비보를 전했다. 너무 놀라고 믿기지 않아 즉시 김의명 교수에게 연락했다. 통화연결음이 울리는 그 짧은 시간에 오보이길 바라는 생각밖에 안들었다. 전화를 받은 김의명 교수는 "혁주 소식 듣고 연락했어요?"라고 답했다. 현실은 잔혹할 만큼 냉정했다.

지난 여름, 강원도 인제 동국대 만해마을에서 만해축전준비위원회가 지원하는 '2016 설악바이올린학교 & 음악캠프'에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할 때 권혁주 씨는 팔꿈치에서 고름이 나와 가을쯤 수술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다. 대관령 국제음악제 등 연주 일정이 많아 그러잖아도 걱정하고 있던 터였다.

천재 권혁주를 처음 접한 것은 그가 세계적인 콩쿠르에 여러 차례 입상하고 러시아와 독일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금호아트홀에서 공연을 하면서다. 니르바나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불교계에도 공연 전문기획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카사 엔터테인먼트'를 창업하면서 사업이 확장되었고, 평소에 존경하는 김의명 교수가 이끄는 JK첼버오케스트라를 관리했다. 권혁주는 JK의 악장이자 솔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불평을 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개런티를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오로지 묵묵히 연주만 했다.



10월 12일 작고한 권혁주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는 늘 말이 없었다. 눈을 마주치는 정도가 인사의 표현 전부다. 과묵하고 말이 없지만 수줍고 사슴과 같이 순수한 눈망울을 가졌다. 불교계에서 전문적인 음악 인재를 찾기가 매우 힘들고 그나마 이웃 종교인들은 활동을 꺼려하는 실정이기에 공연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에 고충이 많다.

권혁주는 이에 개의치 않았다. 칠장사 산사음악회, 니르바나오케스트라의 아프리카 여성 돕기 '소녀' 자선음악회, 쿠부치 사막화 방지 환경 음악회 등 중요한 공연에 함께해 왔다. 작년부터 실시하는 만해축전의 일환인 청소년을 위한 설악바이올린학교에 주요 강사로서 활약해 왔다.

음악과 참선은 유사점이 많다. 함께하기도 하고 혼자하기도 한다. 길 없는 길을 혼자서 무소의 뿔처럼 간다. 냄새도, 형체도, 색깔도, 답도 없는 길을 선지식의 가르침을 참고삼아 가다가 결국은 그마저 버리고 가야 하는, 그래서 지독한 자기와의 싸움이다.

권혁주 역시 유복하지는 않았다. 다만 주위에 한국 바이올린계를 이끄는 스승들이 있었다. 스승들의 도움으로 성장했던 그는 '모든 것을 언제나 대중에게 회향하리라'는 서원을 실천했다. 어떤 공연도 마다하지 않았고, 어디든 찾아갔다. 그는 마지막까지 공연을 준비하며, 불꽃처럼 자신의 생을 살았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한국음악계의 대가들이 줄지어 문상했다. '마지막 모습에서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다'는 누군가의 말을 상기한다면 권혁주가 가지는 한국 음악계에서의 위치는 매우 컸다.

수많은 불자들도 그의 공연 때마다 환호했다. 이번 비보에 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생각보다 많은 팬 층이 형성돼 있음을 실감했다. 이제는 권혁주를 더 이상 공연장에서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권혁주 영가시여 이제 이승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마음의 짐을 훌훌 버리고 평안히 극락왕생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 "좋은 스승에게 배운 많은 가르침들을 대중에게 회향했던 혁주야 네가 벌써 그립구나"

기자 칼럼

교수 갑질은 범죄행위, 퇴출은 당연



신성민
취재부 차장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관공서와 언론계 등은 시행 전부터 행실에 조심을 기해 왔다. 하지만, 교수 사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최근 대학가가 비위로 얼룩지고 있다. 다른 것도 아닌 교수들의 갑질들 때문이다. 성추행부터 경비원에 대한 막말, 연구비 횡령까지 '목불인견(目不忍見)',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수준이다. 그것도 불교 종립인 동국대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 그렇다.

최근 먼저 문제된 것은 졸업한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대 A교수다. 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은 계속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교수는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갔다가 경비원 2명이 제재하자 욕설과 함께 막말 퍼부었다. 그는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넌 때려도 개값도 안 돼서 못 때린다. 어디 교수에게 덤비냐"는 등에 막말을 쏟아냈다.

횡령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한 교수는 정부 지원 연구비 8억여 원을 착복해 구속됐고, 또 다른 교수는 학생 장학금을 가로채고, 논문 심사비 200만 원을 요구해 동국대 인권센터에 제소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10월 18일 열린 회의에서 동국대 측에 진정성 있는 처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회의에서도 성토가 잇달았다. 위원 우봉 스님은 "언론 보도에 잇따른 사건이 발생함에도 동국대가 해당 교수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반응을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며 "징계를 비롯해 원칙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현재 학교 당국의 입장은 "교수들의 비위가 잇달아 터지는 것은 학생이 지도교수를 교체할 수 있는 지도교수 자율 선택제를 시범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불이익을 우려해 공개를 꺼려한 학생들이 교수들의 문제를 일제히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학교수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사회의 지성을 선도하는 지식인이다. 또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도 하다. 대중들의 존경과 기대를 받는 만큼 교수는 일반인보다 높은 지성과 인성, 윤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교'를 기반으로 한 종립대학에서 단기간에 이 같은 비위가 불거지는 것은 동국대 교수 사회의 자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학교 당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시행하고 있는 제도 때문에 교수 비위들이 나왔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그런 변명이 면죄부도 될 수 없다. 그간 수년간 관행처럼 이뤄져왔던 교수들의 '갑질'들을 내부 구성원들이 음양으로 쉬쉬하고 넘어갔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제자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하는 '갑질'은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는 절대 될 수 없다. 동국대가 정말로 인권대학을 표방한다면 현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비위가 확인된다면 퇴출이 이뤄져야 한다. 암덩어리는 적출해야 하고, 불똥은 털어내야 한다.

社說

지진·태풍 피해 사찰 어려움 함께해야

9월 12일 경주시에서 발생한 5.8지진은 곳곳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이후 10월 5일 태풍 차바의 울산 강타까지, 이 지역 일대가 입은 피해는 막심했다.

지진과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한달 뒤 지역 사찰의 어려운 현실을 돌아보았다.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 복구가 문화재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조계종은 1차적으로 피해조사단을 파견했지만 문화재 피해와 건물 피해 등의 조사에만 국한됐다. 지자체의 사찰을 대상으로 한 복구 지원도 일부에 국한돼있다. 11월부터 문화재 복구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지만 진입로 유실 등의 피해복구는 더딘 상황이다.

사찰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참배객들마저 대폭 줄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경주 기림사의 한 스님은 참배객이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고 했다. 경주 분황사의 경우 지난해만해도 한창 오던 수학여행이 전체 취소되기도 했다. 지역 사찰들은 참배객들이 줄어들까 언론에 보도되는 것까지 꺼렸다.

불교계는 그동안 다양한 재난재해에 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자비실천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 사찰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는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이 지역 사찰들은 불교계에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자원봉사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지역 사찰들은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한 자비행을 펼치고 있다. 이제는 지역 사찰의 어려움을 불교계가 함께 나누고, 자비행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때이다.

기업가의 문화재 환수 원력에 박수를

일본에 반출됐던 고려불화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가 윤동한 ㈜한국콜마홀딩스 회장의 헌신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14세기 중엽의 작품이라니 약 700년만에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윤 회장은 올해 초 재일교포 고미술사업자에게 사재 25억원을 출연해 작품을 구입했고, 문화재청의 자문을 거쳐 이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이 더 의미를 더하는 것은 여태까지 국립박물관에는 수월관음도가 단 한점도 없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에는 5점의 수월관음도가 사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윤 회장은 어릴 적 역사학자나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정형편상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렵게 창업해 현재의 회사를 이룬 후에는 역사와 인문학을 경영에 접목하려 노력했다.

수월관음도 환수를 마음먹은 것도 인문학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프랑스 기메박물관에서 해설 담당자가 고려불화를 설명하면서 '한국에는 없는 희귀한 그림'이라고 설명할 때 자존심이 상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고려불화라는 귀중한 문화재를 되돌리고 싶었다"고 회자했다.

또한 "문화재는 함께 향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증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문화재들을 기증하겠다"고도 했다. 향후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번 민간 기업과 정부가 만든 문화재 환수와 기증의 모범 사례이자 기업이 사회로부터 창출한 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킨 것이기도 하다. 그의 원력에 박수를 보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깨달음 공개강좌



※ 무료공개강좌 일정

〈2016년〉

4차 공개강좌 : 업(業)과의 전쟁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 신청접수 : 각 회차별 무료예약 (선착순33명 제한)
- 문 의 : 1899-9532
- 강 사 : 깨달음센터 - 방장 진귀

〈2017년〉

5차 공개강좌 : 주제 : 입법계품의 지혜
일시 : 2017년 1월15일 일요일 오후2시

6차 공개강좌 : 주제 : 청소년의 미래와 깨달음
일시 : 2017년 2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7차 공개강좌 : 주제 : 정견(正見)과 사견(邪見)
일시 : 2017년 3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8차 공개강좌 : 주제 : 나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
일시 :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9차 공개강좌 : 주제 : 자유와 평등
일시 : 2017년 5월 21일 일요일 오후3시

10차 공개강좌 : 주제 : 말법시대(禪)
일시 :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오후3시

11차 공개강좌 : 주제 : 53 선지식
일시 :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12차 공개강좌 : 주제 : 달마와 원효
일시 :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3시

13차 공개강좌 : 주제 : 깨달음센터의 수행법
일시 :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오후3시

14차 공개강좌 : 주제 : 갈등과 평온
일시 : 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2시

15차 공개강좌 : 주제 : 고통과 병통은 왜 오는가?
일시 : 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16차 공개강좌 : 주제 : 자비와 사랑
일시 :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오후2시

※ 예약신청을 미리 하지 않으시면 출입할수 없습니다

역대 조사분들의 어록이나 논서에 답습되지 않은 또 다른 안목의 특별한 강좌가 펼쳐집니다.....

깨달음 센터

※ **공개강좌** 예약신청 후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다음 강좌부터는 예약신청 및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NAVER 깨달음센터 검색